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고 든 비 힝클리 회장은 176차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받은 권고를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마의 계략에 맞서 계속해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하늘의 은총이 청중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사랑과 간증과 축복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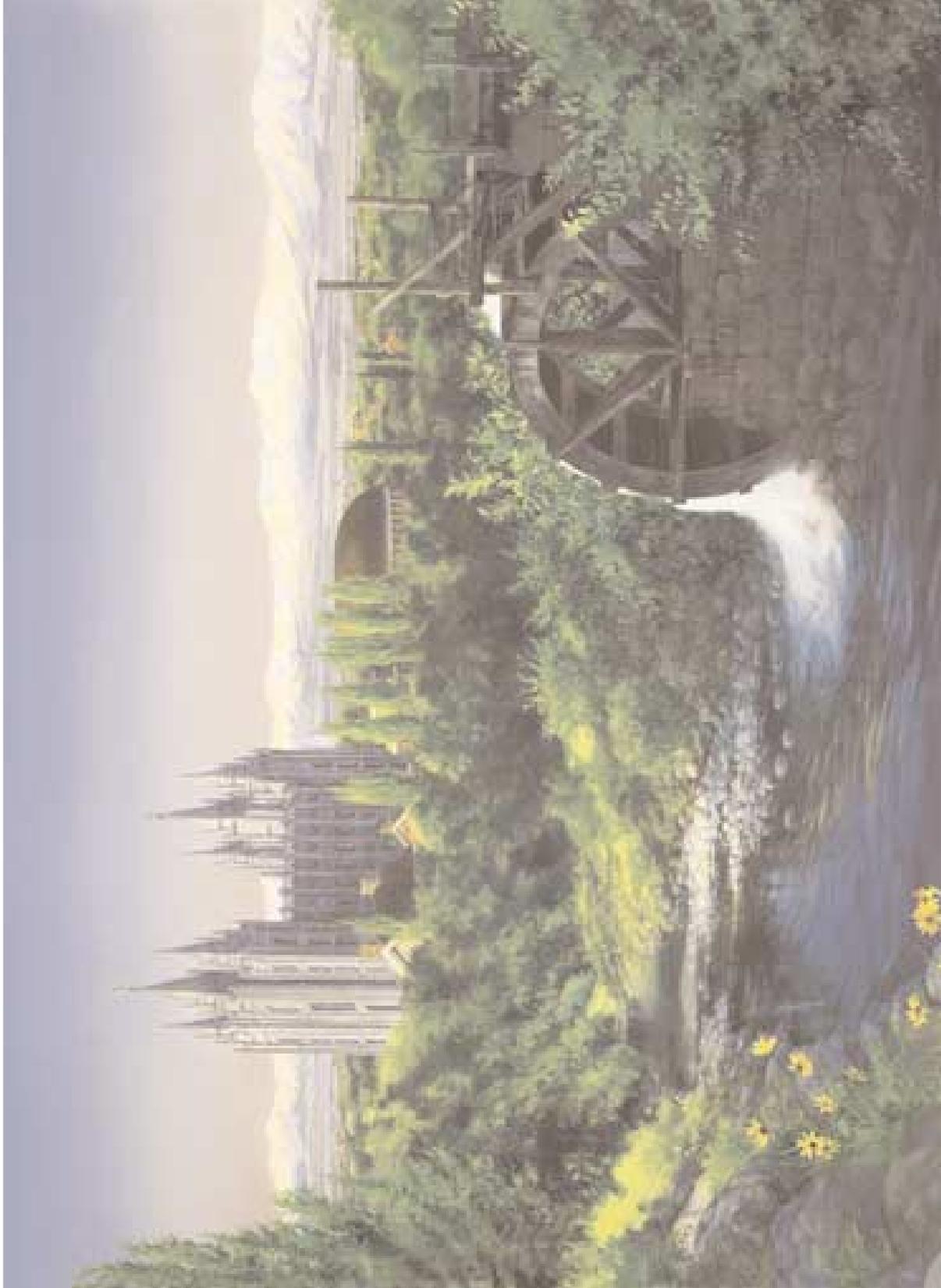


그림: 알 라운즈, 시티 크리크

1893년 경의 이 솔트레이크 성전 전경에는 성전 북동쪽의 시티 크리크에 있던 네 개의 입착기 공장 중 하나가 보인다. 이 공장에서 유타 주 세인트조지시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비단을 가공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옷감을 공급하기 위해 누에고치 사육을 가내 공업으로 육성했다.



그림: 댄 스팅크맨, 1856년 에스더의 인형

1856년부터 1860년 사이에 거의 3,000 명이 열 대의 손수레 부대에 나뉘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웨일스와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손수레는 마차보다 값도 더 싸고 더 빠른 여행 수단이었다. 2006년 6월 9일은 아이오와의 아이오와시티에서 최초의 손수레 부대가 출발한지 1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리아호나

2 제176차 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8 고운 마음과 도움의 손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 11 쏟아지는 축복
줄리 비 벡
- 14 어린아이와 같이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18 신앙에 충실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2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23 2005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류 칸트웰
- 24 2005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 25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28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32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 34 선택의지의 은사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 36 결혼 생활을 보살핌
러셀 엠 벨슨 장로
- 39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엘 톰 페리 장로

신권 모임

- 42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46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 48 회개, 회원됨의 축복
리차드 지 헝클리 장로
- 50 왕 같은 제사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54 우리의 신성한 신권 책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58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고든 비 헝클리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1 만유의 회복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69 고쳐야 하는 부서진 것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72 위대한 행복의 계획
얼 시 텅기 장로
- 74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겼더라
앤 시 핑그리
- 77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81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고든 비 헝클리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4 복음을 나누는 가정들 만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87 지금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90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시온
데이비드 알 스톤 장로
- 93 주님의 평화의 도구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

96 기도, 신앙 및 가족: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디딤돌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장로

99 풍성한 삶
조셉 비 워스린 장로

102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고든 비 헝클리 회장

청녀 총회

- 103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
수잔 더블류 태너
- 106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줄리 비 벡
- 109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 111 여러분의 빛-열국을 위한 기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5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16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 118 아론 신권 및 청녀 참고 지도서
- 121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2 교회 소식



제176차 연차 대회 요약

2006년 4월 1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개회 기도: 클라우디오 알 엔 코스타 장로. 폐회 기도: 닐 엘 앤더슨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존 롱허스트와 리차드 엘리엇: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송가, 40장;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찬송가, 76장, 윌버그 편곡, Jackman 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아름다운 세상”, 찬송가, 45장, 윌버그 편집, 미출판: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호프만, 라이언 편곡, Jackman 출판: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6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폐회 기도: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음악: 브리검 영 대학교 연합 합창단. 지휘: 로설린 홀.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I Saw a Mighty Angel Fly”, 찬송가, 15장(영문), 루이스 편곡, 미출판: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자브리츠키 편곡, Plum 출판: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날 따르라”, 찬송가, 65장, 매뉴킨 편곡, Sonos 출판.

2006년 4월 1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폐회 기도: 로버트 제이 휘튼 장로. 음악: 오렘 및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 신권 합창단. 지휘: 더글러스 브렌츨리, 라이언 에지트, 릭 데커.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일어나라 주의 성도”, 찬송가, 26장, 스타헬리 편곡, Plum 출판: “주님은 내 목자니”, 찬송가, 99장, 루스 편곡, 미출판: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2006년 4월 2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폐회 기도: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티슨: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쪽, 브렛포드 편곡, Nature Sings 출판: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O Lord Most Holy”, 프랭크, 로버슨과 슈라이너 편곡, 미출판: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6년 4월 2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개회 기도: 랜스 비 위크먼 장로. 폐회 기도: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린다 마저릿과 보니 굿리프: “Sing Praise to Him”, 찬송가, 70장(영문), 윌버그 편곡, 미출판: “Jesus, Lover

of My Soul”, 찬송가, 102장(영문), 윌버그 편곡, 미출판: “군도다 그 기조”, 찬송가, 35장; “낮도 다간 이 저녁에”, 찬송가, 72장, 게이츠 편곡, Jackman 출판.

2006년 3월 25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수잔 더블류 태너. 개회 기도: 아넷 시 버지스. 폐회 기도: 제시카 바스. 음악: 유타 주 오렘 연합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메릴리 웹.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주는 나의 빛”, 찬송가, 48장; “Shine the Light”, 메들리, 허프 편곡, 미출판(“빛을 발하라”, 어린이 노래책, 96쪽;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어린이 노래책, 70쪽; “거룩하신 주님의 빛”, 찬송가, 195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허프 편곡, 미출판(독창: 힐러리 도드);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웹 편곡, 미출판.

연차 대회 녹화 자료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자료는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인터넷 상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회 말씀을 접하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든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투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엠버 클러슨, 로드 보엠, 조엘 램프, 캔델리아 이탈리아가 촬영했으며, 한국에서는 이현규와 이민희, 멕시코에서는 크리스티안 바라간, 필리핀에서는 애틀리 바바 글로리, 우루과이에서는 아벨 고메스, 미국 미주리 주에서는 브렌트 존스가 촬영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제5호
26985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러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켄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꾸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빅터 디 케이브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새나 버틀러,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래빗,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비버안 플슨, 새라 알 포터,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킴벌리 엠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갤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처널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82호, 제 43권, 제 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두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어리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May 2006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순)

- 고든 비 힝클리, 58, 81, 102
- 맬린 에이치 옥스, 77
- 데이비드 알 스톤, 90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28
-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32
-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42
- 러셀 엠 넬슨, 36
-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46
- 로버트 디 헤일즈, 4
- 로버트 에스 우드, 93
- 리처드 지 스코트, 87
- 리처드 지 힝클리, 48
- 보이드 케이 패커, 25
- 볼프강 에이치 폴, 34
- 수잔 더블류 테너, 103
- 앤 시 핑그리, 74
- 얼 시 텅기, 72
-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8
-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96
- 엘 톰 페리, 39
- 엠 러셀 밸러드, 84
- 일레인 에스 돌튼, 109
- 제임즈 이 파우스트, 50, 61, 111
- 제프리 알 홀런드, 69
- 조셉 비 워스런, 99
- 줄리 비 벅, 11, 106
- 토마스 에스 몬슨, 18, 22, 54
- 헨리 비 아이어링, 14

주제 색인

- 가족, 36, 46, 96, 103
- 간중, 50, 81, 87, 102
- 감사, 81
- 개종, 77
- 결혼, 36
- 관용, 58, 93
- 관점, 42
- 구원의 계획, 34, 72
- 그리스도의 빛, 111
- 기도, 96
- 기쁨, 99
- 도덕성, 18
- 모범, 46, 54, 84, 106, 109
- 몰몬경, 77
- 배도, 61
- 봉사, 8, 32, 74, 103
- 부채, 18
- 부활, 72
- 빛, 103, 106, 109
- 엘 톰 페리, 39
- 사랑, 99, 103
- 선교 사업, 32, 84, 87
- 선택의지, 4, 34, 81
- 성신, 4, 14, 28
- 성약, 28, 39, 61
- 성찬, 39
- 속죄, 25, 48, 72
- 순종, 34
- 시온, 90
- 신권, 11, 54
- 신성한 본질, 111
- 신앙, 14, 74, 96, 102
- 아론 신권, 39, 50

- 아브라함의 성약, 106
- 안전, 14
- 영성, 74
- 영적 은사, 11
- 예수 그리스도, 48, 69, 77, 102
- 외설물, 18
- 용서, 25
- 우정, 84
- 유혹, 4, 18
- 의로움, 109
- 의사소통, 36
- 인도주의 지원, 8
- 인종 차별주의, 58
- 일, 58
- 자녀, 14
- 자애, 8
- 잠재성, 99
- 준비, 87, 111
- 지혜의 말씀, 18
- 책임, 50
- 청소년, 46
- 축복, 11
- 축복사의 축복, 106
- 친절, 58, 99
- 침례, 28
- 평화, 69, 93
- 표준, 42, 90
- 하나됨, 93
- 합당성, 42
- 행복, 32
- 회개, 25, 48, 69
- 회복, 54, 61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의롭게 사용하는 선택의지는 빛으로 어두움을 없애도록 하며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줍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을 대신하여, 회장님께서 주님의 영감에 따르시고 우리에게 물몬경을 읽도록 권유하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회장님의 영감 어린 권고로 우리는 풍성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몬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선지자이자 아버지인 리하이도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¹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행 여건과 아들 레이먼

과 레뮤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리하이는 그의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평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이 그들의 선택의지로 주님께 불순종하자, 리하이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슬픔으로 무거워졌”²습니다. 그가 죽기 전,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을 모아 그들을 축복하고 권고했습니다.³ 그의 반항적인 아들들에게 회개와 충실함에 대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깨어나라, 나의 아들들아, …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시슬을 떨쳐 버리[라].”⁴ 그리고 그의 의로운 아들 야곱에게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가지 교훈을 남긴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화로운 모든 복음의 원리 중, 리하이는 그의 아들들에게 구원의 계획과 선택의지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⁵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성스러운 가르침은 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하는지 보기 위해”⁶ 이곳 지상 생활에서 우리를 증명할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리니], …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⁷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 나는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⁸ “그리고 그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습니다.”⁹ 진실로, “천군의 삼분의 일”¹⁰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데 그들의 선택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상에 와서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발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선택의지를 사용했던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 오는 기회를 가지게 된 … [것에 대한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충실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¹¹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 있으며, 선택의지를 사용할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¹²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반됨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리하이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의 종말에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¹³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러한 유혹을 경험한 하나님의 첫 자녀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거짓의 아버지”¹⁴인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취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¹⁵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한 “자녀를 낳았나니, … 곧 온 세상의 가족이”¹⁶였으며 지상에서의 시간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시험의 상태”¹⁷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리하이는 야곱에게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¹⁸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유혹과 죄에 굴복할 때뿐입니다. 또한 굴복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과 먼 지역으로 함께 동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광신자들에 의해 박해당했던 사람들의 매장지인 지하 묘지를 비롯하여 그 지역의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둡고 좁은 계단에서 나오면서, 김볼 회장님은 제게 있을 수 없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제 코트 자락을 당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구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행하는 일들은 항상 나의 마음을 괴롭혔다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로버트, 자네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적은 결코 기쁨을 느낄 수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김볼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에 기록된 대로 지상의 모든 주민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백성에게 화, 화, 화가 있다.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온 땅의 주민들에게 화 있다. 이는 내 백성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하여 악마가 웃으며 그의 사자들이 기뻐함이니.”¹⁹ 우리의 죄는 악마를 웃게 하고, 우리의 슬픔은 그에게 왜곡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악마가 웃더라도,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나한테 그 일을 하게 했다.” 라고 하는 오래된 속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

히 말씀드립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매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²⁰ 우리가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그를 향해 갈지 우리의 구주를 향해 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떠나가라고 말하면 떠나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때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의 유혹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지가 주어지고, 신권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이 주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행복과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생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그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쇠막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생활**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길에 서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남아 있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간중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항상 그 좁은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지를 보존하고 되찾는데 있어 구주의 역할을 이해했던 리하이가 야곱에게,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 이유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²¹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고대와 마찬가지로, 악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행함으로써 행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속삭여 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피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땅에서 떠나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리하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도망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악으로부터 피하라는 속삭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인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 삶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둥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이러한 속삭임이 올 때 아마도 우리를 즉시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속의 느낌으로 올 것이며, 속삭임처럼 부드럽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속삭임에 따를 때, 우리는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속삭임을 무시할 때, 영의 빛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지는 제한되거나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또한 행할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낮에 암흑 속을 걷”²²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길에서 헤매다 길을 잃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리하이이는 그의 반항적인 아들들에게, 죄의 사슬에 얼마나 빨리 결박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²³ 예를 들어, 우리가 빛을 많이 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미래의 피치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저축할 선택의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지, 또는 무엇을 할지조차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의지가 극도로 제한되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영육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인 구주의 빛 안에서 걸어야만 하며, 순종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우리의 옳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지, 곧 우리가 다시 행사하기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의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특히 중독의 짙은 어두움에 휩싸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파괴적이며 중독적인 행동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블랙홀에 빠져 다시는 영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주 공

간 속의 블랙홀에서처럼, 빛이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전세에서 매우 용감하게 행사했던 바로 그 선택의지, 즉 여러분이 적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그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선택의지임을 간증드립니다.

그 선택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행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신앙과 순종으로 행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오늘 내리기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선택을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울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 즉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의 제단 위에 두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 속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일을 여러 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모임, 자신의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로 선택하십시오. 영의 영향력을 느낄 때, 여러분은 깨끗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빛은 밝혀지고 있으며 그 빛이 비추는 곳에는 악의 어두움이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침례 성약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성약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선택하십시오.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성약들을 새로이 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성전에 참석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새로이 하며, 모든 구원의 의식과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용서를 받아들인 다음 여러분 자신

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그분은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²⁴ 않을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올바른 길에 서서 “자유로이 선택하게” 된 후에는,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한 수치스러운 감정들을 버리기로 선택하십시오. 과거에 대해 낙담하기를 거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자기처럼 비참하게”²⁵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바람보다 여러분의 소망이 더 강해지게 하십시오.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지상 생활 및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기회와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의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시험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을 고양시키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불의한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온전한 선택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유혹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정과 사랑을 통해 그들이 순종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리하이가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선택의지의 축복에 대해 간증한 것처럼, 저 또한 전 세계에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제 가족에게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의지는 천국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고 시험받기 위해 지상 생활을 하도록 선택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선택의지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명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지를 시험받도록 합니다. 선택의지는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밖으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촉매제입니다. 선택의지는 우리가 충실하고 순종적인 선

택을 하여 스스로를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고양시키고 강화되도록 해 줍니다. 의롭게 사용하는 선택의지는 빛으로 어두움을 없애도록 하며 우리가 이 생 동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며,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까지도 바라보게 하여 과거의 일에 머무르지 않게 해줍니다.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선택의지에 따르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려는 소망을 지닌 모든 분들께 선택의지는 우리의 신앙과 순종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선택의지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를 구하여 얻도록 하고, 간구하여 받도록 하며, 영적인 빛과 궁극의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문을 두드리게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 곧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특별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을 따르겠다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면전에 받아들여질 그 완전한 날²⁶까지 그분의 빛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2:2.
2. 니파이후서 1:17.
3. 니파이후서 1:14 참조.
4. 니파이후서 1:23.
5. 니파이후서 2:5.
6. 아브라함서 3:24~25 참조.
7. 모세서 4:1.
8. 모세서 4:3.
9. 아브라함서 3:28.
10. 교리와 성약 29:36.
11. 조셉 필딩 스미스, *Man, His Origin and Destiny*(1965년), 277쪽.
12. 니파이후서 2:11.
13. 니파이후서 2:15~16.
14. 니파이후서 2:18.
15. 니파이후서 2:19.
16. 니파이후서 2:20.
17. 니파이후서 2:21.
18. 니파이후서 2:24~25.
19. 제3니파이 9:2.
20. 창세기 4:7, 모세서 5:23 참조.
21. 니파이후서 2:26.
22. 교리와 성약 95:6.
23. 니파이후서 1:13 참조.
24. 교리와 성약 58:42.
25. 니파이후서 2:27.
26. 교리와 성약 50:24 참조.

고운 마음과 도움의 손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애정 어린 마음과 도움의 손길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 저녁 버튼 자매와 저는 중국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디지털로 나온 점괘 과자에는 “당신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곧 해소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던 가난한 어느 형제의 집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선지자는 잠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5달러 지폐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 대해 5달러만큼의 동정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얼

마만큼의 동정심을 느끼십니까?’¹ 선지자의 즉각적인 대응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가운데 수백만명이 자신의 재산과 애정 어린 마음, 그리고 도움의 손길로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응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의 기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²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³고 부탁하십니다.

저는 애정 어린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지닌 후기 성도들과 우리의 종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짐을 서로 지”는⁴ 헌신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참화를 보고 희망이 없는 희생자들을 방문하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연은 예외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양갈음과 우월성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2004년 12월 말, 인도네시아의 먼 해안에서 발생한 끔찍한 지진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격렬한 쓰나미를 일으켰으며 뒤에 남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부부 선교사들의 관리 하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의 병원과 재난 구조에 첫 번째로 나선 사람들 및 지역 사회에 긴급한 원조가 주어졌으며, 즉각적인 도움이 동원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몇몇 교회 회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수마트라섬 북부의 아체 지역으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지방부 청년 회장인 버사 수란토 자매와 그녀의 동료는 생명을 구하고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데 필요한 물품을 실은 트럭들을 운전했습니다.

버사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나누어 줄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쌀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몇 마리가 전부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우리의 트럭들이 도착하면 이슬람 사원에 있던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기부가 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긴급한 필요 사항이 충족되자, 좀더 장기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천 채를 훨씬 웃도는 영구 주택 건설을 돕고 병원과 학교를 재건하는 계획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어선과 그물을 얻기 위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다시금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직조기와 재봉틀도 배급되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와 인도에서는 백 년 만에 그 지역을 강타한 가장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빼앗겼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 지역의 겨울은 혹독해서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 없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나흘 후, 이슬람교의 구호 단체가 대형 화물 수송기를 제공했고, 이는 감독의 창고에서 나온 담요, 텐트, 위생용품, 의료용품, 침낭, 코트, 방수 시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75,000명 이상의 난민을 위한 추가 물품과 겨울용 텐트가 들어 있는 대규모 컨테이너들이 공중 및 육지와 바다에서 선적되었습니다.



홍수가 중앙 아메리카를 휩쓸었을 때, 피난민들을 위한 임시 피난처로 집회소가 개방되었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는 교회 회원들이 물품을 등에 묶고 침수된 개울과 위험한 지대를 걸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원조 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단에서는 내란이 일어난 후,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과 마을을 두고 안전을 찾아 피난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가족들과 재회하고 건강을 되찾고자 적지를 지나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끓주리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목숨을 구하

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비타민이 강화된 애트밋죽이 제공되었습니다. 의료용품과 수천 개의 위생용품, 신생아용품 또한 제공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유명한 자선 단체들과 협력하여 홍역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예방 접종을 도왔습니다. 이천 명의 충실한 아프리카 교회 회원들은 광고를 하고 어린이들을 모으고 주사를 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자진해서 봉사했습니다.

2005년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 서부에서의 허리케인은 가장 타격이 크고 파괴적인 것으로



우루과이에서 두 선교사가 연차 대회 방송을 보기 위해 도착한 한 자매를 돕고 있다.

기록되었습니다. 계속된 폭풍우는 온두라스에서 플로리다까지 집과 사업체를 강타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의 지휘 하에 수천 명의 자원자들이 허리케인이 닥칠 때마다 그곳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을 제공했습니다. 위생용품과 청소용품, 음식과 물, 주방용품, 침대 시트, 그리고 그 외 물품들이 집들을 청소하고 임시 주거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카를 형제는 자신의 회사에서 장비를 실은 호송 트럭들을 끌고 미시시피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이 아닌 많은 직원들이 주말마다 폭풍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그와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가는 길에 통신을 위해 무전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대체사 그룹 지도자는 그의 트럭을 운전하며 그들과 함께 가면서 운전을 너무 빨리 한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호송 트럭의 속도를 늦추려고 무전기에 대고 “여러분, 지금 시속 80마일 (약 128 킬로미터)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한 명이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이런 큰 트럭으로는 그 정도로밖에 못 갑니다. 더 이상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수백 통의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미시시피주에 사는 간호사인 한 여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대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신 걸까요?

보호용 헬멧을 쓰고 부츠를 신은 사람들이 온갖 모양과 크기의 동력 사슬톱을 들고 잔해 더미에서 나타나자 곧바로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저를 위해 개인적으로 치러졌던 가장 위대한 희생 중의 하나였습니다.”

수천 장의 아름다운 담요를 만들어낸 민첩한 손놀림에 대해 감사드리고, 손놀림이 그다지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절실히 필요했던 누비 이불을 만들어 주신, 좀 더 연세 드신 자매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한 92세의 증조할머니는 수백 장의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녀의 경우, 만든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수고품에 감탄하자,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담요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니?” 루이지애나의 한 젊은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으며, 제 자녀들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린이 옷 몇 벌과 기저귀, 물수건, 그리고 두 장의 아름다운 아기 담요를 받았습니다. 한 장은 앞면에 발자국과 손자국들이 찍혀 있고 뒷면이 노란색 천으로 되어 있는 담요이며, 다른 것은 얼룩말들이 있는 황갈색 담요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살 난 제 아이는 얼룩말이 있는 담요를 너무 좋아하고, 7개월 된 아

이는 물론 아직 말을 못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회원들의 관대함에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있었던 진흙 사태에 대해 그 지역 성도들이 모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생 도구 및 식료품 상자를 준비해 이불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도움이 주어지며 일과 자립의 복지 원리가 지지되고 가르쳐집니다. 2005년 동안 여러 마을이 새 우물을 통해 깨끗한 물을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수리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역 자원 봉사자들과 헌신적인 부부 선교사들이 제공한 훈련과 장비를 통해 가족들은 집에서 재배한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식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대의 휠체어가 보급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의료진들이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세계 곳곳에서 친절할 카운슬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평 있고 신임 받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일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이해와 존경의 다리가 구축되었습니다.

전 주미 아프리카 대사였던 심비 부바코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업은 교회 회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문화와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 때문에 더 인상적인데, 이는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이 위대한 인도주의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행한 일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 박해받고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굶주리고 공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닐 수도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간애를 널리 베풀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⁵

현대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노력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불타는 놀라운 자애의 표시입니다. 이 비이გი적인 봉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은 큼니다. 다음과 같은 구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⁶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세계의 마을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천분의 일도 안됩니다. 제가 여행하는 곳곳에서 깊은 감사의 표현을 받습니다. 이 사업을 인도하도록 임무를 지명하시는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교회 복지 집행 위원회를 대신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영혼에서 불타는 성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불가능합니다. 감사한다는 단순한 말이 진부한 듯 여겨집니다. 애정 어린 마음과 도움의 손길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거운 마음과 처진 팔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할 때 주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Andrew Workman, in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1892년 10월 15일, 641쪽.
2. 모사이사서 18:8~9.
3. 교리와 성약 81:5.
4. 갈라디아서 6:2.
5. “때가 찬 시대를 살아가며,”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쪽.
6. 누가복음 6:38.

쏟아지는 축복

줄리 비 벅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모든 충실한 회원은 신권의 의식을 통해 그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축복을 동등하게 누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던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¹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신권을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쏟아져 내린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권의 권세를 통해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신권은 우리가 누구이며 과거에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와 복잡하게 얽여 있습니다.²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각자에게는 고유한 책임과 역할이 있으며, 신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와 은사, 그리고 축복을 부여 받습니다.

지난 가을 제 만손녀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성신의 은사에

이어 손녀의 가장 어린 여동생의 유아 축복과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 또 한 명의 손녀가 유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복된 하나님의 신권을 통해 이 어린 여자아이가 누리는 특별한 축복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자 손녀들이 신권에 대해 자신들은 관망자인 제3자가 아니며 결코 그런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녀에게 똑같이 주어지는”³ 신권의 축복은 이들 삶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명 한명 모두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축복을 받고 신권의 권능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은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들은 신권의 의식을 통해 동등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받는 의식⁴ 그 또는 그녀가 아기일 때 집행되며, 아이는 이름과 축복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침례를 받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위한 침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위한 동일한 침례 의식이 동일한 침례탕에서 집행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확인과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그들에게는 똑같은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그들의 충실함을 통해 이 거룩한 힘에서 오는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주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일회장단(오른쪽 아래), 십이사도 정원회의 세 회원(왼쪽 아래), 감리 감독단(오른쪽 가운데),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이 연차 대회의 한 모임에서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분의 속죄의 권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성찬식에서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프거나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신권 축복을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같은 나이의 청남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혈통과 잠재력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강력하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청남과 청년들이 “그들 조상들에게 주어진 신권의 축복들 중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위해”⁵ 성전에 가도록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몇 달 전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제 조카딸은, “해냈어요!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 대해 평생 배웠는데, 드디어 해냈어요!”라고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모든 남자와 여자는 순종과 희생의 성약을 맺습니다. 각 개인은 높은 곳에서 온 권능을 부여 받습니다.⁶

선교사로 부름 받는 모든 장로와 자매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성임 받으며,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부여 받습니다.

성전 결혼 성약을 통해 온전한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충실하다면 그 성약의 축복을 동등하게 함께 누립니다.⁷ 주님께서서는 이 생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성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권능과 승영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⁸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성전에 가서 축복을 받고 결혼 성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신권의 반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⁹

젊은 아버지가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는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저는 신권 축복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름다운 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방의 벽마다 적어도 한 점의 가족 사진이나 성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권능을 부여 받았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충실한 회원은 신권의 의식을 통해 그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축복을 동등하게 누립니다.

성신의 권능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영적인 은사의 축복도 동등하게 누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¹⁰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¹¹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지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보라,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

나라.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또 다른 이에게는 심히 큰 신앙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 [주시니라].”¹²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어린 시절 알았던 포르투갈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두 언어로 이야기할 때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고 그분의 도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갓 배우기 시작한 타국어로 강력한 간증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저는 지혜의 은사 또는 지식을 의롭게 사용하는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¹³

저는 어렸을 때 심하게 아픈 적이 많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분이 가진 신권으로 저를 축복하기에 항상 합당하셨으며,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어머니가 가진 특별한 은사들 또한 제가 낫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저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제가 낫도록 도울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알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어머니의 강한 신앙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하는 부모님을 둔 것은 제게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예언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자들에게 그들이 위안과 위로를 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계시해 주시며, 일상의 책임에 있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¹⁴

신권의 축복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한 어떤 부름에든 성임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분과 관련된 권세와 책임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¹⁵

영적인 은사는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많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얽여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 인해 이러한 은사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¹⁶

신권의 축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¹⁷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회원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떤 집들은 참으로 기본적인 요소만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집 근처에 물을 구할 곳도 없는데 나는 왜 전기가 들어오고 배관 시설이 된 집에 사는 축복을 받았을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들을 덜 사랑하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성전에서 그런 검소한 집에 사는 자매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시간 동안 그녀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성전 의식을 마쳤을 때, 저는 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권과 기회에 있어서, 우리는 동등했습니다. 저는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으며,¹⁸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있었고, 그녀도 그러했습니다. 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그녀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성신을 받았으며, 그녀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성전 의식을 받았고, 그녀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 둘이 그 순간에 이 세상을 함께 떠났다면, 우리는 동등한 축복과 잠재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신권의 축복은 만인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축복은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축복은 기혼자와 미혼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이 많은 자와 문맹자, 유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평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신권 의식과 영적인 은사를 통해 동등한 동반자 관계, 은사, 축복 및 잠재력을 부여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얽여 있는 신권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생의 업적을 성취하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능과 모든 성약이 우리의 머리 위에 부여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교리와 성약 110:10.
2. 교리와 성약 88:36~45 참조; 아브라함서 3장.
3. 델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6쪽.
4. 가족 지도서(2001년), 18쪽 참조.
5. 에즈라 테프트 벤슨, “What I Hope You Will Teach Your Children about the Temple”, *Tambuli*, 1986년 4~5월, 6쪽.
6. 교리와 성약 95:8 참조.
7. 교리와 성약 131:1~2 참조.
8. 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9. *Tambuli*, 1986년 4~5월, 6쪽.
10. 교리와 성약 46:26 참조.
11. 교리와 성약 46:12 참조.
12. 모로나이서 10:8~11.
13. 교리와 성약 46:10~26.
14. *Deseret News*, 1862년 7월 30일, 33쪽.
15. 보이드 케이 패커, “What Every Elder Should Know—and Every Sister as Well: A Primer on Principles of Priesthood Government”, *Tambuli*, 1994년 11월, 21쪽; *Ensign*, 1993년 2월호, 7쪽.
16. 모로나이서 10:7~17 참조.
17. 교리와 성약 38:16.
18. 엘머서 9:27.

어린아이와 같이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도덕적 위협이 닥쳐올 때 안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본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하 나님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¹라고 썼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는 눈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 위험은 사악한 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 뗏어야 하는 성약을 지키는 것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와, 나아가 가정, 정원회, 공과반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앞으로 닥칠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장소를 주신다는 약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묘사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전에서 그곳에 대해 읽어 보았습니다. 그곳은 살아 계신 선지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묘사되었습니다. 유희의 폭풍에 맞서 아들들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한 사랑 많은 아버지는 그곳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²

그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세계 있어 그 방법을 찾는 데 물몬경에 기록된 베냐민 왕의 마지막 설교가 나와 있는 부분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최근에 그 부분을 다시 읽었고 한 번 이상은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의 권능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전쟁의 공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하고 정복하려는 루시퍼의 가공할 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백성들이 안전한 반석 위에 서도록 권유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영적인 재앙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이 실재한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안전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시했을 때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험들을 명확히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경고를 듣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슬픔이 닥칠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직설적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속삭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가두려는 목적을 가진 사탄의 사악한 메시지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라, 그 영에게 즐겨 순종하는 자 위에 화가 선포되어 있음이니, 이는 만일 그가 그에게 순종하기를 즐겨하여 자기 죄 안에 머물다가 죽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저주를 마시는 것임이라.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의 이는 바에 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영원한 형벌을 자기의 삶으로 받음이라.

“그러므로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그의 불멸의 영혼을 일깨워 그 자신의 죄과를 통렬히 느끼게 하니, 이는 실로 그로 하여금 주의 면전에서 뒷걸음질치게 하며 실로 그의 가슴을 죄책감과 고통과 고뇌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으니 그 불꽃이 세세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베냐민 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 모든 너희 늙은 자들 그리고 또한 너희 젊은 자들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너희 어린아이들아, 이는 내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말하였음이니, 나는 너희가 깨어 범

법에 빠진 자들의 무서운 처지를 기억하기를 비노라.”³

제게 있어 그 경고의 위력은 우리 각자가 심판받기 위해 이 생이 끝난 후 구주 앞에 서게 될 때를 마음속에 그려보게 합니다. 베냐민 왕이 저에게 주님의 면전에서 뒷걸음질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심판의 그날에 영화로우시며 부활하신 구주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뒷걸음질치기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오너라.”⁴

베냐민 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 생에서 찾음으로써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확실한 기초 위에 설 수 있게 함은 물론 유혹의 폭풍이 부는 동안에도 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냐민 왕은 주님 자신과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아름다운 비유로 그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이—어린이와 같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여 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처럼 되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때에 따라 자녀들이 어린이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에 지니도록 권고할 때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⁵

그러나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던 베냐민 왕은,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 유지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것은 아버지께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한 후 그것을 해내신 구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위험이 닥쳐올 때 안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본성은 어린이와 같이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데 대해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고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할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⁶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에 자신을 맡기고, 속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실히 그리고 오랫동안 계명을 지키

기 위해 성령의 지시에 응할 때 구주이신 그 반석 위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이 어린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확실한 기초 위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베냐민 왕으로부터 그 안전한 장소로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수단이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유혹에 맞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적이며 더 큰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해 줄 것이며,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반석 위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베냐민 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될 선택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매우 명확히 주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은 제가 아침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밤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편해 보이는지 알고 있었으며, 제가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저에게 참으로 커 보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동트기 직전, 어떤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였던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어린아이같은 느낌

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정신은 매우 고요해졌습니다. 그 내면의 잠잠함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소 놀랍게도, 저는 다음과 같이 소리 내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것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저는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내면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떠올랐으며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저는 결과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그분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으로 인도할 길을 알게 된 어린아이라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과 셀 수 없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성신을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묘사하는 것이 진실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시적이지만 시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으로 저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에만, 저는 마음과 정신으로 성신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더 자주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쳤으며,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순간에 꼭 와야 합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을 키우며 성신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⁷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신앙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이러한 말로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겐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⁸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만 신앙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봉사하려는 우리의 제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봉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서 성신의 영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성신의 주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께 봉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할 때, 성신이 오셔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구주께 계속 봉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의 부름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부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변화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심과 노력과 신앙이 요구될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최소의 요구 사항을 몇 가지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우리의 죄 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⁹ 그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다툼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¹⁰ 속죄를 통해 오는 우리 내면의 강력한 변화는 우리가 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감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지어다. 그러하도다.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어다.”¹¹

죄로 인해 은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유혹에 맞서는 데 필요한 단호한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유혹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한 후에, 그는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자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게 됩니다. 베냐민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있나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 주의 오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



여 거하되, 실로 너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즉 이제 오 사람이아,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¹²

성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되는 최초의 생각들을 인식하고 거부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유혹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인식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는 회개를 위한 겸손과 신앙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마음 속으로 “하지만 내에게는 유혹이 너무나 커.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견디어 왔어. 나에게 계명은 너무 지키기 힘들고 표준은 너무 높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유혹받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¹³

저는 구주께서 살아계시고 확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가 어린이

이와 같이 순수하고 강하게 되도록 성결케 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신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물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시기에 산다고 해도 약속된 영생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후서 3:1.
2. 힐라멘서 5:12.
3. 모사이야서 2:33, 38, 40.
4. 마태복음 25:21 참조.
5. 고린도전서 13:11.
6. 모사이야서 3:19.
7. 모사이야서 3:17.
8. 모사이야서 5:13.
9. 모사이야서 4:26 참조.
10. 모사이야서 2:32 참조.
11. 교리와 성약 20:33~34.
12. 모사이야서 4:29~30.
13. 교리와 성약 62:1 참조.

신앙에 충실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곧은 길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곳에서 결심합니다.



저는 오래 전 임무 지명을 받고 아름다운 섬나라 통가에 갔을 때, 교사들이 신앙이라는 공통의 끈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대한 훈련과 인생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교회 학교인 리아호나 고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교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학생들이 원주민 교사에게 열중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교과서는 책상 위에 덮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교사는 등근 돌과 커다란 조가비로 만든 이상한 모양의 낚시 미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카페케라는 문어잡이용 낚시미끼였습니다. 통가에서 문어고기는 별미입니다.

교사는 통가의 어부들이 한 손으로 카누를 저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마카페케를 카누 옆으로 드리우고 암초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간

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어는 그것이 바라던 먹이라 착각하고 바위로 된 집에서 튀어나와 미끼를 붙잡습니다. 문어가 어찌나 꼭 붙잡는지, 또한 귀중한 먹이를 놓지 않으려는 본능이 어찌나 확고한지, 어부들은 문어를 카누 안으로 훌쩍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후 악마, 즉 사탄이 소위 마카페케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의 운명을 손에 넣는다는 사실을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듣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마가 우리 앞에 늘어놓은 마카페케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는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다음 뒷으로 잡으려 합니다. 일단 붙잡히면 그 마카페케로부터 벗어나기란 너무 힘들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 그것들을 피하려는 결심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부도덕이라는 마카페케는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주위의 거의 모든 곳에서 한때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지금은 괜찮다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성구를 떠올려 봅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 대신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¹ 그런 것이 부도덕이라는 마카페케입니다. 물론경은 순결과 미덕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유혹이 닥칠 때 사도 바울의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²

다음으로 악마는 또한 여러분 앞에 외설물이라는 마카페케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외설물을 보는 것이 정말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포프의 대표작, “인간론”에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악덕은 너무도 추악한 모습의 괴물
보기만 해도 혐오하게 된다네
하지만 너무 자주 보면 그 모습에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참다가 동정하게 되고 결국은
받아들이네.³

일부 출판 및 인쇄업자들은 매일 수백만 개의 외설물을 인쇄하는 데 그들의 인쇄기를 악용합니다. 분명히 보고 또다시 보게 될 외설물을 제작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설물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인터넷으로, 누구라도 컴퓨터를 켜고 손가락 끝으로 클릭하여 외설물이 나오는 수많은 사이트를 즉시 접할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 일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저속하고 더럽습니다. 이것은 유혹적이며 습관을 형성하여, [여러분]을 영락없이 파멸로 잡아 끌어 내립니다. 이것은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고 그 희생자들은 빈곤으로 이끄는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⁴ 외설물을 조장하는 영화 제작자, 텔레비전 편성자, 또는 연예인들 또한 오염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자제력은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소위 현실주의를 추구한 결과 우리는 오늘날 이런 오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설물과 유사한 것은 무엇이든 피하십시오. 그것은 정신을 무디게 하고 양심을 갇아먹



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⁵ 외설물이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술을 포함하여 약물이라는 마카페케가 있습니다. 일단 잡히게 되면 이 마카페케는 버리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약물과 술은 사고를 흐리게 하고, 억제력을 없애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꿈을 깨뜨리고, 삶을 단축시킵니다. 그것들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고 또 공격당하기 쉬운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에 의도적으로 놓여집니다. 우리 각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살피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우리의 육신을 일부러 희생시키거나 손상시키고서도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⁶ 부디 우리 육신, 우리 성전을 적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안정을 파괴시키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됩시다.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지막 마카페케는 우리의 자존심을 몽개고 인간 관계를 손상시키며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부채라는 마카페케입니다. 탁월함과 명성을 부여해 주는 것들을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경향입니다. 우리는 빌리는 것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매우 인기가 있는 데, 이를 통해 거의 집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이 또 다른 장기 주택 금융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입 범위를

넘어 생활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昨天的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사고방식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필수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필수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부채를 진 후에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프거나 무력하게 되고, 회사가 망하거나 구조 조정으로 실직할 수도 있으며, 자연 재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큰 금액의 부채에 대한 상황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채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위협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됩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할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자신이 버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불 능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면 불필요



한 부채를 갚을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할 때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네가 ... 계약한 빛을 갚으라.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⁷

물론 우리를 의의 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악마가 우리 앞에 늘어놓은 수많은 다른 마카페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생각하고 추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가 선택할 길과 여행해 나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회로와 함정과 올가미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영리하게 위장한 그 마카페케들은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을 잃게 하려고 유혹하

면서 교묘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권유를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전하는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파멸과 죽음을 피하고 행복과 영원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악마의 꾀임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 속박되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그런 마카페케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권력을 가졌던 한 성직자, 울지 추기경을 떠올려 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려한 펜은 울지 추기경이 올라간 장엄한 지위와 권력의 정점을 묘사했습니다. 같은 펜으로 헛된 야망에 의해, 편의에 의해, 탁월함과 명성에 대한 함성에 의해 원리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얻은 후 다시 잃게 된 사람의 고통에 찬 탄식, 비극적인 몰락이 왔습니다.

충실한 부하인 크롬웰에게 울지 추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크롬웰, 크롬웰!

내가 왕을 섬겼던 열정의 절반만으로도 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지금 나를 적들 앞에 무방비로 버려두지는 않으셨을 것을.⁹

울지 추기경을 안전으로 이끌 수도 있었던 그 영감 받은 말은 권력과 탁월함에 대한 추구, 부와 직책에 대한 추구에 의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이전의 다른 사람들과 그 뒤에 올 더 많은 사람들처럼, 울지 추기경은 무너졌습니다.

그보다 앞선 시대에, 사악한 왕에 의해 하나님의 종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제의된 보상, 즉 왕의 옷과 금 목걸이에 대해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

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¹⁰

후대 왕인 다리오 또한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겨, 그를 가장 높은 직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군중들의 시기, 왕자들의 질시, 야망에 찬 사람들의 음모가 뒤따랐습니다.

계략과 야심을 통해 다리오 왕은 왕을 제외한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기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에서 다니엘은 지상의 왕에게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 곧 그의 하나님에게서 인도를 구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에 임했던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의 성경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 다니엘이 왕에게 ...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 왕이 심히 기뻐서 ...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¹¹

정말 긴박한 시기에, 참되고 충실하게 남겠다는 다니엘의 각오가 신성한 보호와 안전한 성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역사의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새로운 배역이 인생의 무대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불길하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현대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둘러싸인 우리가 현명하고 적절한 진로를 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확실한 방향 감각을 위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지한 간청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볼 때, 구스타프 워커와 마가렛 워커의 이름이 마음 속에 선뜻 떠오릅니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



습니다. 저는 1959년에 캐나다 선교부를 갈리할 때 워커 부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국인 독일에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으로 이민왔습니다.

워커 형제는 이발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와 워커 자매는 항상 십 분의 일 이상을 십일조로 냈습니다. 지부 회장으로서 워커 형제는 선교사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는 한때 여러 달 동안 유일한 현금자였습니다. 그 도시에 선교사들이 있었을 때 워커 부부는 그들을 먹이고 보살폈으며, 선교사들은 그 부부의 일과 복지를 위해 무언가 실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구스타프 워커와 마가렛 워커의 집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축복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교회 방문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했습니다. 학식있고 세련된 남성과 여성들이 겸손하고 확신없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커 부부의 외모는 평범했고 그들의 영어는 불완전하여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으며 집은 수수했습니다. 자동차나 텔레비전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그 어떤 일도 그들은 행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영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1982년 3월에 워커 형제와 자매는 워싱턴 D.C. 성전의 전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1983년 6월 29일, 워커 형제와 자매가 그 부름에서 여전히 봉사하고 있을 때, 워커 형제는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평화롭게 이 필멸의 세상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¹²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생, 즉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생활하는 은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 인도하는 곧은 길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곳에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바꾸거나 고쳐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친숙한 다음 찬송가의 가사처럼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¹³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15:20; 이사야 5:20 또한 참조.
2. 고린도전서 10:13.
3. Epistle 2, lines 217~220; in John Bartlett, *Familiar Quotations*, 제14판.(1968년), 409쪽.
4.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 62쪽.
5. 교리와 성약 50:23.
6. 고린도전서 3:16, 17.
7. 교리와 성약 19:35.
8. 누가복음 18:22.
9. *헨리 8세*, 3막 3장, 454~457행.
10. 다니엘 5:17.
11. 다니엘 6:19~23.
12. 사무엘상 2:30 참조.
13.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작사 및 작곡: Evan Stephens.

토요일 오후 모임
2006년 4월 1일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의 총 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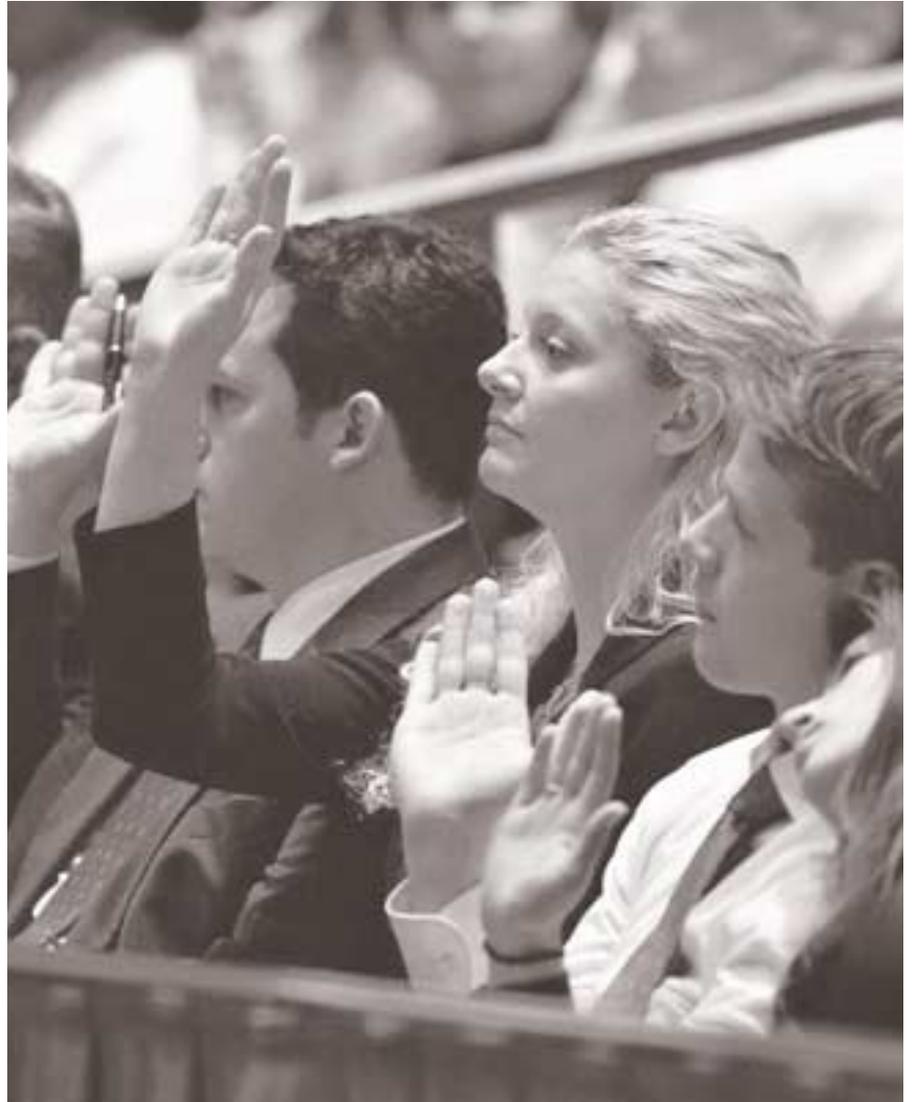
우리는 제일회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님들을 지역 칠십인에서 2006년 5월 1일자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살바도르 아구이레, 호세 시 알레슨, 다니엘 피 알바레스,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세인 엠 보웬, 예이트르 엠 시저, 로버트 엠 카우언, 키스 알 에드워즈, 스탠리 지 엘리스, 프란즈 알 가그, 다니엘 엘 존슨, 조엘 에이치



맥키논, 마커스 비 내쉬, 아르만도 에이 시에라, 제프리 시 스윈턴, 리머스 지 빌라레트.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키스 비 힐빅,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세인 엠 보웬, 다니엘 엘 존슨, 마커스 비 내쉬, 안토니 디 퍼킨스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하고, 크레이그 에이 카든, 돈 알 클라크, 키스 알 에드워즈, 스탠리 지 엘리스, 래리 더블류 기븐스 장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세 엘 알론소, 블라디미로 제이 캄페로, 후안 에이 에처게레이, 에르난 아이 에레라, 데이비드 제이 호아레, 시저 에이치 후커, 하비에 이바녜스, 다니엘 엠 존스, 스티븐 시커, 조니 엘 코치, 다니엘 에이 모레노, 켄트 에이치 머독, 제이 미셸 파야, 스티븐 이 포우시, 카를로스 에프 리바스, 후안 엠 로드리게스, 카를로스 빌라노바.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지역 칠십인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힝클리 회장님,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2005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존 경하는 제일회장단께: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

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 및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승인합니다. 평의회 승인 후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맞게 자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의 자산 보호에 대한 관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리고 그 외 자격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집행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05년 동안의 현금 영수, 지출 및 교회 자산이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적합한 회계 업무와 승인된 예산 그리고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관리 책임자 ■



2005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제일회장단 서기

형 제 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다음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단위 조직 수

스테이크2,701
선교부341

지방부643
와드 및 지부27,087

교회 회원

회원 총수12,560,869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93,150
침례 받은 개종자243,108

선교사

전임 선교사52,060

성전

2005년 동안 헌납된 성전3
(텍사스 샌안토니오, 나이지리아 아바,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2005년 동안 재헌납된 성전1
(사모아 아피아)
현재 운영 중인 성전 총수122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명에 총관리 역원 렉스 시 리브 장로, 전 칠십인의 일원인 에프 아서 케이 장로, 전 칠십인의 일원인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미망인 어밀리어 스미스 맥콩키 자매, 칠십인의 일원인 셸리 디 크리스텐슨 장로의 부인 제니엘 존슨 크리스텐슨 자매. ■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으로 인해,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엘마는 선지자였고, 아들 코리엔톤은 선교사였습니다.

엘마의 세 아들, 즉 장남 힐라맨, 시블론, 그리고 막내 코리엔톤은 조람인들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엘마는 아들 코리엔톤이 선교사의 표준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코리엔톤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리고 창녀 이사벨을 따라 시론 땅으로 갔습니다.(엘마서 39:3 참조).

“그것이 네게 변명이 될 수 없었느니라. 너

는 내게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여야 했느니라.”(엘마서 39:4)

엘마는 아들에게 악마가 그를 이끌어 갔다고 말했습니다.(엘마서 39:11 참조) 음란한 행위는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가증한 일”(엘마서 39:5)입니다.

“나는 네가 것처럼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엘마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네 범죄를 되새기며, 네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보라, 네가 하나님께는 네 범죄를 숨길 수 없나니.”(엘마서 39:7~8)

그는 코리엔톤에게 형들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명했습니다.(엘마서 39:10 참조)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그가 큰 죄악을 저지른 탓에 구도자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이제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자녀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그들이 많은 백성의 마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까 하노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 죄악을 삼가라.”(엘마서

39:11~12)

이러한 엄한 꾸짖음 뒤에, 사랑이 많은 아버지 엘마는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그것은 같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엘마서 31:5)으므로 코리엔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엘마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는 네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세상의 죄를 제하시기 위하여 정녕 오실 이는 그이시니, 참으로 그가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엘마서 39:15)

코리엔톤은 어찌하여 그들이 먼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미리 알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의 영혼이 그가 오실 때의 영혼만큼이나 하나님께 귀하지 아니하냐?”(엘마서 39:17)

코리엔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 염려하고” 있었습니다.(엘마서 40:1)

엘마는 이전에 하나님께 부활에 관해 여쭙었으며, 코리엔톤에게 첫째 부활과 다른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아올 때가 정해져 있느니라.”(엘마서 40:4)

코리엔톤은 “이 죽음의 때로부터 부활을 위해 정해진 때까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엘마서 40:7)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엘마서 40:11) “의로운 자들”은 “행복의 상태로 영접”되고(엘마서 40:12), 악한 자들은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립니다.(엘마서 40:13) 의로운 자들은 “낙원에서 ...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엘마서 40:14)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너희가 저 참담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엘마서 34:34)

엘마는 아들에게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이에는 공백이 있고, 영혼은 행복하거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죽은 자들이 나아와 영혼과 육신이 모두 재결합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이르리라”(엘마서 40:21)고 말했습니다.

“영혼, 즉 영은 육신에게로 회복되었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다.”

(엘마서 40:23) 그는 계속하여 “이것이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그 회복”(엘마서 40:24)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마는 “어떤 이들이 경전을 왜곡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길에서 멀리 벗어났음이니라”(엘마서 41:1)고 말했습니다.

엘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 이제 내 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바, 네 마음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이 얼마간 더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곧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다. 이는 죄인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려 애씀이니라.

“이제 보라, 내 아들이, 내가 이 일을 네게 설명하리라.”(엘마서 42:1~2)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제 이로써 너는 우리의 시조가 현재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음을 알게 되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좇아 복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느니라.”(엘마서 42:7)

“사람은 죽기로 정해졌고.”(엘마서 42:6)

그런 다음 엘마는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일 구속의 계획이 없다면, (이를 버린다면) 그들이 죽자마자 그들의 영혼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져 비참하게 되리



라.”(엘마서 42:11)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공의와 자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공의를 좇아 ... 사람들이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만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엘마서 42:13)

엘마는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자, 또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엘마서 42:15)

그는 코리엔톤에게 영원한 율법의 확고한 표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엘마서 42:17~25 참조)

그는 형벌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영혼의 생명과도 같이 영원한 형벌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이 형벌은 역시 영혼의 생명같이,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써 부가된 것이니라.”(엘마서 42:16)

엘마는 형벌의 고통과 회개의 기쁨을 몸소 겪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리엔톤의 조부인 자신의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역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꾀하였”습니다.(엘마서 36:6) 그는 천사에 의해 쓰러졌는데, 이는 벌을 자초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 때문

이었습니다.(모사이야서 27:14 참조)

엘마는 고뇌와 죄의식을 느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많은 죄와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나니, 참으로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이, 나의 고통같이 그처럼 격심하고 그처럼 쓰디 쓴 것은 있을 수 없으리라. 그뿐 아니라 다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이, 한편으로 나의 기쁨같이 그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또한 그 때로부터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 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고자 함이라.”(엘마서 36:17~21, 24)

엘마가 코리엔톤에게 묻기를, “너는 무엇으로 자비가 공의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엘마서 42:25)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자비와 공의가 모두 영원한 율법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신에 감동되어”(교리와 성약 121:43; 또한 엘마서 39:12 참조) 코리엔톤을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



세상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템플스퀘어에 있는 그리스도상에 잘 나타나 있다.

음의 기본 원리를 인내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친 후, 충만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해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네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러하여 그로 하여금 네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41~44)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기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함으로써, 네 죄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점이라도 네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자비와, 그의 오래 참으심이 네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고, 또 이로써 네가 티끌에까지 내려서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앨마서 42:30)

역시 엘마라는 이름을 가진 코리엔톤의 조부는 사악한 노아 왕을 섬긴 제사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아빈아다이가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듣고 개종하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사악한 궁정에서 도망쳐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모사이야서 17:1~4)

이제 엘마는 아버지처럼 아들 코리엔톤에게 회개하기를 타이르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엄히 꾸짖고 인내심으로 복음 교리를 가르친 후, 사랑이 많은 아버지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앨마서 42:29)

괴로움과 수치심 속에서 코리엔톤은 “티끌에까지 내려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앨마서 42:30)

코리엔톤의 아버지이자 그의 신권 지도자이기도 했던 엘마는 이제 코리엔톤의 회개에 만

족해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짊어진 크나큰 죄의 짐을 덜어주고 선교 임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이제 내 아들아, 너는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나니 … 네 길을 가서 진리와 진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네게 허락하기를 바라노라.”(앨마서 42:31)

코리엔톤은 다른 신권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의 형제들인 힐라맨과 시블론에게 돌아왔습니다. 20년 후 북방 땅에서, 그는 여전히 복음 안에서 충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앨마서 49:30; 63:10 참조)

우리가 살고 있는 참으로 사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어느 곳이나 외설물, 성별의 혼돈, 부도덕, 아동 학대, 마약 중독과 그 밖의 온갖 유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유혹에 빠져 한번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되어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거둬들여 자기의 영향력 아래 묶어둡니다.

사탄은 사기꾼이며 멀하게 하는 자이나, 그

의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악마의 천사들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혀 죄 가운데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득합니다.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 사람이 변화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8:11)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와 용서의 복음입니다.(니파이후서 1:13; 니파이후서 9:45; 야곱서 3:11; 엘마서 26:13~14; 모로나이서 7:17~19 참조)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10)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에서 발췌한,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이요 모형이자 본보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으로 인해,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물몬경 표제)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교리와 성약 18:13)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교리와 성약 1:31~32) ...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다음과 같은 경전의 말씀보다 더욱 감미롭고, 더 큰 위안과 희망을 주는 말이 있을까요? “나 주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그것은 물몬경이, 또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물리나는” 때를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를 성신과 분리시키는 선택과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는 동안 성신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분을 초대합니다.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차적인 의식”으로, 구세

주를 믿는 신앙과 진지하고 완전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의 침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침례가 뒤따라야 합니다.”(Bible Dictionary, “Baptism”, 618쪽) 구세주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한복음 3:5) 오늘 오후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영의 침례와 성신의 동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침례와 관련된 의식과 성약

우리 각자는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엄숙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성약이란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그분 자녀들 간의 협약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성약의 조건을 전부 정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약의 조건들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성약의 조건과 요구 사항을 받아들입니다.(Bible



Dictionary, "Covenant", 651쪽 참조)

구원의 의식인 침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권세를 받은 사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침례의 물가에서 우리가 맺은 성약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증거했습니다. 이 성약을 존중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즉, 물에 의한 침례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확인과 영의 침례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 각자는 신권 소유자의 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됨을 확인 받았으며, 우리에게 성신이

부여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49:14 참조) 확인을 받을 때 "성신을 받으라"는 말은 영의 침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죄 사유함과 성신을 받을 생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모래 주머니가 침례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의 절반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성신의 침례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499) 우리는 죄 사유함을 위해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영에 잠김으로써 침례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죄가 사하여"(니파이후서 31:17) 집니다.

성신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영의 영향력을 느끼는 정도가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극적이고 강한 영의 느낌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실하

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영의 인도, 확신, 그리고 평안이 우리 생활에서 쉽게 감지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충실한 레이맨인들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았으나] 이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제3니파이 9:20)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성신의 영향력을 "세미한 소리"(열왕기상 19:12; 또한 제3니파이 11:3 참조)와 "조용한 음성"(힐라맨서 5:30)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은 대개 조용하고, 섬세하며,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으로부터 물러나게 함

개인 공부나 공과 시간 중에, 우리는 주님의 영이 불러 일으키는 영감과 속삭임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올바르며 유용합니다. 우리는 영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것을 깨닫고 그에 반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써의 침례에 있어 중요한 측면이, 영적인 발전 과정에서 간과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그것으로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하여 [우리가] 복 받으며, 번영하며, 보존되도록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모사야서 2:36) 때가 없는지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약속된 축복은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자신을 성신과 분리시키는 선택과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표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를 성신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성신으로부터 분리시킨다면, 그런 류의 것들은 분명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속하고 무례하며 조심성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영을 밀쳐내므로,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필멸의 세상에 살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성신의 존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신은 대부분의 시간은 아니라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으며, 영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보다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주님의 영에 몰두함으로써, 영의 느낌이 올 때 그것을 감지하고 성신으로부터 자신을 물러나게 하는 영향이나 사건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교리와 성약 45:57) 삼”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

고 살아남는 데 불가결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자신의 삶에서 성신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드물거나 특별한 사건인 듯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약이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축복은 침례와 확인을 받고 “성신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모형과 전조로서의 리아호나

물문경은 우리 시대에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의존해야 할 가르침의 원천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사용했으며 물문경에서 방향계 혹은 나침반으로 묘사되어 있는 리아호나는, 특히 우리 시대를 위한 모형과 전조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한 필수적인 교훈으로서 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태도와 행동에 있어 조금 더 의의워지기 위해 노력할 때, 성신은 우리에게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위한 리아호나의 역할을 해 줍니다. 리아호나가 리하이를 위해 작용하도록 한 바로 그 요인들이 성신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고대에 리아호나의 작용을 방해했던 바로 그 요인들이 오늘날 우리를 성신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리아호나: 목적과 원리들

우리가 리아호나의 목적과 그것이 작용하도록 한 원리들에 대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 개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과 필요 사항에 맞는 영감을 받게 될 것임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는 성신의 지속적인 인도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리아호나는 주님께 의해 마련되었으며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앨마서 37:38 및 교리와 성약 17:1 참조) 이 나

침반 혹은 방향계는 리하이와 그의 무리가 가야 할 길(니파이전서 16:10 참조), 즉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곧바른 진로를”(앨마서 37:44) 가리켰습니다. 리아호나에 있는 지침들은 여행자들이 “거기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니파이전서 16:28) 작용했으며 가족들이 다투거나 무례하거나 게으르거나 망각할 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니파이전서 18:12, 21; 및 앨마서 37:41, 43 참조)

나침반은 또한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주의 길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니파이전서 16:29)들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리아호나의 주요 목적은 길고 힘든 여행을 하는 동안 방향과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향계는 실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닌 내면의 영적 태도를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부지런함의 원리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고대에 리하이가 축복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필멸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나침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와 침례와 확인을 통해 구주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성신이 부여되었습니다. 거룩한 신권의 권세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았으며 “진리의 영”의 끊임없는 동반을 추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한복음 14:17)

우리 개개인이 인생의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리하이가 리아호나를 통해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성신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5)

성신은 리아호나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위해 작용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신앙과 부

지련함과 듣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작용합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교리와 성약 121:4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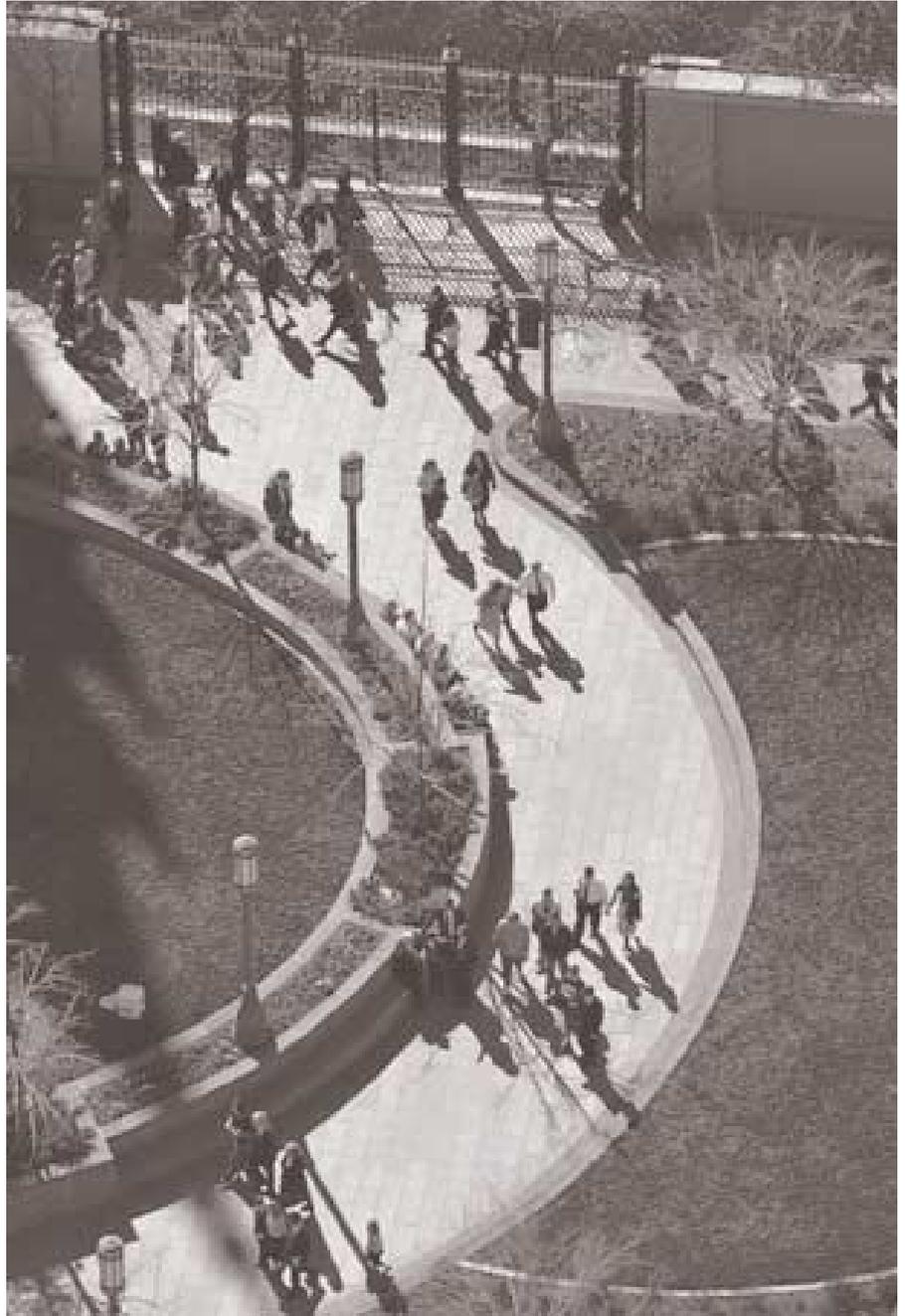
성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길에 관한 더 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주님의 영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필멸의 여정 동안 인도와 가르침과 영적인 보호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면서, 의미 있는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 부지런하고 온전한 순종, 성약에 대한 충실함과 존중, 또한 덕과 겸손과 봉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성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신으로부터 물러나게 하는 무례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죄가 되는 것, 혹은 악한 것들을 굳건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매주 안식일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교리와 성약 59:9)

성찬 의식을 통해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모사이아서 4:12, 26 참조) 더욱이, 우리는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라는 약속을 매주 상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고 흠 없이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거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1847년 2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꿈 혹은 시현에서 브리검 영에게 나타났습니다.



영 회장은 선지자에게 형제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들이 의로 인도 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작고 조용한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며, 왕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41쪽 참조) 그 성스러운 순간에 선지자 조셉은 브리검 영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모든 진리 중에서도 주님의 영을 얻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실재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생활하고, 그로 인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도와 가르침과 보호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와서 세상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의 세대에
속하십시오.



제가 연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은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핑클리 회장님을 사랑하며 지상에 계신 주님의 선지자로서 그분을 지지합니다. 저는 곳곳의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대해 간증드리며 주님의 대업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선교사들을 접견하고 있었

습니다. 그날 중일 선교사들이 오고 가는 동안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얼음같은 비에서 눈으로 변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인근의 도시에서 기차로 와서 폭풍을 맞으며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명랑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교사였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던 그들은 그분의 영을 지녔으며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꼈습니다.

각 선교사 조가 접견을 마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폭풍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기억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결의와 헌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그들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같은 도시에서 열린 신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개회 찬송을 부를 때, 선교부에서 가장 작고 신권 모임 장소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지부의 회장과 그의 보좌이자 선교사인 워너 장로와 카포위츠 장

로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두 명의 선교사가 자리에 앉을 차비를 하며 모자와 장갑을 벗고 외투를 벗은 다음, 각자가 두 번째 겨울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앞서 찾아온 선교사들처럼 그들 또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대업을 위해 봉사를 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이처럼 훌륭한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선교부의 모든 선교사들이 그 겨울 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려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집이나 아파트에서 개인과 가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상황에 관계 없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마음 속에 느꼈습니다.

저는 놀라운 영의 은사로, 곳곳의 충실한 선교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꼈고, 그것으로 인해 저는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각 선교사가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들이 세상이 과거에 본 일이 없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의 세대라고 말한 것(엠리셀 밸러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의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7쪽 참조)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지역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 보호와 인도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지닐 수 있도록 표준을 높이는 것이 왜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부모, 감독,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기타 지도자들로서 교회의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핑클리 회장님은 자신의 초기 선교사 시절

되어 선교사로 부름 받도록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사람 더”,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1쪽 참조.)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이 영감 어린 요청에 따르겠다는 결의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수많은 훌륭한 감독들이 벨라드 장로님이 당부한 사항을 오랫동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36년 전, 프랭크 매티슨 감독님은 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상황 때문에 와드에서 보낼 수 있는 선교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한 명이 더 갈 수 있게 되어, 그에게 선교사를 한 명 더 추천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보좌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제가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일 있다고 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가 가야 하며 그것도 당장 가야 한다고 제게 간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제게 있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보였고, 저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2년간 저의 삶을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데 바치기로 결심한 덕택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와서 깨끗해지십시오. 와서 행복해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값이 있을”(교리와 성약 15:6)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몸소 경험하십시오. 와서 세상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의 세대에 속하십시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이 사업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선택의지의 은사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할 때, 신앙이 커지고 지혜와 영적인 힘이 자라며, 더 쉽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운전 중 저는 빨간 신호등에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 차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차에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그런 글귀를 왜 붙이기로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요? 그 차의 운전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만일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세상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주제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중 매체, 광고, 연예 프로그램 등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것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기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재미있는 것,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입니다. 물론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¹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하늘의 본향에서

선택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특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와 힘을 줍니다. 선택의지는 영원한 율법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선택의지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은 항상 존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지적인 존재는 선택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²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같은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선택의지는 하나님의 규율과 통치 아래 항상 인간에게 상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하늘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님은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보존하고 수호하였습니다. 이 선택의지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 그리고 모든 인류는 자신을 책임지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생활 그리고 행동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³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영의 본질과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이 지상에 온 중요한 목적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⁴

따라서 선택의지는 이 지상의 삶을 시험의 기간으로 만듭니다. 만일 선택의지라는 훌륭한 은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지 보여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택의지를 사용하려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선택의지를 행사한 후에는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할 때, 신앙이 커지고, 지혜와 영적인 힘이 자라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결정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천국회의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요 택함 받은 자였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⁵

이와 같이, 우리도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 분명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일정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 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989년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에서 드레스덴 선교부를 감리하기 위해 동독으로 옮겨갔을 때, 그 시기는 우리 가족에게 편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막 함부르크의 새로운 학교에 적응했는데, 다시 동독의 사회주의 학교 체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자녀 중

한 아이는 서독에서 학교를 마쳐야 했기에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초기에 힘들어 보였던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해결할 그분만의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지의 은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으며 회복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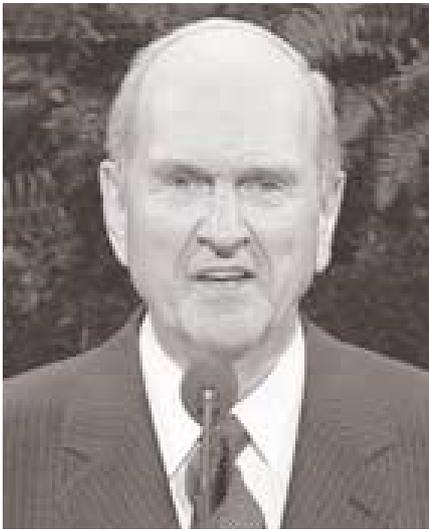
주

1. 니파이후서 2:26~27.
2. *Deseret News*, 1866년 10월 10일자, 355쪽.
3. *Millennial Star*, 1889년 10월 14일자, 642쪽.
4. 아브라함서 3:25.
5. 모세서 4:2.

결혼 생활을 보살핌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좀 더 조심해서 보살피면 결혼 생활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사
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든, 윤리가 퇴색하고 결혼이 파
괴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의로운 생활은 홀
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관리 역원들이 세계를 여행할 때,
때때로 우려를 자아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최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떤 부부 뒤에 앉았
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
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뒷목을 쓰다듬을 때 손
가락에 있던 결혼 반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에 바짝 다가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와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오직 전자 오락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그는 오락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단 한번도 아내를 쳐다보

거나, 말을 걸거나, 그녀가 그의 애정을 바라
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고 저는 이렇게 소
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보게, 눈을 좀 뜨게나!
안 보이나? 주의를 좀 기울여 봐! 자네 아내는
자네를 사랑한다네! 자네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그 부부에 대해 더 아는 바가 없습니
다. 그 후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과
민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남자가 저의 그
런 우려를 알았다면, 그는 제가 그렇게 재미있
는 장난감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안 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실히 압니
다.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
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
다.¹ 저는 지구가 창조되고 주님의 교회가 회
복되어 가족들이 인봉을 받고 영원한 승영에
이를 수 있음을 압니다.² 저는 또한 주님의 사
업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방법 중 하
나가 결혼과 가족이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공격
하는 것임을 압니다.

결혼은 다른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더 큰
행복의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부
부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
다. 그들은 자신의 로맨스가 녹이 슬도록 방치
하고, 서로를 당연시 여기며, 다른 관심사나
무관심의 구름이 결혼 생활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을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좀 더 조심해서 보살피면 결혼 생활은 더욱 행
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많은 성년 회원들이 미혼임을

압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그들은 인생의
시련을 혼자서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서 그분
의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방치되
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³ 현재 결혼했거나
결혼하게 될 사람들에게, 저는 더욱 기쁨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위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I. 교리적 기반

첫 번째 단계는 결혼에 대한 교리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결혼이 한 남
자와 한 여자의 법적인 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들 둘
이 한 몸을 이룸은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
이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
요.”⁴

다른 방법으로 결혼을 정의하려는 세상의
경향은, 슬프게도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데 기
여할 것입니다. 그러한 음모는 하나님의 계획
에 상반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
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⁵

경전은 또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⁶라고 확언해 줍니다.

결혼은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미
덕의 샘이며, 영원한 승영의 기초입니다. 결혼
은 영원하고 영속적인 성약으로 신성하게 제정
되었습니다.⁷ 결혼은 성스럽고 영예롭게 지킬
때 거룩하게 됩니다. 그 결합은 단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포함합니다.⁸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⁹ 그들의 결혼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¹⁰ 결혼은 가
족 생활을 시작하는 꽃봉오리일 뿐이며, 부모
가 되는 것은 가족 생활의 꽃입니다. 이 꽃다
발은 손자 손녀들로 축복받을 때 더욱 아름다

워지게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 만큼이나 영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¹¹

결혼은 계명이며 승영을 가져오는 복음의 원리입니다.¹²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부부간의 친밀한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흔하게도 이러한 신성한 은사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천박한 말이나 외설물이 관계를 타락시키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성한 은사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이며 자신들의 창조자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순결에 근거합니다.¹³ 경전은 “너희여 깨끗할지어다”¹⁴라고 명합니다. 결혼은 언제나 남편과 아내가 해의 영광에서 승영에 이르도록 들어올려지기 위한 성약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결혼이 육체적 사망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으로 가족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또한 그 계획으로 성전이 마련되어 그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봉된 결혼으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위대한 화합의 질서에 참여하게 됩니다.¹⁵

결혼과 관련된 교리에는 개인의 선택지와 책임이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은 부부는 자녀들을 돌봄에 있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권 지도자들과 만날 때, 저는 종종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책임에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대개 그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교회 부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극히 소수만이 가정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신권 직분, 열쇠, 부름, 정원회는 가족이 승영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¹⁶ 신권의 권세는 가족들을 영원히 인봉하기 위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권 의무는 결혼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 즉 여러분의 아내를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II. 결혼 생활을 강화함

이와 같은 교리적 기반을 기억하며, 이제 두 번째 단계, 즉 결혼 생활을 강화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살펴봅시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제안할 것이며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필요하도록 적용하도록 권유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세 개의 행위 동사입니다. 즉, *감사하다*, *의사 소통하다* 그리고 *숙고하다*입니다.

감사하다 “사랑합니다”와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은 친절한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은 아름다운 공손의 표시입니다. 감사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진심으로 서로를 칭찬할 때, 그들은 그 칭찬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배우자와 *의사 소통*을 잘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중요합니다. 의사 소통을 잘 한다는 것에는 시간을 내어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관찰하



고, 이야기하고,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함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들어올리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단합은 목표를 쌍방이 함께 이해할 때 유지됩니다. 훌륭한 의사 소통은 또한 기도를 통해 향상됩니다. 기도할 때 배우자가 행한 좋은 행동, 또는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결혼 생활을 발전시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숙고하는 것입니다. 숙고하다(*contemplate*)라는 이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단어의 어원인 라틴어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templum'은 '명상을 할 공간이나 장소'를 뜻합니다. 바로 이 어원에서 성전(*templ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부가 자주 함께 성전에서 깊이 생각한다면 성스러운 성약들을 더 잘 기억하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전 의식에 자주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가족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결혼 생활이 발전하고 가족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사람이 숙고하면 앞을 내다보고 서로,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숙고는 결혼과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

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¹⁷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배우자들이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결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권고합니다. 진지한 열망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조화와 목적을 축복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찾으십시오. 무엇보다, 이기적이면 안됩니다! 이타적이고 관대한 영을 지니십시오. 함께 지내는 하루 하루를 하늘에서 주신 소중한 선물로 축하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¹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¹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의 결합에 내재된 신성한 계획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로에게 맺어 주셨다고 깊이 느낄 때, 여러분의 시야는 넓어질 것이며 이해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은 예전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사랑만으로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들게 해
희망과 기쁨의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네
그대 내게 왔으므로!

그대의 감미로운 말로
내 발 주위에 장미가 피고
나는 눈물과 기쁨을 통해 당신에게로 인도되네
그대 내게 말을 건네므로!

그대 하나님이 내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밝을 때나 어두울 때 모든 시간 동안
내 그대 소중히 여기리
그분 사랑이 우리 사랑을 성스러운 것으로
만드시길 기도하겠네
하나님께서 그대를 내 사람으로 주셨으므로!²⁰

모든 결혼 생활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1문단.
2. 경전에서 "은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는 경고가 나올 때면, 그 경고는 가족이 함께 성전에서 신권의 권세로 인봉되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리와 성약 2:3; 138:48; 조셉 스미스-역사 1:39 참조)
3.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르스 알 맥쿠키 편, 3권, (1954~1956년), 2:76 참조.
4. 교리와 성약 49:15~16.
5. 마태복음 19:5. 또한 마가복음 10:7~8 참조.
6. 고린도전서 11:11.
7. 교리와 성약 132:19.
8. 마태복음 19:6 참조.
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6문단
10. 시편 127:3.
11. 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12. 조셉 필딩 스미스, *The Way to Perfection* 제10판(1953년), 232~233쪽 참조.
13. 엘머서 41:10 참조.
14. 교리와 성약 38:42; 또한 이사야서 52:11; 제3니파이 20:41; 교리와 성약 133:5 참조.
15. 교리와 성약 128:15~18 참조.
16. 교리와 성약 23:3 참조.
17.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6:33. (마태복음 6:33 참조, 각주 7)
18. *Stand Ye In Holy Places*(1974년), 255쪽.
19. 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1924), 42쪽에서 인용; 대회 보고, 1935년 4월호, 116쪽.
20. "Because," words by Edward Teschemacher(1902년).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에서 성스러운 순간을 제공해 줍니다.



한 두 해 전에 유타 주 로간 종교교육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교교육원이 있는 건물은 최근에 개조되었습니다. 저는 작업자들이 예배당에서 오래된 설교단을 옮기면서 오랫동안 봉해져 있던 선반 몇 개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덮개를 제거하자, 그들은 성찬기를 발견했습니다. 성찬 컵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컵 중 하나가 틀에 끼워져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그 유리컵이 사용되던 시절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든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리컵을 보자 즐거운 추억들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유리 성찬컵은 제 인생에서 매우 뜻 깊은 사건이 있었던, 저의 열두 번째 생일이 되던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제 열두 번째 생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집사들이 성찬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론 신권을 받는 축복을 받고 그런 특권을 갖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 저는 일찍 교회로 가서 감독단 제2보좌인 엠브로스 콜 형제님을 만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콜 형제님은 저를 교실로 들어오게 하여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경전을 펼쳐 교리와 성약 제13편을 제게 읽어 주셨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 콜 형제님은 이 편에 관한 제 의견을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 설명은 분명 완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콜 형제님은 얼마간 시간을 내어 거룩한 신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권을 합당하게 지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규정하신 의식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신권 소유자들의 계속되는 권능 선을 통해 구주로부터 직접 옵니다.

제가 콜 형제님과 가졌던 접견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집사 정원회 모임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감독단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당시 감독이셨던 저의 아버지가 제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집사 직분에 성임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다른 집사들의 지지에 의해 그들과 더불어 신권 정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찬식에서 저는 와드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함으로써 처음으로 신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성찬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성찬기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찬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우 경건하게 성찬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여러 성찬식 모임에 참석해 왔으며, 그 모임들은 참으로 제게 그저 또 하나의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에서 성스러운 순간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59편에서 주신 다음과 같은 계명에 따라 우리는 성찬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9절)

세상이 조직되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근거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의해 때로는 마음이 흩어질 것이며,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성약과 그분의 약속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주님을 예배하고 양 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그분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모세서 5:5~7)

그날부터 구주의 시대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희생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속죄의 희생과 함께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그 희생을 완수하시기 전날 밤 그분은 우리가 그분뿐 아니라 그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치르신 속죄를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주의 만찬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고대 희생의 율법과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잊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집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6~28절).

물문경에서 제3니파이 18장은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찬을 집행했던 상세한 기사를 이렇게 전해 줍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약간의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가져오게 하시니라.

“또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매, 떡을 취하여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

시며 먹으라 명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먹고 충만하게 되매,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시니라.

“그리고 무리가 먹고 충만하게 되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중에 성임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떼어 축복하며 그것을 내 교회의 백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은 모든 자에게 주게 하리라.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같이 하라.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의 포도주를 취하여 마시게 하시고, 또 무리에게도 주게 하사 그들도 마시게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 행하여, 이를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임이요,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너희가 기꺼이 행하려 함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니라.”(1~10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기꺼이 행해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찬을 취하라는 명을 받으리라는 것은 분명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20:75)

성찬을 취하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그리스도상을 보기 위해 템플스퀘어의 북쪽 방문자 센터의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다.

텔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는 성약에 관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성약입니다. ... 하나님의 승인된 종에 의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성약합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하고 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대회 보고, 1965년 10월, 14쪽)

성찬은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구주의 속죄의 희생보다는 음악

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 우리는 세상 일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그 의식의 영적인 깊은 속 뜻을 인식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찬을 별 생각 없이 취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께서서는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찬 집행에 참여할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그 위안과 행복은 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게 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The Sacramental Covenant”, *Improvement Era*,

1919년 10월호, 1027쪽)

성찬을 합당하게 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의 희생을,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으며, 친히 우리가 불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이름을 받들며, 또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교리와 성약 84:44)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가족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은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구주의 가르침에 맞추어 복음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준비된 가족은 경건의 영을 갖고, 또 한 그 성스러운 상징을 취할 기회에 대한 감사

신권 모임
2006년 4월 1일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 그분은 그분께서 보시는
여러분 내부의 커다란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신권 형제들의 전세계적인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니 기쁘고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 하나라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인류의 안녕을 위한 영원한 힘과 에너지의 필수적인 근원이 되는 의식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를 지닌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훌륭한 젊은이들, 즉 아론 신권의 대열에 들어온 여러분과 이미 멜기세덱 신권의 신성한 맹세와 성약을 받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

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은 선을 위한 훌륭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의 영의 아들로서 여러분은 자유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력, 자기 수양,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줄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아브라함서 2:8)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분은 그분께서 보시는 여러분 내부의 커다란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 소년 시절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열한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갑자기 동독을 떠나 서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친의 원래 직업인 정부 직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조그마한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세탁물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세탁물 수레를 매달아 끌 수 있는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늘 멋지고 반들거리고 빛나는

함을 갖고 성찬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휴가 때 휴양지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기간 중에 일요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근 예배당에서 성찬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휴양지에 머물던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차고 넘쳤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님은 그곳에 참석한 집사들 가운데 합당하고 적절한 복장을 한 사람들에게 성찬 전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충분한 수의 집사가 앞으로 나와 많은 회중에게 전달할 방법에 관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회중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임한 영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양지로 돌아간 후 주중 활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안식일 활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트는 부두에 그대로 매어져 있었으며,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안식일 복장도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으로 가고 또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교리와 성약 59:9 참조)

안식일에 대한 더 큰 경건이 우리 개개인 안에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가 주는 특별한 축복을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생의 목적을 이루고 다가올 영원의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복음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성찬식은 이 계획의 중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화려한 빨간색 자전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돈이 충분치 않았습니니다. 대신 제가 얻은 것은 무겁고 볼품 없는 검은색의 튼튼한 화물 자전거였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학교 수업 전후에 그 자전거에 세탁물을 싣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 자전거와 수레,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신이 났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손수레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폐가 터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숨을 고르기 위해 자주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수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을 다했으며, 그것이 제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을 그 당시에 알고만 있었다라든,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었다라면, 이런 경험들을 보다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며 또 제 일을 훨씬 쉽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군에 징집될 즈음, 저는 징집 대신 자원하여 공군에 들어가서 조종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행을 좋아했으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엄격한 신체 검사를 포함해 많은 검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검사 결과에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고, 추가로 몇 가지 의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폐에 상처가 있고, 그것은 심대 초반에 폐질환이 있었다는 표시지만 지금은 나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질환을 고치기 위해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날까지만 해도 저는 제게 폐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탁소 배달원으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규칙적인 운동을 한 것이 이 질병을 고쳐 준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제게 분명해졌습니다. 매일 그 무거운 자전거에 세탁물 수레를 매달아 우리 마을 길거리 이곳 저곳을 끌고 다니는 별도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제트기 조종사와 747 항공기 기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항상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방은 도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이 슬그머니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올 수 있으며, 좌절이 우리 생각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의 가치에 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순간에 사탄은 우리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노력할 가치도 없고, 우리의 작은 역할은 결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그는 우리가 *시작부터* 끝을 보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젊은 신권 소유자들은 우리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회장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 선택 받은 영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필멸의 삶을 지나는 인생 여정의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에 차며 다시 여러분을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은 앞으로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 내 뒤따를 많은 것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최선을 다해 그분의 뜻을 따를 책임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4쪽)

우리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사랑하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영감에 찬 지도력과 그분의 훌륭한 보좌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예언적인 시각은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을 보는 것을 도와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기 위해 계명과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들 가운데 몇 가지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의 외형적 모습은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고 하는 경전의 표현에 매우 적절합니다. 소책자 자체는 별다른 물질적 가치가 없으며, 아마 단돈 몇 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하는 교리와 원리들은 엄청나게 귀중한 보물입니다. 18세 이상인 젊은이 여러분, 만일 이 소책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한 부를 구해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어떤 연령 그룹에게도 보석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의 회원임을 나타내는 신성한 상징이 되는 표준들이 들어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와 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지도서, 그리고 교회의 성전 추천서, 이 모든 것의 표지에는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이 생과 영원을 통해 세대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모든 성전은 같은 목적, 즉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사업과 영광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헌납되었습니다. 이 성전들은 거룩한 건물로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성한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영원한 존재로서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진리가 가르쳐지며 의식이 집행됩니다. 주님의 집은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신성한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그리고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연령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동료 신권 소유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성전에 합당한 존경심과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과 정신, 그리고 육신을 활용합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은 제 친구인 여러분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있는 표준들을 지키고 또 “경전에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더욱 큰 지혜와 기량을 갖고 인생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큰 용기를 갖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의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 성전에 가서 거룩한 의식들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과 다른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3쪽)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1)

성전에 가기 원하는 모든 회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런 신성한 경험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권 권세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의 보통 판사인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특정한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질문들에는, “정직합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킵니까? 십일조의 법에 순종합니까? 교회 직원들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태도와 행위를 반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주님께서 성전 추천서 질문에 정해 놓으신 표준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표준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뿐 아니라 또한 가장 큰 유혹의 시기에 이런 표준들과 성신의 인도는 여러분의 교육과 친구, 복장과 외모, 오락, 대중 매체와 인터넷, 언어, 합당한 데이트, 성적 순결, 정직, 안식일 준수, 타인에 대한 봉사에 관해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을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이런 표준을 지키고 또 경전에 있는 복음 진리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소망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 저편을 내다보게 되고 또 커다란 기회와 책임이 있는 찬란하고 멋진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오래 견딜 것이며, 인생에 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은 먼저 여러분을 주님의 집으로, 그 다음에는 구주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여러분은 같은 표준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눈으로 영원한 결혼과 영원한 가족을 위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구세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선순위에 맞추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도록 이해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있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표준을 여러



분 마음과 정신에 새겨 놓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한 각각의 표준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위치와 비교해 보십시오. 더욱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영에 귀 기울이십시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변화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참된 잠재력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와 힘을 활용하십시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보일 경우,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을 위해 갖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약속도 갖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교리와 성약 122:7)

이제 사랑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

제, 그리고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부모가 진정으로 돌이킬 때, 그들은 “참되고 진지한 길로 행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모사이야서 4:15) “교육의 한 가지 방법은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되는 모범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생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실제로 적용된 간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며, 또 그들이 시작부터 끝을 보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 주어진 이런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삶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매일 한 단계씩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권을 존중하게 되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예롭게 돌아가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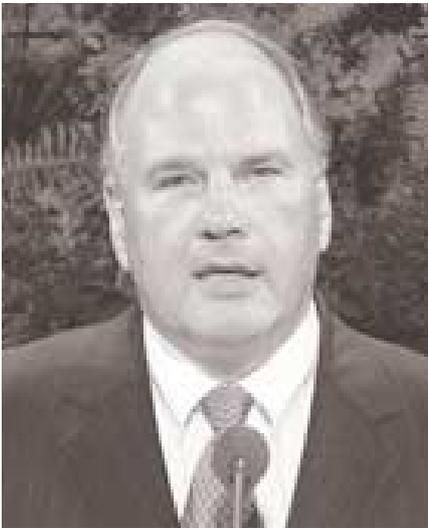
사랑하는 신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을 보도록 도우실 것이며, 또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이끌어 내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언제나 시작부터 끝을 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도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여정에서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오늘날 전세계 곳곳에서 모인 우리는 인류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성전에 더욱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사랑에 찬 친절로 선지자들을 인도하셨기에 주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들은 자신의 성전 축복과 조상들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들을 수행하기 위해 122개의 성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전 건축이 발표되었고, 앞으로 또 발표될 것입니다. 히클리 회장님, 이 엄청난 노력을 위한 영감받은 지도력에 대해 감사를 포함합니다.

물론경의 초기 시대 교회 회원들도 그들의

선지자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전 가까이 모였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베냐민 왕은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들 가족에게 필요한 권고와 훈계를 주기 위해 가족을 데려올 것을 명했습니다. 모사이야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주위에 그들의 장막을 치되,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따라 ...

“... 각 사람이 그 장막 문으로 성전을 향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 남아서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으려 하였으니.”(모사이야서 2:5~6)

저는 이 구절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형제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 가정의 문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전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신성하고 특별한 곳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성전을 방문하십니까?

모사이야서에 기록된 대로 가족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열의와 결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은 베냐민 왕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새로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슬픈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사이야서에서 베냐민 왕이

설교할 당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모사이야서 26:1)

형제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왜 조상들의 의로운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수 세기가 지난 오늘 날, 많은 성전이 있고 선지자의 지속적인 지시를 받는 이 시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이 자리와 전세계 곳곳에 있는 청년과 청년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히클리 회장님께서서는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 역사상 우리가 알았던 가장 훌륭한 젊은 세대임을 믿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 그들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현명하고 능력 있고 깨끗하고 참신하고 매력적이고 똑똑합니다. ...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며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 어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13~114쪽)

이러한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히클리 회장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청소년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도와 신앙 면에서 눈에 띄게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극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더 혹독할 것입니다.”(“We Must Raise Our Sights”, *Ensign*, 2004년 9월호, 14쪽).

“그 시험은 더 혹독할 것입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제 주의를 끄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여정에서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증가된 악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장한 군대에서, 특히 전세계 곳곳의 모든 해군의 모든 수병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또는 배에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즉각적인 도움을 촉구하는 한 가지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원 갑판으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해상 전투는 이런 외침의 호응 정도에 의해 그 승패가 갈려왔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걱정 많은 아버지로서, 또 관심 많은 할아버지로서 우리 모두는 “전원 갑판으로”라는 외침이 우리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 외침에 호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인가에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그들이 가장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 수행할 신성하게 선포된 역할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포츠 행사, 특별 활동, 또는 집 밖에서의 용무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후기 성도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강화시키고, 양육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은 훌륭하고 사려 깊은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칠십인으로 처음 부름을 받고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기 위해 영국 솔리홀로 이주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래스번드 자매와 저는 임무지명에 따라 가장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딸은 청년 독신 성인이었고, 아들은 17세로 미식 축구를 좋아했고 또 아주 잘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걱정했습니다. 솔리홀에는 친구도, 친척들도, 미식 축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이 신나는 새로운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시련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답은 제가 받은 초기 임무를 통해 왔습니다. 저는 영국 프레스턴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

았습니다. 훈련원의 화이트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분이 제 가족 사정을 아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분은 프레스턴을 방문할 때 자녀들과 함께 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자 그분은 제 자녀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말씀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들 속에 함께한다는 느낌과 주님의 사업에 대해 간증을 나누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선교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한 후 우리는 선교사 훈련원 가까이에 있는 아름다운 영국 프레스턴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정문에 다가가자 성전 회장인 스웨니 회장님과 메이트론 스웨니 자매님이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사하고 성전 안으로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래스번드 장로님, 가족들과 함께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의식을 집행한 후 아들과 제가 눈에 기쁨의 눈물을 머금고 침례탕 안에 있는 동안,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전엔 한 번도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구경한 모든 미식 축구 경기와 영화들, 함께 나는 좋은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추억이자 세워야 할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프레스턴에서 경험한 것처럼 자녀들과 더 의미있고 영적인 경험들을 더할 기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려 깊고 세심한 그 신권 지도자들 덕분에 저는 우리 가족이 유럽에서 잘 지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많은 신권 및 청년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시대를 살펴보면 니파이의 가족 중 몇몇 사람이 순종과 화합과 충실함의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니파이후서 25:26)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청소년들이 죄 사유함을 위해 바라보아야 할 근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힘을 다해 모든 일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전원 갑판으로”라는 외침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관련되는 것처럼 정말 진지한 노력을 통해 이 외침에 우리 각자가 호응하기를 빕니다. 그들은 분명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선지자, 곧 제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통해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그분의 참된 교회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회개, 회원님의 축복

리처드 지 힝클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개는 ... 가혹한 원리가 아닙니다. ... 친절하고 자비로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런 부름과 기회를 갖게 되어 겸허해지면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부름이 제게 오리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 년 전 지지를 받았을 때에 힝클리 회장님께서 제 부름으로 이어진 그 과정을 그분이 시작한 것이 아님을 교회 전체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후에 저는 아마도 교회 역사상 선지자의 이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지지를 받은 유일한 총관리 역원일 것이라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이 위대한 대업에 제 온 마음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가족과 아내, 자녀들과 저

의 훌륭한 부모님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는 2년 전, 4월 연차 회의를 마치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집이 작으셨지만, 저는 매일 그분의 어깨에 의지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은 늘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직 저의 삶을 통해서만 그분을 정당히 기릴 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말 이외에 그분을 난처하게 하지 않을 어떤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연세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형제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바닥에 누워 우리와 덩굴며 놀아주시고, 우리를 팔로 들어올리고 안아주시고 간지럼 태워 주시던 일,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나 밤에 무서워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침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제 기억은 언제나 웃음과 사랑, 한결같은 간증, 지칠 줄 모르는 근면, 신앙과 성실에 대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친절하고 현명하신 분이며, 저는 이 필멸의 삶 동안 그분을 저의 선지자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과 영원토록 그분을 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칠십인 정원회 더글라스 엘 콜리어 장로님께서 그분의 외할아버지인 리그랜드 리처드의 약력을 정원회 모임에서 전해 달



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 정신은 자극을 받았 습니다. 흥미로운 여러 가지 내용 중 이런 내 용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장로님이 젊은 감독 이었을 때 그는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했습니 다. 그는 그들에게 성찬식 모임에서 “내가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 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하도록 담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들 중 몇몇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그 경험을 계기로 그들은 교회에서 완전한 활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같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저는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 각 자에게 이 주제를 위한 작은 노트를 마련할 것 을 부탁드립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내가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 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간략하게 나열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생각 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것들을 목록에 첨가하

실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은 곧 늘어나게 되고, 주님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 부탁을 받게 될 때 이 노트가 좋은 자료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개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 훌륭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소년이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 같이 가혹한 원 리가 아닙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원리입니 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원은 간단히 말해 하 나님께로 “돌아서다”¹ 또는 “돌아가다” 입니 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라고 하셨습니다.²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 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두 명의 장로가 다음날 침례 받을 구도자 한 명을 만나볼 수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는 장로들이 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이 있 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그녀의 집에 갔고 거기서 한 아이를 둔 이십대 후반의 미망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에 비극적 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사려 깊은 것이었으며 그녀는 설명을 잘 받아 들였습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하고 난 후에 저 는 그녀에게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지 물었습니 다. 그녀는 그렇다는 표시를 했고 저하고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장로 들에게 밖으로 나가 큰 창문으로 우리를 분명 하게 볼 수 있는 잔디밭 위에 서 있으라고 했 습니다. 장로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녀 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가득한 채 홀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녀는

몇 가지 심각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선교사들을 만날 때까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힘이 부족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교사들과 토론한 몇 주 동안 그녀는 주님께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개, 그리고 침례 및 성신의 은사를 받음을 통해 죄를 씻고 합당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게서 받고자 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통해 그녀를 가르쳤고 회개와 속죄의 원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와 제 아내는 이 자매와 그녀의 어린 딸의 침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침례식은 새로운 교회 회원이 되는 그녀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일을 갈망하는 워드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마치고 떠나면서 저는 회개의 위대한 원리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속죄에 대해, 개종의 기적에 대해, 이 훌륭한 교회와 그 회원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제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제게 중요한 모든 것, 즉 저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활기를 주고 스며들어 목적과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복음의 원리와 의식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제가 이 생에서 화평과 행복을 찾을 것이고, 필멸의 삶 뒤에 반드시 올 삶 속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도록 초대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분의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에워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³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Joseph P. Healey, "Repentance,"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ed. David Noel Freedman, 6 vols.(1992년), 5:671.
2. 예레미야 3:12~13.
3. 앨마서 34:16 참조.

왕 같은 제사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신권을 지니는 것은 큰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큰 책무 또한 수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항상 큰 특권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 모임은 어쩌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신권 모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남 여러분에게 "소신권"으로도 알려진 아론 신권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lesser)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도 그 신권의 중요성을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신권에 있어 작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 청남들이 정말 큰 것을 보니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처음 전달했을 때의 그 설레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집행하고 전달할 때,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은 성찬을 취하는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구주의 속죄와 희생을 믿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회원들은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구할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권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그 의무들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찬을 전달하는 태도가 조금은 경솔했던 몇몇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들은 성찬 전달을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허드렛일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종종 늦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합당한 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들의 신권 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 성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랐지만 평상시처럼 성찬식에 늦게 왔습니다. 그들은 개회찬송을 하는 동안 개의치 않는 듯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집사들이 앉는 의자에 누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문과 와드의 대제사들이었는데, 그들 중에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하고 진한 색상의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이 성찬기를 들고 좌석의 줄을 따라 전달할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한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의 성찬에는 더욱 깊고 의미심장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왔던 그 집사들은 성찬을 전달하는 것이 신성

한 의무이며 가장 큰 명예라는 것을 모범으로 배웠습니다.¹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불렀던 것처럼 신권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았습니다.²

일반적으로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는 감독단의 지시 하에 성찬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이곳 우리 와드에는 나이 드신 충실한 회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론 신권 연령의 회원은 몇 명 안됩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저는 신앙심 깊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신 이 대제사들과 장로들이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전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동안 이 신권 소유자들 중에는 수석 연방 판사와 유타 주지사 후보 및 그 외 저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신성한 신권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특권이라 느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론 신권은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능의 위대한 은사입니다.³ 이 신권은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⁴와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⁵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천사의 성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나 현대에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가르침과 경고와 지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며 충실하게 살다 이 지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사랑했던 지상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시 방문하여 사랑, 경고, 훈계, 교훈으로 가득 찬 성스러운 존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사명을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⁶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성역은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조셉 스미스가 충만한 복음을 회복할 때 그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이들 엘마는 성역을 베푸는 천사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었고 “백성 중 많은 자들을 이끌어 그의 죄악을 좇아 행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그마치 구름에 둘러싸인 듯 하강하여 마치 우레

와도 같은 소리로 말한지라, 그 음성으로 인해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진동”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마야, 일어나 앞으로 나서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엘마는 이 경험으로 힘이 빠져나가 실신한 채로 그의 부친에게 데려가져야 했습니다. 그의 부친과 다른 사람들이 이들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야 엘마의 건강과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구속함을 받았읍니다. 보소서 내가 영으로 났나이다.”⁷ 그 후 엘마는 정진하여 물몬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선교 사업 속에서도, 그는 천사의 방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진리가 그에게 알려졌다고 간증하기를 택했습니다.

천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위대한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엘마가 가르쳤듯이 그의 마지막이자 지속적인 돌이킴은 그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⁸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완전한 돌이킴은 성신을 통해 왔으며, 성신은 합당하기만 하다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항상 돌이킴의 근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먼과 레뮤엘이 어린 동생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했습니

다. 천사는 또한 라반이 그들의 손에 붙여질 것이라고 그 형제들 모두에게 재확인시켰습니다. 니파이는 이를 믿어 라반으로부터 늦쇠판을 얻었으며, 레이먼과 레뮤엘은 천사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행동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니파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들이 주의 천사를 본 것을 잊어버렸음은 어쩐이니까?”⁹

청남 여러분들은 자신의 간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생활 속 평범한 경험에서 성신을 통한 영적인 확인에 의해 강화됩니다. 어떤 강렬한 나타내심이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권을 지니는 것은 큰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큰 책무 또한 수반합니다.

1.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자신의 직분과 부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원회 회장단, 감독, 정원회 고문의 지시에 따르므로써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

은 우리가 부탁받을 때 성찬을 준비하고 집행하며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 집회소를 청소하고, 스테이크 대회와 다른 교회 모임을 위해 의자를 펴고, 지명받는 대로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아론 신권의 다른 책임들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아론 신권 또는 예비 신권 소유자들은 대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보다 큰 책임에 대한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3. 아론 신권을 지니는 것에는 깨끗한 생각과 합당한 행동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는 신권 의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속성들을 얻습니다.

4. 정원회 및 다른 활동들을 통해 같은 표준을 지닌 청남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복음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6. 기도하는 법과 응답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아론 신권과 관련된 다른 유형의 권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권 성임은 의식을 수행하고 아론 신권의 권능을 지닐 권세를 부여합니다. 감독단은 와드의 아론 신권 회장단입니다.¹⁰ 둘째, 이 신권에는 다른 직분들이 있는데, 각 직분에는 각기 다른 책임과 특권들이 있습니다. 집사 여러분은 상주 성역자로서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¹¹ 교사 여러분은 교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¹² 주어야 합니다. 제사 여러분은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¹³해야 합니다. 대제사 직분을 지닌 여러분의 감독이 또 한 제사 정원회의 회장이며, 그 정원회의 일을 지시합니다.

아론 신권의 이러한 직분들 중 하나에서 다음 직분으로 승진할 때 여러분은 앞서 지냈던 직분의 권세를 그대로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사인 여러분은 집사와 교사 때 했던 모든 일을 행할 권세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될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론 신권의 직분을 지니고 이를 행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고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께서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는 성인 집사일 뿐입니다.”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가르치는 것은 아론 신권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십대인 청년 여러분이 가르칠 기회는 여러분이 아버지나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로 봉사할 때 자주 찾아옵니다. 현세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필요 사항을 보살피는 것은 “교회를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가정 복음 교육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오클리 형제는 선지자의 가정 복음 교사였으며, 오클리 형제가 선지자의 집에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갔을 때 마다, “선지자는 가족을 한데 불러 모으고는, 자신의 의자를 오클리 형제에게 내주면서 그의 가족에게” 오클리 형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했습니다.¹⁴

아론 신권의 청년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육, 성찬의 준비나 전달, 또는 다른 신권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영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걸림돌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 가장 큰 것 하나는 중독입니다.

저는 형제 여러분에게 모든 종류의 중독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알콜, 모든 종류의 약물, 외설물, 담배, 도박에 대한 중독, 그리고 다른 강박 장애를 통해 우리의 가장 뛰어난 청년들 일부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번의 시도로도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을 초래할 만큼 선천적으로 이런 물질들에 약한 것 같습니다. 몇몇 중독은 실제로 심리 변화를 일으키고 이성과 판단을 못쓰게 만드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중독은 그것들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의 삶까지 파괴합니다. 선지자 예



레미야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 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¹⁵

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물질들은 전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술을 마시거나 최초의 담배를 피거나 최초의 약물을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시다. 호기심과 또래의 압력은 중독성 물질에 빠지게 되는 이기적인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비단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충분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적인 것이지만 또한 영을 잃게 할 위험이 있고, 우리가 사탄의 희생물로 전락하게 합니다.

저는 신권이 제 인생에 미쳤던 고상하고 영적이며, 위안을 주고 강화시키며 자제시키는 영향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제 모든 인생 동안 할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제 집에서 저는 신권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생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치유하고 축복하기 위해 신권의 무한한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겸허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의 권세를 지니도록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Adapted from Laird Roberts, “On Water and Bread,” *Tambuli*, 1984년 10월, 40~41쪽.
2. 베드로전서 2:9
3. 교리와 성약 84:18 참조.
4. 교리와 성약 84:26.
5. 교리와 성약 13:1.
6. 복음 교리, 제5판.(1939년), 436쪽.
7. 모사이야서 27:8~24 참조.
8. 엘머서 5:46.
9. 니파이전서 7:10.
10. 교리와 성약 107:15 참조.
11. 교리와 성약 84:111; 또한 교리와 성약 20:57~59 참조.
12. 교리와 성약 20:53.
13. 교리와 성약 20:46~47.
14. William G. Hartley, “Ordained and Acting Teachers in the Lesser Priesthood, 1851~1883,”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spring 1976년, 384쪽.
15. 예레미야 애가 4:12.

우리의 신성한 신권 책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권은 은사라기보다는 봉사하라는 임무이자 고양시키는 특권이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 년 전 제 막내 아들 클라크의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 아들과 제가 함께 교회 행정 건물에서 나오는 도중 해롤드 비리 회장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리 회장님에게 제 아들이 곧 열두 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리 회장님은 아들을 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열두 살이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지?”

보통 이런 경우 아버지들은 아들이 영감을

받아 올바른 대답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은 망설이지 않고 리 회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로 성임될 거예요!”

그 대답은 제가 간절히 바라던, 또 리 회장님이 듣고자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리 회장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신권을 지니는 것이 큰 축복임을 명심하라.”

신권을 받는 모든 청년이 그 신권을 존중하고, 신권을 받을 때 함께 전해지는 책임에 충실하기를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우리 각자가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고했듯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빕니다.¹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거나 변호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간증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특권을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가져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21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는 독일 민주 공화국, 또는 동독으로 보다 널리 알려졌던 나라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벗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동독의 기지 내무장관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동독의 프라이베르크에 있는 성전은 당시 두세 개의 집회소와 함께 건축 중이었습니다. 기지 장관과 저는 우리의 전세계적인 건축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많은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지 장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건물을 지을 만큼 부유한가요? 그런 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부유하지 않으며 우리는 옛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현대의 경전에서 재강조된 고대의 원리, 즉 십일조의 원리를 지킨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보수를 받는 성직자가 없다고 설명하며 이 두 가지 이유로 프라이베르크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비롯한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지 장관은 제가 제공한 정보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는 그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기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세를 갖추시다.

언젠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종파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신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훗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믿음과 다른 교회의 믿음을 구별하는 근거는 바로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신성한 권세입니다.”²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신성한 권세에 관해 “일천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에 어린 조셉 스미스가 숲에 들어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그 순간을 묘사한 조셉의 말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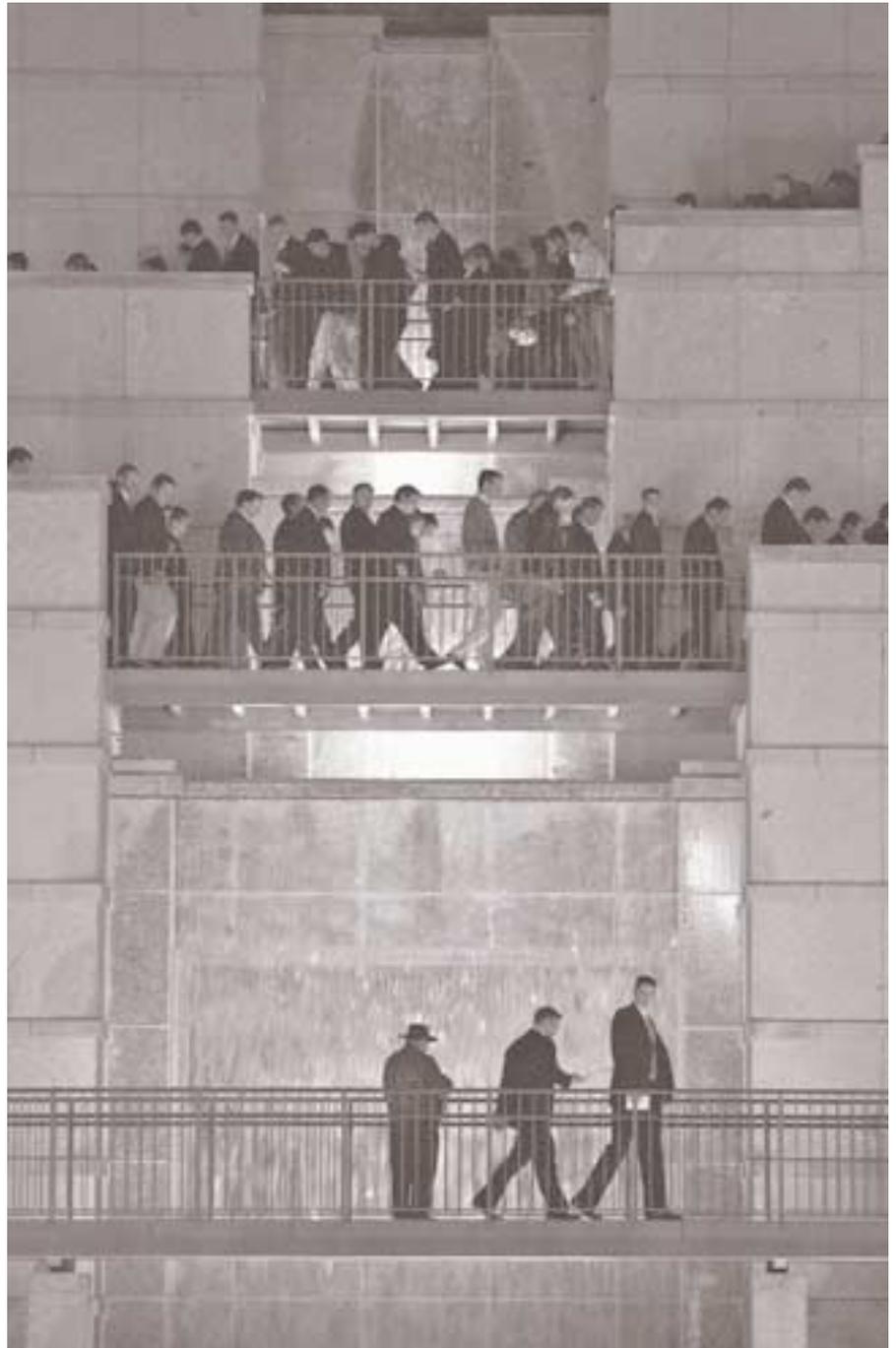
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³

1829년 5월 15일에 하늘의 사자 침례 요한이 방문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펜실베이니아 하모니 근처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의 손을 얹고 성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⁴ 이 사자는 자신이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임과 침례가 뒤따랐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직접적인 계시로 받은 신성한 권세에 관한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때가 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의 축복을 부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사도들은 조셉과 올리버를 사도로, 그리고 그분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성임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신성한 방문의 특징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신성한 권세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의 결과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책임에 충실해야 할 의무, 그 축복된 기회와 중대한 본분을 가지게 됩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은 ... 율법으로, 이것에 의해 현재 세상이 있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⁵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서는 이 주제에 관해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신권은 사람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인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지상에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권세를 탈취한 것이 아니기에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 권세는 죽어서 앞서 간 세대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직접 온 성역의 천사들



과 영들에 의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⁶

열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올 즈음 저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추천되었습니다. 접견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님이셨던 폴 시 차일드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거룩한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하신 분이셨으며,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바라

셨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의 접견이 세밀하고 면밀한 편이라는 것을 다른 회원들을 통해 알았기에 전화 통화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일드 회장님. 저는 몬슨 형제입니다. 감독님께서 장로로 성임받는 건으로 스테이크 회장님을 찾아 뵈라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몬슨 형제. 언제 시간이 되나요?”

스테이크 회장님의 성찬식이 4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접견할 동안 경전에

대한 제 지식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는 “3시는 어떠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몬슨 형제님, 그 시간 안에 경전을 살펴보긴 무리일 겁니다. 2시경에 개인적으로 표시한 경전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일요일이 되었고, 저는 차일드 회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받은 후 곧이어 접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님, 형제님은 아론 신권 소유자죠.” 물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의 성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그런 성역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님, 교리와 성약 제13편을 암기해 보세요.”

저는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거기까지요.”라고 차일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몬슨 형제님,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천사의 성역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암기해 보세요.”

저는 그 편의 나머지 부분을 암송했습니다. 차일드 회장님은 “훌륭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리와 성약에서 신권에 관한 다른 편들에 대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긴 접견이었지만 저는 그 접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접견이 끝날 때쯤 차일드 회장님께서서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당시 신권 복지 위원회에 계시던 폴 시 차일드 형제님과 스테이크 대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할 차례가 되신 차일드 형제님은 경전을 손에 쥐시고는 연단에서 회중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일드 형제님과 그의 경험은 바탕으로 저는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한 제18편을 포함해서 교리와 성약의 다른 편들을 인용하시고는 주님께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해 온종일 일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장로 정원 회 회장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깜짝 놀란 정원회 회장은 답변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가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차일드 형제님은 경전을 덮으시고, 엄숙하면서도 조용히 회중석 통로를 지나 연단으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저를 지나치시면서 “참으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온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선언입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것은 현재 이곳에서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미래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선언입니다.

주님은 이 맹세와 성약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⁷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 텔버트 엘 스테이크 리 장로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세와 성약에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요건은 충실함으로,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며, 모든 복음 표준에 대한 참된 준수를 내포합니다. ... 둘째 요건은 ...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경외심을 가지고 높이 받들며, 영광스럽게 하고 더욱 존중하고 존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권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확대하여 더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셉 형제님,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자주 권고하셨지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부름을 존귀하고 중요하게 받들어 올려 하늘의 빛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운 다음 실천할 때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권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전 어느 일요일에 저는 저희 와드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참 드문 경우였습니다. 세 명의 제사가 성찬대에 있었는데 가운데 있는 청년은 움직이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 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나 떡을 축복하려 했지만 매번 심하게 더듬거렸고, 축복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없어서 분명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사들 중 한 사람이 이어받아 떡

을 축복했습니다.

떡이 전달되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청년이 성찬대에서 실패를 경험하도록 할 수는 없지.” 저는 제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청년이 물 축복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상에서 성찬대 가까이 앉아 있었기에 저는 몸을 내밀고는 어려움을 겪은 그 청년을 가리키며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에게 물 축복을 시키자. 물 축복 기도는 더 짧으니까.”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두 번 실패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경건 구절을 사랑합니다.⁹

물을 축복할 때가 되자 그 청년은 다시 무릎을 꿇고, 약간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집사들이 성찬기를 전달할 때, 저는 그 소년을 보면서 엄지 손가락을 위로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과 함께 앉았고, 그 청년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크게 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포옹을 하는 모습과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축하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 청년이 모두 제 쪽을 쳐다보았고 저는 그 청년들에게 제 엄지 손가락을 위로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권은 은사라기보다는 봉사하라는 임무이자 고양시키는 특권이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이잭 라이터라는 훌륭한 젊은 집사, 그리고 그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고 고양시키고 축복했던 집사와 교사와 제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잭은 생후 7개월부터 13세에 죽을 때까지 암과 싸웠습니다. 아이잭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가족이 병원 근처의 집으로 이사했



을 때, 인근 와드의 아론 신권 회원들은 일요일마다 아이잭의 가족에게 성찬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주례 의식은 참여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이잭의 병원 침대 주변에 청년들과 그들의 지도자들, 아이잭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간증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찬을 축복했습니다. 집사인 아이잭은 자기가 성찬을 전달해야 한다고 늘 고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온 힘을 다해 축복된 빵이나 물이 담긴 성찬기를 들었습니다. 참석된 사람들이 모두 아이잭에게로 와서 그 성찬기에서 성찬을 취하곤 했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의료진들도 아이잭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며 언제나 그분을 공경한다는 것을 깨닫고 곧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쇠약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아이잭은 항상 왕 같은 신권을 지닌 사람의 영예를 가지고 셧습니다.

아이잭은 와드의 청년들에게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죽어 가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아이잭의 소망을 보았으며, 그러한 의무가 참으로 특권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준비하고 또한 제 시간에 자리에 앉기 위해 일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이 증가했습니다.

아이잭 라이터는 신권 존중에 관한 살아 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누군가는 아이잭이 평생 동안 한발을 천국에 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의무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고 또한 장막 너머에서의 사업을 돕고 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우리들에게는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굶주린 양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준비를 하고 고개를 끄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분의 귀중한 아들 중 하나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잘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확언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¹⁰

신권 부름이 영화롭게 될 때 기적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의심을 대신할 때, 비이기적인 봉사가 이기적인 노력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귀중한 신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늘 축복하시고, 언제나 영감을 주시며,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베드로전서 3:15.
2. David O. McKay, *Stepping Stones to an Abundant Life*(1971년), 375쪽 참조.
3. 조셉 스미스-역사 1:14, 17.
4. 교리와 성약 13:1.
5.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년), 130쪽.
6. 복음 교리, 제5판.(1939년), 139~140쪽.
7. 교리와 성약 84:33~38.
8. 대회 보고, 1957년 4월, 76쪽.
9. 물문서 참조 9:27.
10. 이터서 12:27.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 중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심술궂고 불친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 수 없습니까?



몬 스 회장의 뒤를 잇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은 유머로 가득하시지만 진실한 마음 또한 가득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보다 부드럽고 친절할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요즈음 저는 이것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토록 많은 증오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앗아 가고 많은 부상자를 내는 끔찍한 전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시기, 교만, 거만함, 트집성 비판이 있습니다.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는 아버지들이 아내들을 울리고 자녀들을 두렵게 합니다.

인종 갈등이 여전히 그 추악한 고개를 쳐듭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바로 이곳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벌 회장님에게 주어진 1978년의 계시를 우리 모두가 기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때에 저도 성전에 함께 있었습니다. 계시된 내용이 주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점에 대해 제 마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종 비방과 모욕적인 말이 우리 사이에서 때때로 들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에 관해 헐뜯는 말을 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이 자신은 신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의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내내 저는 우리가 보는 사회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양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교회의 신권에는 인종적 중요성을 위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제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 중 누구라도 그런 증오심에 빠지려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때때로 자신이 제안한 사항들을 대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어느 날 그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첫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났다고 적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이해심 많아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직후에 그의 재정 상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취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직장에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고 그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입니다. 또한 그녀는 비슷한 길을 따르고 있는 두 남자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아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을 일하는 반면, 본인들은 일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이는 매우 완강한 말입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데려감을 입기까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

“모든 자녀는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들 생계 유지를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라.”(교리와 성약 83:2, 4)

교회의 초창기부터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기를 거부하는 남자는 좋은 회원으로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다툼과 증오와 괴로움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악마의 소행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개별적



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강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이 교회가 조직될 때부터 그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올리버 카우드리를 보았을 때 그는 온 땅을 뒤흔들 권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영의 영향력으로 간증을 할 때 그보다 더 강한 간증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국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권능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 그는 데릴라 무릎 위의 삼손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니고 있던 권능과 간증을 잃었으며, 결국 교회 회원으로 죽기는 했지만, 육신으로 있는 동안 다시는 전과 같은 충만함을 지니지 못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05쪽)

우리 지역 사회에서 성장한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는 다른 종교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랄 때 자신의 후기 성도 친구 몇이 그를 업신여기고, 소외감을 느끼게 했으며, 그

를 놀려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와 교회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좋은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친이 직장을 잃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열일곱 살이 되자 새로 이사간 곳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으며, 그 중 리차드라는 이름의 한 친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에 데리고 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와 함께하고 싶어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모임에 들었습니다. … 정말 좋은 느낌이, 친구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친구를 가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17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아홉 살 때, 여름 방학 동안 잠깐 일을 하면서 그는 리차드와 숙소를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리차드가 책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경을 읽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적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바꾸고는 자리 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을 망쳤던 책임입니다. 잊으려고 애썼지만 한 주가 지나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매일 밤 그 책을 읽을까? 머리를 맴도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그 책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절대로 만지고 싶지 않다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멈추었던 곳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그리고 미대륙에 나타나신 일에 관해 읽어 주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물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리차드는 그에게 스테이크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날이 왔고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게리 제이 코울먼 장로님이 주 연사였습니다. 대회 동안 그분 또한 [개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리차드는 올라가서 그분과 이야기해 보라며 계속해서 팔을 잡아당겼습



니다. 결국 동의하고 제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은 돌아서서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고 제가 회원이 아니며, 합창단에서 노래하려고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제가 참석해서 기쁘다고 말하고는 음악이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된지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간증을 짧게 들려주고는 몰몬경을 읽어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영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이와 그의 친구가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리차드가 그에게 몰몬경을 건네주며 그 책을 소리 내어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갑자기 성령의 영감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의 신앙은 커졌습니다. 그는 침례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침례를 받아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계속해서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아름다운 후기 성도 여성과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게리 코올먼 장로가 인봉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지만, 이야기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몬 지역 사회에서 그의 어린 친구들이 그를 대했던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다음은 그가 새로 찾은 친구인 리차드가 그를 대했던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경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종과 침례로 이어졌습니다.

친절과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이런 종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심술궂고 불친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 수 없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괴로움과 적개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포함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태복음 6:12, 조성, 마태복음 6:13)

선지자 조셉과 가까웠던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1838년에 조셉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조셉은 미주리에서 투옥되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큰 악행을 인식한 펠프스 형제는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형제님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매우 괴로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 이미 인간으로서 마시기 어려운 쓴 잔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고통의 쓴 잔은 비워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형제님의 고백이 참되고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믿으며, 형제님에게 우정의 바른 손을 내밉니다. 나에게는 지금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의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일요일에 형제님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고,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오소서,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으며,

“처음 친구는 마지막에도 친구입니다”(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976년], 155~156쪽).

형제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조셉이 표현했던 정신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발해야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도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오래된 세상은 강인함을 지닌 사람, 덕을 지닌 사람, 신앙과 의로움을 지닌 사람, 기꺼이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으며 제가 말씀드린 예와 이야기들이 우리 회원들의 대다수가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놀랄 정도로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곳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애쓰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관대합니다. 서로를 강화시

만유의 회복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초대 교회를 회복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현재나 과거에 지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78년, 제일회장단의 말씀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종교적 신념이나 종족,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복리를 위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기에 진정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압니다.”¹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다른 기독교들과 공통되는 여러 가지 신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지, 왜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도

짓는지, 왜 우리의 신념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그러한 행복과 힘을 갖는지 설명해 줍니다.”²

저는 오늘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른 종파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덧붙여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에 대해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이 충만함은 원래 구주의 지상 성역 당시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배교가 있었습니다.

일부 초기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 … 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³

이 배교와 더불어 신권의 열쇠를 잃게 되었고, 구주께서 조직하신 교회의 일부 진귀한 교리들은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침수로써의 침례,⁴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받음,⁵ 각각 별개의 인격체를 지닌 신회의 본질,⁶ 모든 인류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부활하게 됨,⁷ 하늘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속적인 계시,⁸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⁹ 등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기는 암흑 시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도 미리 예견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그들이 자라난 가정의 사랑입니다. 숙녀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한 현재 그들에게 동기를 주는 이상을 삶을 통해 지니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이 행한 엄청난 선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정 많은 활동의 그림자가 전세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래로 손을 뻗쳐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따뜻한 보살핌과 자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식품과 의복, 그리고 필요한 다른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손길을 뻗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회원 자격을 넘어서 세상의 가난에 찌든 국가들에게까지 멀리 미치고 있는 우리의 인도주의적 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의 기여를 통해 홍역이라는 역병이 많은 지역에서 근절되고 있습니다.

빈곤의 수렁에서 수천 명을 지식과 번영의 햇빛 속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영구 교육 기금의 작용을 지켜보십시오.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지상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을 펼치는 이 교회의 선한 분들의 방대한 노력에 관해 여러분께 계속해서 더 상기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끝이 없습니다. 비판적 또는 부정적인 편에 거하지 않도록 합시다.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과 소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매사에 모든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산하여 구속주의 영이 우리로부터 발산되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여호수아서 1:9)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연차 대회 방송에 참석한 멕시코 치와와 회원들

하늘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두리라.”¹⁰ 회복은 이 진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조직한 교회로부터 점진적인 배교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서방 기독교 세계를 개혁할 목적으로 움직인 16세기 운동, 즉 종교 개혁이라 불린 신념을 위해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의 주류로부터 개신교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 종교 개혁자 가운데는 영국 켄트에 있는 에저튼 교회의 교구 목사인 존 레스러프 목사가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존 레스러프의 후손입니다. 1623년 레스러프 목사는 목사직을 사직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공회의 권세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상에 사도의 열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632년에 그는 비합법적으로 독자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망했으며 고아가 된 자녀들은 [성공회(영국 국교)] 감독에게 아버지

를 석방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감독은 레스러프가 영국을 떠나는 조건으로 그의 석방에 동의했습니다. 레스러프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자신의 교회 회원 32명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¹¹

로디아일랜드를 세운 17세기의 목사 로저 윌리엄스는 지상에는 “올바르게 설립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으며 교회의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지닌 사람도 없고, 내가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프로비던스에서 목사직을 계속 수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¹²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조직된 교회에서부터 배교가 일어났다는 것과 잃어버린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던 종교 학자들 가운데 단지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 요한은 시현으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날아 가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¹³질 때를 보았습니다. 이 계시는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우리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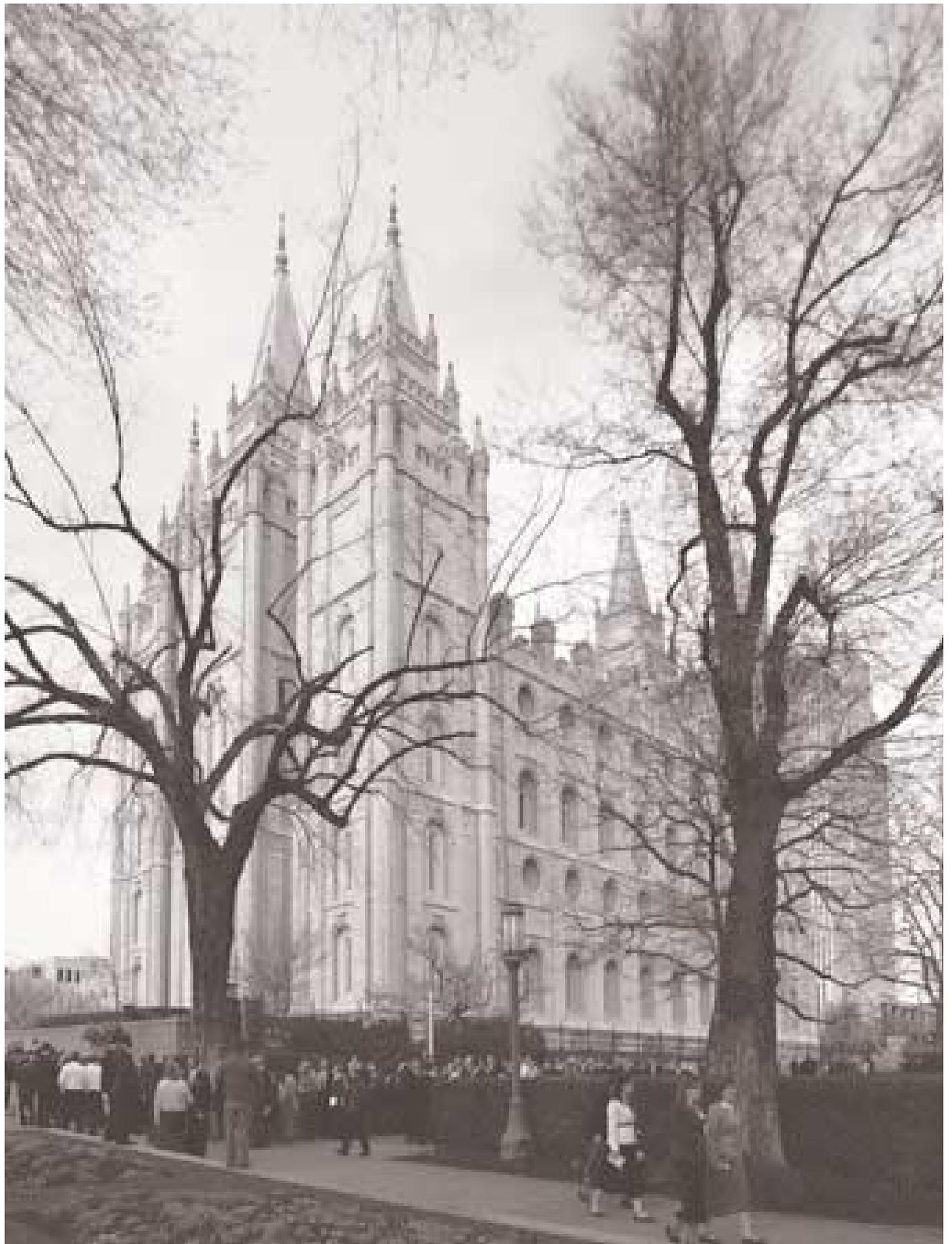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알고 받아들일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현재 회복된 교회에는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말한 대로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¹⁴ 이러한 신권의 직분은 구주께서 절정의 시기에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시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에 두 가지 반차가 있으며 그 안에 직분들이 포함됨을 알고 있습니다. 즉, 소신권은 아론 신권으로, 아론의 이름을 딴 것이며 대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으로,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아론 신권은 1829년 5월 15일에 침례 요한의 손으로, 멜기세덱 신권은 그로부터 한 달이 안 되어 고대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손으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신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장하며, 이 권능은 그 효력이 하늘과 땅에 두루 미칩니다.¹⁵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을 맡겼는데, 이것은 “우리의 후손과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¹⁶는 것입니다. 이 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인봉의 권능을 포함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주었으며 이는 성전 안에서, 즉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¹⁷ 이리하여 이전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쇠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말한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에게 전했습니다.¹⁸

저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 십일조와 헌물의 법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일조의 법을 지킬 때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충실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축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지상의 긴 역사에 걸쳐 성전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제일회장단

2006년 4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에밀 페리



러셀 엠 넬슨



머릴 에이저 욥스



엠 벤틀 벤란드



조셉 비 와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츠토르프



테이버드 에이 베टना

침십인 회장단



윌시 영기



디터드 크리스토퍼슨



제임스 디미언



머릴 제이 베이먼



로버트 시 욥스



널 맥스웰슨



로버트 에이 라슨슨

최심인 제일 정원회



김태호



데이비드 에드워드



세인 영 보웬



몬트 제이 브라프



켈빈 에프 차일드



앤 화이트니 클라비엔



제리 제이 코울먼



스티브 제이 쿨디



진 일 록



벤턴 록



클리프 아 영 포스터



벤jamin 데이 오로스



로버트 케이 켈리버요



존 비 단슨



데이비드 에드워드



크리스토퍼 톨든 이세



윌리엄 에프 근렌스



시 스크트 그로우



브루스 시 워번



도널드 영 홀스트롬



키스 케이 켈리브



리처드 지 잉글리



제이 이 켄슨



빌리엄 케이 켄슨



다니엘 말 존슨



케네스 존슨



폴 데이 존슨



단탈루 플루 카



요시히코 가꾸에



폴 이 칼라커



존 영 매드슨



리처드 제이 메이날드



린 에이 미첨슨



마거스 비 내쉬



데니스 비 노워스킨더



클리프 엘 페이스



앤소니 디 제킨스



폴 비 페이퍼



브루스 디 포터



칼 비 프록



린 지 포핀스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스티븐 이 스노우



윌리엄스 소이렌스



프랜시스코 제이 비나스



린스 비 워크먼



단탈루 코레이크 주앙코



칼 비 프록



마빈 비 아부드



더글러스 월 콜리나스티



크리스티안 에이 카든



크리스티안 시 크리스티안스



셉티미오 디 크리스티안스



돈 일 콜라크



제임스 앤 덴



키스 할 에드워즈



스티븐 지 엘리스



데이비드 에이저 간



디 렉스 제렛



레리 더블류 기브스



로널드 디 할버슨



스티븐서 데이 존슨



고영웅



제임스 윈 핀드



클라트 더블류 에스크 이세



데이비드 이 밀러



로버트 에프 오펜



윌리엄 더블류 핀리



블로강 에이저 풀



윌리엄 에스 피타슨



에이저 브러언 리차드



앙 모레드 송조



더블루 더글러스 워케이



포우먼 영 스노우



도널드 엘 스티발러



로버트 일 스투어



데이비드 일 스톨



에이저 브루스 슈투키



폴 케이 시브로스키



윌리엄 일 웨커



로버트 케이 웨튼



리처드 에이저 권랄



로버트 에스 우드



에이저 토스 워크먼

감리 감독단



리처드 시 에들러
제1포좌



에이저 데이비드 배튼
감리 감독



키스 비 더블린
제2포좌

최심인 제이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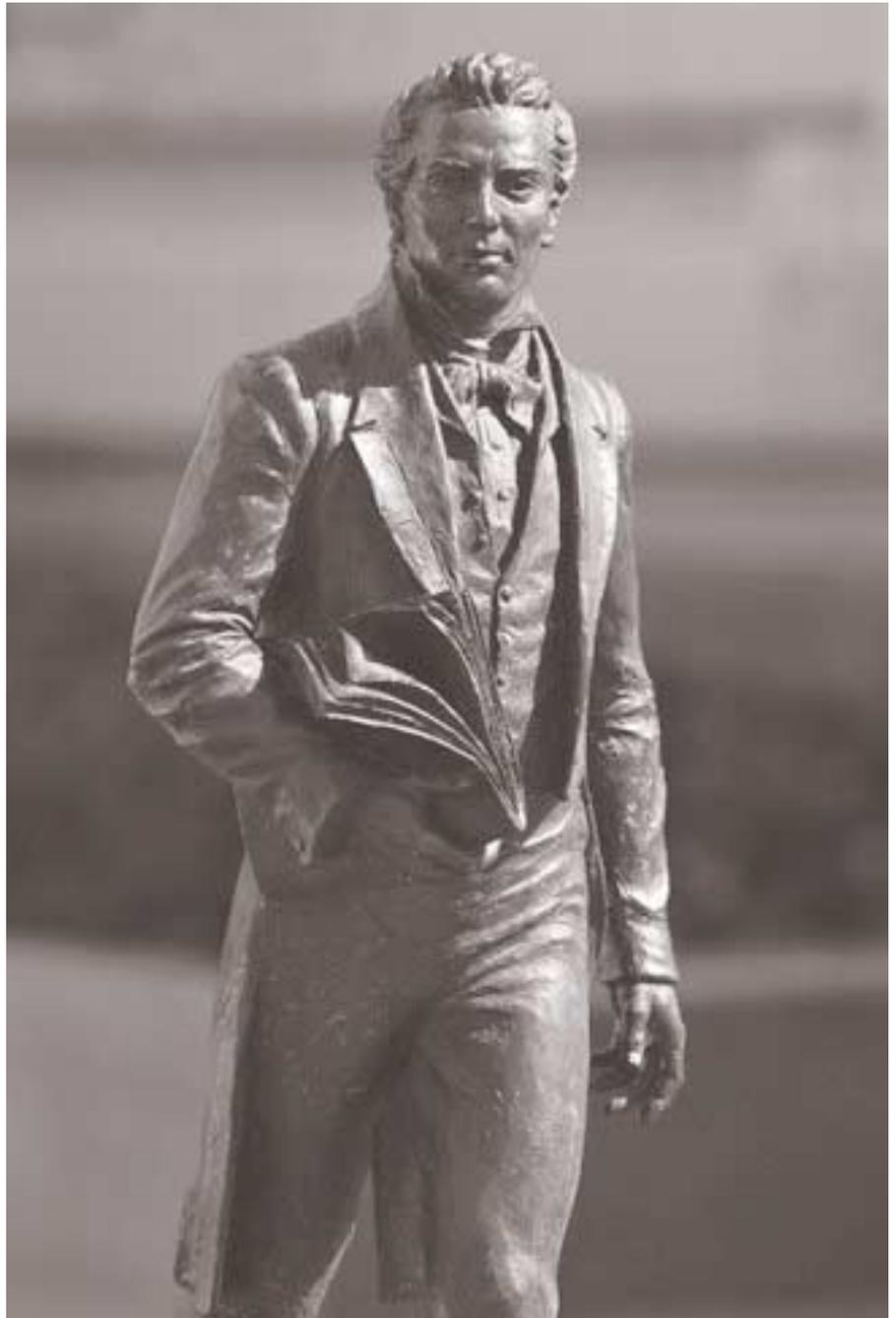


회원들이 대회 방송을 보기 위해 필리핀(맨 위), 우루과이(위쪽), 브라질(왼쪽)에서 도착하고 있다. 한국에서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왼쪽 가운데)

그들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성전은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배움터였으며 그의 생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한 번 성전으로 인한 축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는 성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영원한 의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지상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업이 집행됩니다. 고든 비힝클리 회장님은 이 성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에는 삶에 대한 인간의 질문에 영원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불과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¹⁹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엄숙한 신비는 성전에서 더 충만하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왔으며,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성약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약들은 신권의 권세로 인봉됩니다. 그러한 인봉을 통해 얻은 자녀들은 합당할 경우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말과 같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²⁰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사업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²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살아 있거나 죽은 모든 인류가 이 지상에서, 또는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²² 이것이 우리가 죽은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의 선택이나 선택의지도 빼앗지 않습니다. 대리 의식의 집



행을 받은 수혜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현에서 복음 회복의 일환으로 천사가 지상에 올 때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모로나이였으며,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고대 기록이 들어있는 금판이 묻힌 장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 후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판들을 번역했으며, 몰몬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세기 전 미대륙에 살았던 두 민족에 관한 기록입니다. 몰몬경이 나

오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몰몬경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 속죄, 부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회복 이전에 하늘은 수세기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다시 한 번 있게 된 선지자 및 사도들과 더불어 하늘이 시현과 계시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온 많은 계시들이 교리와 성약으로 알려진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신권



구조에 관한 값진 자료로, 여러 원리와 의식들에 관한 더 깊은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값진 진주라는 또 하나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어진 모세서와 구매를 통해 얻은 이집트 두루마리에서 번역한 아브라함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 우리는 모세, 아브라함, 예녹 및 다른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창조에 관해서도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태초 아담의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²³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초대 교회를 회복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²⁴ 되셨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지만 이로 인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른 자녀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우월감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더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는,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축복하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1978년에 제일회장단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우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과 같은 철학자를 포함하여 마호메트, 공자, 종교 개혁

자들과 같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일부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계몽하고 개인들의 이해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덕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²⁵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지한 종교적인 신념을 존중하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교리에 대해 똑같은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성약, 가르침, 그리고 권세의 참됨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평생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만한 복음의 회복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 속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평안과 염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1. “Statement of the First Presidency regarding God’s Love for All Mankind,” 1978년 2월 15일.
2. 대회 보고, 1995년 4월, 112쪽; 또는 *Ensign*, 1995년 5월호, 84쪽.
3. 데살로니가후서 2:3.
4. 마가복음 1:9~10 참조.
5. 사도행전 8:14~17; 19:3~6 참조.
6. 마태복음 3:17; 사도행전 7:55;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7. 사도행전 24:15.
8. 다니엘 2:28; 아모스 3:7; 교리와 성약 121:26 참조.
9. 오바다 1:21; 말라기 4:6; 고린도전서 15:29; 요한계시록 7:15 참조.
10. 사도행전 3:20~21.
11. 마크 이 피터슨, *The Great Prologue*(1975년), 34~35쪽 참조.
12. 요한계시록 14:6.
13. 에베소서 4:11 참조.
14. 제임스 이 탈매지, *The Articles of Faith*, 제12판.(1924년), 204쪽.
15. 교리와 성약 110:12.
16. 교리와 성약 110:13~16.
17. 에베소서 1:10.
18. “Why These Temples?” *Templ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1999년), 14쪽.
19. 요한계시록 7:13, 15.
20. 모세서 1:39.
21. 고린도전서 15:29.
22. 모세서 5:58; 8:19; 아브라함서 2:10~11 참조.
23. 에베소서 2:20.
24. 제일회장단 성명, 1978년 2월 15일.

고쳐야 하는 부서진 것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나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을 알고 계심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장엄한 산상수훈에서 하신 첫 말씀은 고통받는 자, 실망한 자, 낙담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¹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수천명을 막론하고 저는 개인적인 시련이나 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께, 외로운 마음의 참호 속에서 싸우며 갈등을 견디고 있는 분들께, 그리고 영혼의 쓰나미와 같이 때로는 우리를 휩쓸어버리는 절망의 홍수에 저항하려 애쓰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히 자신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감미로운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주신 말씀에 나옵니다. 그분은 성역을 시작하실 때와 마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과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²

이 약속의 첫 부분, 즉 “내게로 오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화평과 안식의 열쇠입니다. 실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신대륙의 니파인들을 위해 성전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³

안드레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 듣고 심히 감동하여 무리를 떠나시는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아시고는 돌아서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계시

오니까?” 라고 하자 그리스도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은 다른 제자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⁴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똑같은 권유로서 공식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⁵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우리의 의무와 기본 요건은 예수께서 베루신 지상에서의 성역도중 곳곳에서 하신 이 간단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서 배워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 그런 후 너희가 나의 길을 걷는다면, 너희가 가고 있는 길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근심에 대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를 어둠에서 인도해 낼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너희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고 안전해질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가거나, 물문경에서 야곱이 말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행복”⁶을 찾기 위한 다른 그 어떤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끊임없는 초대에 응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까? 경전에 여러 가지 예와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인 우리 마음의 소망과 함께 옵니다. 엘마의 말과 같이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마음 속의 “작은 자리궤” 내주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⁷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삶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주어질 것들을 단순하게 바라는⁸ 신앙의 “분자”만을 갖고 오로지 믿는 간단한 이 방법은 예전부터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원리였으며, 언제나까지나 그럴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일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고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개는 기독교인의 어휘 가운데 가장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그분들의 거룩한 도움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분명 우리의 행동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흔히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 지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후 바꿀 수 없는 것은 너그럽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저지되지 않고 구주의 속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받들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복음의 구원 의식에서 성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침례로 시작되고, 성전 성약과 더불어 성찬을 취하는 것 등 부가적인 축복들과 징표로서 우리 생활 전반의 다른 많은 의식들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니파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오늘 아침 우리가 전하

는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 진정한 의도로서 ... 너희가 ... [침례탕에서 성전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은 ... 너희 주 곧 너희 구속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⁹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따르면, 그리스도께 이르는 빛나는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러한 길에는 기도와 금식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명상, 경전을 상고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것”¹⁰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으뜸되는 것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¹¹는 은사인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께로 인도되는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그분께서는 간절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려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며 구하되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¹²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주의 모범으로 더욱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갖는 것

입니다. 때로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역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천국을 너무나 간접적으로 찾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참된 제자가 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손길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데서 오는 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중독이라는 악마 곧 담배, 마약, 도박 또는 파괴적인 현대의 역병인 외설물과 싸우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별 인식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거나 자부심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업 부진 또는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러한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른 단계가 무엇이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점에 있어서 얼마의 간증은 곧 저의 간증입니다. “이는 내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¹³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성품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속죄가 우리에게서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망과 슬픔, 비탄과 낙담의 짐 또한 들어올려 주신다는 것을 간

증드립니다.¹⁴ 그와 같은 도움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더 나아지기 위한 이유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구원을 취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영혼은 힘, 곧 찬송가에서 말하듯이 “[그의] 힘 이상의 힘”¹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¹⁶기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심과 속죄의 무한하신 대가를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나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을 알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분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역경이 무엇이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형제가 아들을 영국으로 선교사로 보내면서 젊은 고든과 이별의 포옹을 한 뒤 슬그머니 쪽지를 쥐어 준 이야기에 항상 감동받습니다. 그 쪽지에는 겨우 다섯 단어로 된 마가복음 5장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Be not afraid, only believe.)”¹⁷는 성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예수께서 겁에 질린 그의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급히 가셨던 그날 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 소리지르자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오라”고 하시니 그의 성격대로 그는 즉시 배에서 내려 험한 바다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동안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물이 튀어 옷을 적었지만 그는 순조롭게 예수께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신앙이 흔들려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을 향하



던 시선이 성난 파도와 불길한 검은 심해로 옮겨지면서 그는 바다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초월하고 모든 낙담과 실망의 해결사이신 주님은 분명 약간 슬퍼하시며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제자를 붙잡고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¹⁸

외롭다면 위안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담했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면 강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심했다면 고침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좁은 길
 피곤한 발걸음에 가쁜 숨 몰아 쉬며
 한 때 사셨던 곳 지나시네
 나사렛 목수

먼지 길 오르내리며
 마을 사람들 지나다니네
 부서진 것들 고치려
 그분 걸 벤치에 놓아 두네

부서진 인형 든 소녀,
 부서진 의자 든 여인,
 부서진 쟁기나 명에 든 남자,
 그들은 말하네, “목수여, 고쳐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부서진 것들
 명에, 쟁기, 의자, 인형

각자 구하던 완전한 모습으로
 고침을 받았네.

오랜 세월 이 언덕 오르며
 무거운 발걸음, 슬픈 눈의
 타버린 영혼들이
 슬픈 목소리로 구주께 갈구하네.

“오, 나사렛 목수여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진 이 마음 고쳐 주소서.
 산산조각난 이 인생, 죽음의 목전에 섰나이다.
 오, 고쳐 주시겠나이까, 목수여.”

기꺼이 도우시는 친절한 그 손
 부서진 우리 삶을 그분의 달콤한 삶으로
 보듬어 안으사, 새로운 창조 일어나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

“산산이 부서진 마음의 [실체]여,
 욕망과 야망과 소망과 신앙을
 완전하게 찌맞추시는
 오 나사렛 목수여!”¹⁹

우리 모두,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께로 나아가 온전하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5:3.
2. 마태복음 11:28~29.
3. 제3니파이 12:3.
4. 요한복음 1:38~39, 43.
5. 마태복음 4:19 참조.
6. 니파이후서 9:43 참조.
8. 엘마서 32:21 참조.
9. 니파이후서 31:13, 17.
10. 교리와 성약 81:5.
11. 모로나이서 7:47, 46, 45.
12.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올리시스”,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Tennyson*(1898년), 89쪽 참조.
13. 엘마서 36:3.
14. 엘마서 7:11~12.
15. “Lord, I Would Follow Thee,” 찬송가, 220장
16. 니파이전서 21:16.
17. 마가복음 5:36.
18. 마태복음 14:27~31.
19. George Blair, “The Carpenter of Nazareth,” Obert C. Tanner에서, *Christ's Ideals for Living*(주일학교 교재, 1955년), 22쪽.

위대한 행복의 계획

얼 시 Ting 장로
칠십인 회장단

하나님은 무한한 속죄를 통해 죄를 극복하고 다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선 지자 야곱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말하여,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 아니하라.”¹

저는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말하여”라는 질문을 제 말씀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앨마는 속죄를 “위대한 행복의 계획”²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알고 있는 아름다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구절을 사용하겠습니다.

언젠가 휴 비 브라운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지 않아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 영혼의 불멸성, 인간과 하나

님간의 관계 같은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우리 각자는 피부 색깔, 신조,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필연코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³

우리 대부분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 서서 이런 질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행복이 있을 수 있는가?”

몰몬경의 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드린다는 기쁨에 찬 말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를 타락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 그의 자비와 은혜여!” “오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공의로우심이어!”⁴

제가 이런 기쁨을 안겨준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 다섯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에게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온전하시며, 하늘에 계시며, 영광 육신과 뼈로 된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경문의 시대에 소년 조셉 스미스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했을 때 밝혀졌으며 후에 이렇게 공표되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르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⁵ 하였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지상에 온 이유가 육신을 얻고, 경험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필멸의 생은 율법이 다스럽니다. 우리가 범법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한 율법을 어기게 되어 공의의 법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

죄와 회개의 필요성은 한 여행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는 등에 커다란 빈 자루를 짊어지고 수시로 범법을 상징하는 돌을 줍습니다. 돌을 등에 진 자루에 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루는 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루는 무거워지고, 그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루를 비우고 돌을 버려야 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속죄를 통해 구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버리고, 복음 의식으로 성약을 맺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면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한한 속죄를 통하여 죄를 극복하고 다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일은 영원한 자비의 율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비는 회개와 속죄의 권능으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속죄의 권능과 완전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공의의 율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비는 뉘우치는 자를 주장하며”⁶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만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⁷라고 앨마는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앰올레크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의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니라.”⁸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범법을 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생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⁹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뵈을 것임이니라.”¹⁰

이브도 이와 유사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 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¹¹

넷째: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두 가지 사망을 낳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두 가지 사망을 겪게 됩니다.

육체적 사망이란 육신으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육체적 사망의 고통을 겪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했습니다.

범법 후 그들은 그 특권을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오직 진심어린 간구와 더불어 신앙과 회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사시고, 우리는 지상에 살며,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흠이 있으며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은 두 가지 사망을 극복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빌린 무덤에 장사되신 후 셋째 날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그리스도의 육신은 영과 다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속죄의 가장 아름다운 일



면이며 실로 행복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보편적인 것이며 온 인류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진리임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조건없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부활한다고 해서 두 번째 사망을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어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공의를 충족시키는 자비를 누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¹²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라.”¹³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¹⁴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서 필멸의 육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분의 지상의 스승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이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불멸의 상태, 즉 육신의 사

망을 극복할 권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속죄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어 지상에 와서 마리아에게서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유혹, 시험, 조롱, 재판 및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막을 권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그 시련들을 감수하셨습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아름다운 말로 이와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모든 것 위에 들어 올리시고자 모든 것 아래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만일 그분이 속죄를 통해 생긴 원리에 따라 자신을 높이시고 승영하지 못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높이 들어올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¹⁵

셋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가장 훌륭한 속성인 온전한 사랑을 집약한 예입니다. 이로써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견딜 수 있는 온갖 고통이 두려움으로 움츠러진 그분의 육신에 쌓였습니다. ... 가장 혹

독한 고통과 감당키 어려운 가장 잔인한 치욕, 그리고 ... 죄의 모든 무게를 모두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 이것이 당시 그분이 맞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¹⁶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¹⁷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회복 또는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가족에게 적용하면 가족이 서로 재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재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재결합을 통해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고 따른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¹⁸

저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간증드리며 속죄, 즉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야곱서 4:12.
2. 앨마서 42:8; 니파이후서 9:13; 앨마서 12:32; 34:9, 16; 41:2; 42:15; 모세서 6:62 참조.
3. 대회 보고, 1967년 4월, 48쪽; 문단 변경.
4. 니파이후서 9:8, 17.
5. 조셉 스미스-역사 1:17.
6. 앨마서 42:23.
7. 앨마서 42:13.
8. 앨마서 34:16.
9. 앨마서 12:32 참조.
10. 모세서 5:10.
11. 모세서 5:11.
12. 앨마서 34:32.
13. 앨마서 34:33.
14. 앨마서 34:34.
15. *The Mediation and Atonement*(1882년), 144~145쪽.
16. Frederic W. Farrar, *The Life of Christ*(1994), 575쪽.
17. 교리와 성약 19:18.
18. 대회 보고, 1994년 4월, 26쪽; 또는 *Ensign*, 1994년 5월, 20쪽.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겼더라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진정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요구됩니다.



생활의 연륜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진정한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경의 위대한 선지자 힐라맨은 그의 조상들을 따라 아들들을 니파이와 리하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그들은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겼”¹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긴다는 이 개념은 참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성장 과정과 달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²

매일 하는 기도와 경전 공부, 계명을 지키고 침례 성약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은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는 일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행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침례를 통해 그의 교회에 들어오는”자들 중 일부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³지는 자가 되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저는 용기 있는 두 분의 연로한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 동부 대도시의 빈민가 한복판에서 한 와드 회원의 아파트를 찾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뒷좌석에서 긴장하고 앉아 있는 동안 카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계셨던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하였고, 마침내 도심의 복잡한 미로를 뚫고 그들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한 회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놀라운 자매님들의 행동과 태도는 지상

우리 인생의 하루 하루를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⁴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세계의 170개 국가에서 성장함에 따라 진정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에게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요구됩니다. 교회의 이러한 확장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개종자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충실한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새로이 알게 된 자들에 대한 이러한 헌신적인, 기억에 남을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자매 선교사 중 한 분은 여든이 다 된 미망인이었고 다른 한 분은 60대의 홀어머니였는데, 그분들은 길을 헤매는 일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같은 와드에서 그와 같은 또 하나의 봉사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이 와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의 경제적 형편이나 교회에서의 경험도 서로 달랐습니다. 교회 경험이 가장 많은 회원들 중 대다수가 바쁜 생활 속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대학생 부부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 어머니가 와드의 새로운 개종자들을 위한 방문 교육 조연자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열의를 다해 아프리카에서 온 두 자매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보살핌은 이 자매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하는 방법과 함께 새 종교에 적응하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범을 통해 그녀는 이 아프리카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새로운 개종자들을 향한 이 방문 교육 조연자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묘사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⁵ 그 젊은 조연자는 방문할 때마다 좋은 느낌과



다정한 도움의 손길과 방문 교육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매들은 다른 자매들과 나눌 방문 교육 메시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가서 즉각적인 도움을 주면서 이들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진정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 여성들을 생각하면 “사랑과 조화로 하나가 된 마음”⁶이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봉사는 바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하고 헌신적인 봉사 외에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겠다고 선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꺼이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⁷

려는 마음이며,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해당됩니다. 배를 만들라는 명을 받은 니파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 백성을 이 물 건너로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보여 줄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할지니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여쭙오되, 주여 어디로 가야 내가 녹일 광석을 찾아, … 연장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⁸

니파이는 주어진 임무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성숙한 영적인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리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되었나니,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가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도다.”⁹ 즉, 니파이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대신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그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며, 또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빈민가에 위치한 그 와드의 온화하고 사랑 많은 감독님에게서 저는 이와 비슷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새로운 개종자들의 수많은 필요 사항에 대해 자포자기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교회에 더 오래 다닌 야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회원들을 격려하여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개종자들이 신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힘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형제들은 성찬을 전달할 때 성찬기를 드는 법과 경건히 무릎을 꿇고 성찬 빵과 물을 축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보

다 경험은 많지만 대부분 나이 어린 형제들은 그들이 축복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성찬 축복 기도를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런 후 모든 형제들이 이 중요한 신권 의식의 성스러운 본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결심과 신앙 안에서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화로 우리의 선교 부름이 아프리카에서의 상당히 힘든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저의 결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저의 자발적인 마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실한 감독님, 헌신적인 자매들과 제가 증언할 수 있듯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는 이 지속적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요청받을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상의 일을 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도 진실로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굳은 결의를 갖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배를 짓던 니파이처럼 위대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 니파이는 자주 산으로 들어갔으며, 주께 자주 기도하였나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게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셨느니라.”¹⁰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기기로 택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사이자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화한 사랑과 확고한 영적 성숙함으로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힐라맨서 3:21.
2. 고린도전서 13:11.
3. 교리와 성약 20:27.
4. 모사이아서 5:15.
5. 메살로니가전서 2:7~8.
6. 모사이아서 18:21.
7. 니파이후서 31:20.
8. 니파이전서 17:8~9.
9. 니파이전서 17:3.
10. 니파이전서 18:3.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과 영향이 보편적인 것임을 거듭 가르칩니다.



지난해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고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순종의 축복이 주어졌고, 대부분은 이 책이 증거하는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이 커졌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배웠지만 그 내용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책에서 얻는 것은 대개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 즉 소망과 배우려는 준비 자세, 그리고 주님의 영을 통해 전해지는 빛에 읽는 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I.

최근 제가 몰몬경을 읽으며 배운 것 중 하나

는 하나님께서 전세계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참으로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리하이는 “주의 권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땅의 모든 주민 위에 있나이다”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니파이전서 1:14)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과 영향이 보편적인 것이며, 지상에 한때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가르칩니다. 다음은 그 책에서 직접 인용한 몇 가지 예입니다.

- “이 속죄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있던 자나, ... 장차 ... 있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것이니라”(모사이야서 4:7).

-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사람의 구속으로 인하여, ...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입는 것이라”(몰몬서 9:13).

- “그가 만인의 고통 ...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의 ... 고통을 겪으심이라 ... 또 그가 이를 겪으심은 부활이 만인에게 임하게 ... 하려 하심이라”(니파이후서 9:21~22)

- “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 아니라.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구원을 거저 주셨으며 ...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후서 26:27~28).

또한 이 책에는 “그의 피는 ...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또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함이라”(모사이야서 3:11)는 구절과, 이와 비슷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아이들을] 대속하여 줌이라”(모사이야서 3:16)는 구절도 있습니다. 속죄의 부활과 깨끗하게 하는 권능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택함 받은 소수만을 구원한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몰몬경의 이런 가르침들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속죄가 보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이해력을 밝혀줍니다.

II.

몰몬경은 우리의 구주에 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 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회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니파이후서 26:33; 앨머서 5:49 참조).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권하십니다.” 우리는 “남자나 여자”란 말을 이해합니다. 또한 모든 인종을 의미하는 “검거나 회거나”라는 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자유의 반대인 **매인**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벗어나기 어려운 것에 속박되는(묶이는) 것입니다. **매인**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고통으로 제한받는 사람들과 어떤 물질이나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매인**다는 것은 분명히 범죄로 투옥된, 즉 몰몬경이 가르쳐 주는 “지옥의 사슬”(앨머서 5:7)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전통이나 관습을 계속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마태복음 15:3~6; 마가복음 7:7~9; 교리와 성약 74:4~7; 93:39 참조). 마지막으로 **매인**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생각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잡힌 자를 놓아주”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¹ 구주께서는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그분은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III.

모든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몰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참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하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좇아 능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어야 하느니라”(니파이후서 26:13).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리라는 이 약속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신 약속임을 유의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선교 사업이 허용된 모든 나라와, 심지어는 과거에

기독교와 연관된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께서 무신론의 공산주의 손아귀에서 최근에 벗어난 러시아의 남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여러 경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몰몬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기사를 읽는 동안, 두 명의 러시아 남자는 우리 교회의 집회소를 찾아 보아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명 모두 선교사들을 만났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²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 사는 의사는 절친한 친구가 회중을 향해 연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어느 일요일 친구가 사는 마을까지 갔으며, 그곳에서 꿈에 나온 것과 똑같은 장면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꿈에 친구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와드라 불리는 회중이 나왔고, 친구는 그들의 감독이었습니다. 계속 방문하면서 들은 내용에 감명되어, 그와 아내는 토론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달 후에 이 부부가 사는 마을에 있던 주민들 30명 이상이 또한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의 진료소는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북부 인도에서 만난 한 사람은 구두 가게에 걸린 달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볼 때까지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의 인도로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멀리 떨어진 대학가를 방문하는 동안 그는 “BYU 영 엠베서더스”라는 미국인 공연 그룹의 홍보 전단을 보았습니다. 그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을 때, 어떤 내면의 음성이 공연 후에 로비로 가면 푸른색 블레이저를 입은 사람이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몰몬경을 받아 읽게 되었고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선교사, 또한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태국의 한 소녀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마음 속으로 자주 그분께 기도하고 상의했습니다. 이십 대 초반에 그녀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들의 가르침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기억해 온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개인적인 느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침례를 받아 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겨우 5퍼센트의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가족은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열한 살 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남자들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멈춰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소년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간을 구하러 오셨어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소년과 그 가족을 찾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재 소년의 아버지는 선교부 회장단 보좌입니다.

작년 6월, 식구가 다섯인 어느 가족이 몽골의 신축 예배당의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문을 지나 들어왔을 때, “강력한 힘이 그의 몸을 관통했고” 그것은 전에 경험한 적 없는 평화의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이 놀라운 느낌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시 느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곧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 습니다.³

이러한 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수천 가지가 더 있습니다.

IV.

몰몬경은 또한 위대한 창조주께서 “만인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려 ... 만인을 위하여” (니파이후서 9:5)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구세주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만일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앙과 회개와 침례를 포함하여 그분께서 규정하신 조건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들의 성취는 우리의 소망과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느니라”(니파이후서 9:21).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길을 마련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몰몬경의 마지막 장에서 모로나이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32)

V.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지상의 온 “족속”과 “나라”가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는지 말해 줍니다(창세기 12:3; 22:18 참조). 아브라함의 성약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큰 축복의 문을 열어 줍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라디아서 3:29; 아브라함서 2:10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몰몬경은 “회개하고 그의 아들을 믿으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여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약의 백성”(니파이후서 30:2)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재물, 혈통이나 그 어떤 출생에 따른 특권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이보다 낫다”(앨마서 5:54; 야곱서 3:9 참조)고 믿어서는 안 되는 점을 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참으로 몰몬

경은 “너희는 한 육체를 다른 육체보다 높게 여기지 말지니, 곧 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모사이아서 23:7)고 명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일부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신명기 28:25), “모든 민족 중에서”(37절) 또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64절) 흩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몰몬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땅 위에 또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니파이전서 22:3)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 가르침을 확증시켜 줍니다.

몰몬경은 우리 구주의 지상에서의 성역이 어떻게 그분의 흩어진 양떼 모두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을 더해 줍니다. 우리가 현재 중동이라 부르는 곳에서 행하신 구주의 성역과 더불어, 몰몬경에는 그분께서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을 방문하고 가르쳐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제3니파이 11~12 참조). 이곳에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루살렘 땅에 들지 아니한 다른 무리를 방문하라고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반복해 말씀하십니다(요한복음 10:16 참조).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제3니파이 16:2) 다른 사람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세기 전에 예언된 대로(니파이후서 29:12 참조) 구주께서는 미대륙에서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이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에게 [자신을] 보이라 [가며]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는 친히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십니까”(제3니파이 17:4)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몬경은 주님께서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국민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니파이전서 13:42).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니파이를 통해 “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만인을 창조 하였음과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내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다스리며,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가져다 준다



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니파이후서 29:7).

이와 유사하게 선지자 엘마는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써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엘마서 29:8)라고 가르쳤습니다.

VI.

주님은 자신을 모든 나라에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록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희는 두 민족의 증거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이

기억한다는 증거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 한즉 내가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나니 ...

“이는 ...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로 기록하게 함이니 ...

“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일 때,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일요, 내가 또한 니파이인들에게 말할 것일 때,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일요, 내가 또한 내가 인도해 낸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들에게 말할 것일 때,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일요, 내가 또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말할 것일 때,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일라”(니파이후서 29:8, 11~12; 니파이전서 13:38~39 참조).

나아가 몰몬경은 이들 모든 무리들이 다른 무리들의 기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니파이후서 29:13 참조).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영감 받은 가르침들을 결국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다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이라 부르는 이들을 방문하셨던 기사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그분의 계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을 예시해 줍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타날 때, 즉 예언에 따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몰몬경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러한 새 기록들을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니파이후서 29:3~10 참조). 주님께서는 몰몬경의 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말을 하였다 하여 또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나의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아니 하였음으로, 사람의 종말의 때까지도 나의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일 때”(니파이후서 29:9).

참으로 복음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 즉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유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진리가 땅에서 나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택한 자들이 “땅의 사방에서”(모세서 7:62) 집합하는 예언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주님의 성약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몰몬경 표제지). 그분과 그분의 사명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History of the Church*, 2:229.
2. Gary Browning, *Russia and the Restored Gospel*, Deseret Book, 1997, 200~201, 220~221쪽 참조.
3. 마지막 세 가지 예는 태국, 캄보디아, 몽골의 선교부 회장들이 전해 준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저는 이 안식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라는 저의 간증을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제 나이에 이르면 때때로 잠시 멈추어 인생에서 지금의 위치로 자신을 이끌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이기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방법으로 쓰고자 합니다. 교회 회장의 삶은 참으로 교회 전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장에게 사생활은 거의 없고 비밀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 말씀은 이전의 교회 연차 대회에서 들었던 그 어느 말씀과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

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큰 수술을 치렀습니다. 95년 동안의 제 인생에서 병원에서 환자로 있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장드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제 주치의에 따르면 아직은 후유증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96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주님께서 제게 풍성히 부여하셨던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진로에서 여러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들 중 어떤 것은 부와 번영을 노래하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주님의 도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선택들을 살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구가 떠오르는데,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ward Connery Lathem 편집 [1969년], 105쪽)

저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누가복음 12:31)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처음 지지된 것은 48년 전 4월의 연차 대회에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의 모든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200번 이상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의 주요 주제는 이 위대한 후일의 사업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67년 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동반자가 2년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가 그립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뛰어난 여성으로 한 세기의 삼분의 이 이상을 완전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켜 보며 저는 경이와 놀라움을 느낍니다. 저의 결혼 생활을 포함해서 일어났던 모든 좋은 일들은 교회에서의 활동 덕분입니다.

저는 며칠 전 저녁에 교회에서의 제 활동 때문에 제게 경의를 표했던 단체들과 조직들의 다 채워지지 않은 목록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당수의 미국 대통령들이 교회 회장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제가 몰몬경을 전하는 사진이 제 사무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제 책꽂이에는 부시 대통령이 제게 준 자유의 메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백악관에 갔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수상들 및 대사들을 영접하고 교제를 해왔는데, 그중에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및 해롤드 맥밀란 수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부터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회장님들을 알고 지냈으며 그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총관리 역원들을 알고 지냈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온 많은 책들과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1951년에서 1954년 사이에 띄엄띄엄 기록한 오래된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보좌로 있었고 아직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지 않

았습니다.

이 오래된 일지를 읽어 나가면서, 주님의 친절함을 통해 제가 어떻게 제일회장단 전원 및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신 분들을 매우 친밀하게 또 잘 알게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상했습니다.

교회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53년 3월 11일-맥케이 회장님이 선교부 회장들을 위한 4월 연차 대회 프로그램에 대해 나와 함께 의논했다.”

“3월 19일, 목요일-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은 내가 형제 한 분을 지정하여 토요일 저녁 선교사 대회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라고 내게 부탁했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님이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이 그 일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 26일, 목요일-맥케이 회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농부가 넓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가 일하기에 그 땅은 너무 넓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들을 불러 땅을 경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밭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라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농장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들 모두의 수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맥케이 회장님은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리차즈 회장님은 건강이 나빴지만 맥케이 회장님은 그의 기여와 우정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겼다.”

“1953년 4월 3일, 금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관리 역원들 및 선교부 회장들과 성전 모임에 참석했다. 30명 이상의 선교부 회장들이 참석했다. 모두 더 많은 선교사를 원한다. 모두가 큰 발전을 하고 있다.”

“4월 14일, 화요일-사무실로 리차즈 회장님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피곤하고 쇠약해 보이신다. 주님께서 훌륭한 목적을 위



해 그분을 지켜오셨다는 느낌이 든다.”

“1953년 4월 20일, 월요일-십이사도 평의회는 헨리 디 모일 장로님과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1953년 7월 15일-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인 앨버트 이 보엔 장로님이 일년 이상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또 한 명의 내 친구가 떠나갔다. ... 나는 그를 잘 알았다. 현명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서두르라고 결코 재촉할 수도 없었고 결코 급하지도 않았다. 지극히 신중했고, 비범한 지혜와 크고 단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이는 현명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들은 내 친구들이었다. 내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교회의 훌륭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왔다가 떠나는 것을 보아 왔다. 그들 대부분과 나는 함께 일했고 친밀하게 가까이 알고 지냈다. 시간은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운다. 오 년이 지나면 메릴, 윌소, 보웬과 같은 강력한 인물들의 이름은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것이다. 사람은 매일 자신의 일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고, 가족이 그를 기억할 수 있음을, 그가 주님께 중요할 수 있음을, 그러나 그밖에 또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는 그의 공적이 작아질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지는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과 가졌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그것을 읽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또한 지상에 있는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걸었고, 제 사랑과 관심, 신앙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지상의 많은 곳에서 온, 특권과 덕망을 지닌 남녀들과 교제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 제가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제가 겨우 열한 살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는 제가 전에 결코 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도 결코 보지 못했던 분에게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문서, 예언적인 문서입니다. 개인적이어서 광범위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축복문에 이러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지상의 나라들이 그대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대가 나누게 될 놀라운 간증에 의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리라.”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에서 해임되었을 때, 저는 유럽 대륙을 잠시 여행했습니다. 저는 이미 런던에서 간증을 전했으며, 베를린에서 그렇게 했고 다시 파리에서, 나중에는 워싱턴 D.C.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여러 큰 수도에서 간증을 전했으니 제 축복의 그 부분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성취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대륙과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이 넓은 세상을 북에서 남으로 오르내리고 또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며, 케이프 타운에서 스톡홀름, 모스크바에서 도쿄로 또 몬트리올까지, 세상의 모든 주요 수도에서 제 음성을 높여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지난 해 저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물문경을 다시 읽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참으로 무수히 많은 분들이 그 권고에 응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1841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IV:461)

이 말씀이 참됨을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주목할 만한 어떤 일이 이 교회의 회원들에게 분명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병원 대기실에 있는 동안, 그리고 다른 많은 상황에서 몰몬경을 읽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믿고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리는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벨라드 장로님과 함께 버몬트 주에 있는 그의 출생지에 있는 동안 이 커다란 컨퍼런스 센터는 후기 성도들로 가득 찼고, 위성 전송을 통해 이 위대한 후일의 사업을 행한 사랑하는 선지자 조셉에 대한 찬사의 말이 전세계로 전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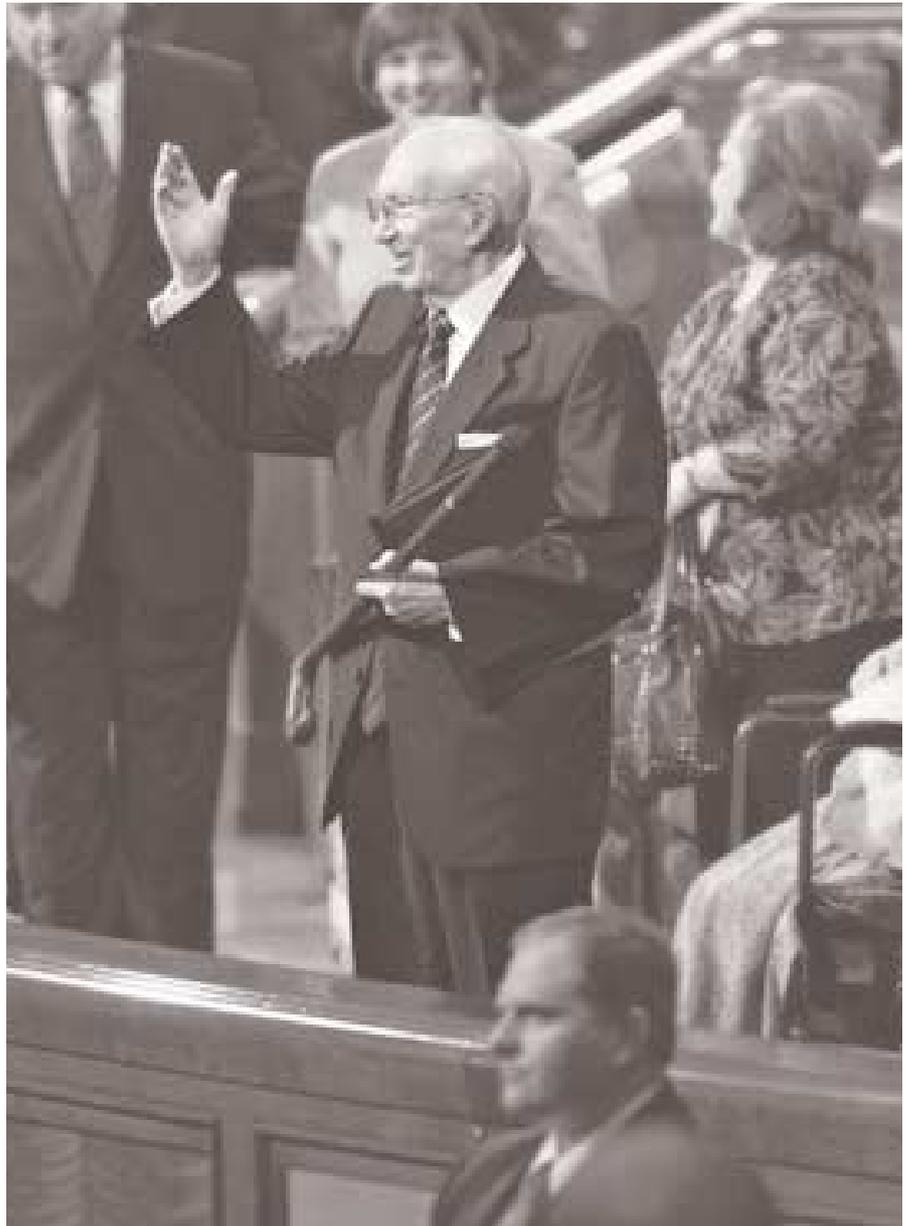
이런 말씀을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다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직무 덕분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를 반복하겠습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을 사망 기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10월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이 안식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라는 저의 간증을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팔마이라의 숲 속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시현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재였습니다. 그것은 환한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그 소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위의 공중에서 계신 두 분을 보았습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연차 회의의 한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니다. 그는 두 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이신 우주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장막을 열고 이 마지막이요 최후의 경륜의 시대인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몰몬경은 그것이 표명하는 대로 고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며, 그들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

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세상에 나왔습니다.(몰몬경 표제지)

신권은 침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영생과 관련된 모든 열쇠와 권세가 이 교회에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구속주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 교회는 참됩니다.

저의 간증과 증거와 여러분 모두에 대한 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듭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는 양 무릎에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감사하다는 것은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깃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압도되는 느낌을 받습니. 어떻게 그것을 견디셨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 그러나 저는 그분께 감사드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그분을 사랑합니.

저는 또한 선지자 조셉의 출생지에서 핑클

리 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회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본질이나 그분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몰랐을 것입니. 우리 존재의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거나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선지자 조셉에게 나타나신 그 놀라운 첫 번째 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 우리는, 오늘날 선지자이신 고든 비 핑클리 회장님에 의해 인도된다는, 위안이 되는 확신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 성경이 귀중하고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몰몬경과 후일의 다른 경전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효력이 있는 신권 의식의 축복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 회개의 조건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회복의 실재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 우리는 성신을 끊임없이 동반하지 못했을 것입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생활에서 얼

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감싸며, 그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크나큰 변화를” 경험합니. (앨마서 5:14 참조) 우리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 선지자 앨마가 적었듯이,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코자” (앨마서 5:26) 함을 느끼게 됩니.

앨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참으로 내가 아래와 같은 음성으로, 각 영혼에게 회개와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앨마서 29:1~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 우리에게 그토록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 우리가 이를 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를 망설이고 있습니.

세상 곳곳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복음을 나눌 때 간증에 바탕을 둔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손수 표시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선교사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갖고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고 있습니. 그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사용하여,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자신의 말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맞도록 토론을 더 잘 조정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 결과적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입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이 찾고



미국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에서 라이언 니콜라스와 앤지 니콜라스 부부가 네 자녀와 함께 집에서 대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가르치는 과정에 참여할 때 가장 좋은 토론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전에 들어 본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걱정을 잊혀 놓고 대신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그분의 영원한 실재성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과 간증과 감사함으로 동기 부여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일에서 주님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하셨을 때 그들은 그가 “계신 데를 보고 ... 함께 거”했으며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요한복음 1:39) 주님께서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전의 기록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편안함이나 편리함과 관계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늘 그렇듯이 그분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의 훌륭한 메시지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보다 그들을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언행을 통해 직접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 가정은 복음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격식을 차린 토론을 갖지 않고도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자체가 공과가 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발산되는 영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은 우리가 가정으로 데려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간증은 더 강해지고 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향상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울 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2:3 참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의 사랑에 담긴 구속의 권능을 느끼도록 도울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교리와 성약 18:14~16) 부모와 자녀 모두의 간증과 신앙이 커질 때 우리 가족은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인도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영적 복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시대에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앨마서 6:6) 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부모로 구성된 가족이 있는 전통적인 가정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은 그들 숙소의 벽을 세상적인 것들



대신 영적인 추구를 반영하는 사진들로 장식할 때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로한 부부들과 독신 회원들은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교회 참석을 권유하며 그들 가정을 방문할 때 복음을 나누는 가정의 좋은 예가 됩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은 이웃집 아이들이 와서 놀기에 좋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과 가족을 교회와 가정의 밤, 그리고 다른 활동에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가정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방문하는 십대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거나 그 가족과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은 매우 평범합니다. 그 가정은 항상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거나 자녀들이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분명히 사랑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는 곳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복음을 나누는 가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친구들과 이웃을 계

속 가족 활동과 교회 활동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을 이런 활동을 함께 하도록 초대할 때, 그들 또한 영을 느낄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복음을 함께 나누려는 친구들을 만나고 우의를 다지는 데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 생활로 들어올 것이며,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밝힐 경우, 별로 오해를 살 위험 없이 서로의 관계에 쉽게 복음 토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구와 친지들은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은 편안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은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한 결과로 인해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느냐의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회와 책임은 돌보고, 나누고, 간증하고, 초대하고, 그런 다음 개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관계없이 회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는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들과 보람 있는 관계를 갖게 되며, 계속 그들과 우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는 단순히 전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이 복음을 나눌 경험과 기회를 갖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받은 느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리진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20여년 전에 저는 성공적인 회원 선교 사업의 열쇠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낱씨를 정하고 선교사와 만날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신앙을 행사한 회원들에게서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마음 속에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낱씨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의 양을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자매는 성공의 비결에 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기쁨을 나눌 뿐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사람이 교회 회원인 것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만일 제가 줄을 서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경우, 일요일에 교회 모임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장 동료가 ‘주말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물을 때,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합니다.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고, 성도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과 나눕니다.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가족 평의회와 토론의 화젯거리가 됩니다. 한 충실한 가족은 각 가족 구성원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함께 의논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의 고등학교 코치가 교회로 기증품을 보냈는데, 그는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팀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히자고 말한 이 청소년의 용기가 그에게 감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들이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목격할 영과 태도로 인해 교회로 들어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책자나 DVD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성찬식에서 말하는 것을 듣거나 가족 일원의 침례식에 참석하거나 집회소를 둘러보라는 권유 또한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표를 통해 볼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친구들에게 성찬식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와드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또 와드 선교 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교회 부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방문자들을 환영하고 참여시키며, 새로운 회원들과 우정을 증진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들에게 일일 계획서를 보여 달라고 부탁해 그들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가정의 영은 우리의 예배당, 공과 교실, 활동실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간단한 일들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행할 경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어 복음을 배울 준비가 된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에게 나아오게 하는 그분의 사명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 필요한 동기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금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보다 큰 신앙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지금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전세계 곳곳에 흥미로운 봉사 임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감을 통해 도전적인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젊은 형제와 자매 그리고 헌신적인 부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젊은이로서 혹은 부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해 전임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해 오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그것은 혼란을 평화로, 슬픔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인생에서 계속되는 어려움

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교 사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매우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와 그 지도서에 맞게 개발된 자료들입니다.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영에 의해 가르치는 것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이 새로운 선교사 토론은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각 선교부 회장은 새로운 자료를 구현하는 방법을 주의 깊게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선교사들에게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능력을 지닌 대단히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선교부 회장들이 계십니다.

전세계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개념들을 공부하고 적용함으로써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구원의 계획과 기타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우리의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합당성의 표준을 높인 것은 널리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 임지에서는 더 헌신적인 봉사, 더욱 강한 동반자 관계, 훨씬 더 효과적인 가르침, 그리고 개종자 보유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 관리 업무에 주어진 전반적인 지침은 유례없는 것입니다. 지역 회장단, 칠십인 정원회의 일곱 명의 회장들, 십이사도 정원회



브라질에서 대회 방송에 참석한 선교사들

그리고 제일회장단의 개인적이며 집중된 관심을 통해 선교 사업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 흥미로운 봉사 임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감을 통해 각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추어 도전적인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젊은 형제와 자매 그리고 헌신적인 부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처럼 흥미진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쁩니다.

엠펙셀 벨라드 장로님께서 복음을 나누는 가정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로이건 자매 선교사이건 혹은 부부 선교사이건,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선교사 연령이 되기 오래 전, 가정에서 부모가 모든 어린 소년의 마음과 정신에 “선교 사업을 나가느냐”가 아니라 “언제 나가느냐”라는 개념을 심어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가르침이 각 자녀의 연령과 능력에 맞추어질 수 있는 가정에서 복음 진리를 가장 잘 배웁니다. 가정에서 진리의 전신갑주는 각 자녀의 개인적인 성품에 따라 맞추어집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들을 삶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고 합당한 젊은 형제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기쁨에 대해 준비시켜 줍니다. 가정에서 어린 소녀는 자신의 주된 역할은 아내

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가 시작되더라도 최근에 주어진 제일회장단의 권고를 따르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봉사할 능력이 있는 21세 이상의 합당한 독신 자매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자매 선교사들은 선교 임지에서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봉사하라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독님들은 결혼 연령의 자매들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¹

많은 부모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자녀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간증이 커지면서 결실을 맺게 될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여러분은 장래의 신권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신성한 성전 의식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이 강건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훗날의 축복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일부는 젊은 자매로서 여러분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준비

시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한 토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미나리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청년 혹은 청년으로서 인생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토대를 놓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종교교육원 프로그램과 세 곳에 있는 브리검영 대학교에는 선교사 봉사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담겨 있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효과적인 자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부름 받을 때를 대비해 미리 시작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선교사, 지도자, 회원과 부모들에 대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의 힘과 효과는 이제까지 거의 백만 부가 배부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 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며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독 또는 지부 회장으로서 동기를 부여하는 접점을 통해 여러분 와드의 모든 청년과, 적절할 경우 부부들이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비 선교사들을 축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의 소망을 심어주려는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임 선교 사업을 할 것인지 아직 결심하지 못한 채 장성해 가는 아들을 가진 많은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 메리 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를 거치면서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선교사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의 힘들었던 기회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했으며,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의 토대를 놓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지는 그녀의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연령이 다가오자, 대학에서의 즐거운 경험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딸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감독님께 이야

기해 보라는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날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훌륭한 감독님 앞에 앉았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제가 전임 선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해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그 말은 선교 사업을 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메리 리는 스페인에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사로 봉사했고, 숨겨진 능력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성숙시켰으며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녀를 축복해 왔던 능력들을 꽃피우게 했습니다. 제 딸의 인생에 이처럼 심오한 영향을 미쳤던 그 감독님은 제이 월라드 메리어트 이세 형제이며, 현재는 지역 칠십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분이 우리 딸 메리 리를 위해 했던 일로 인해 그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한 선교사인 부모의 강력한 모범이 있는 그녀 자신의 가족 중에서, 한 아들과 한 딸이 모범적인 선교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남아있는 아들도 분명히 선교사가 될 것이며, 막내 딸도 때가 되면 적절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한 명의 손자가 최근 새로운 멕시코 쿠에르나바카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

다. 감독 및 지부 회장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격려하고 준비시키는 선교사들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의 삶에 또한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름 받기에 합당한 많은 선교사들을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신권 정원회 지도자와 고문, 대제사, 장로,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을 돕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선교 사업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추천을 받은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봉사하기 위해 더욱 잘 준비되고 더욱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임지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예비 선교사들이 준비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반면, 몇몇은 자격을 받기 위해 그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들 부모의 도움으로 그들이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



우주십시오.

저는 성신이 각 선교사와 부부 선교사의 특성과 필요 사항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의 매우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돕는지 보며 번번이 놀라곤 합니다. 저는 가장 강하고 유능한 장로와 자매들 중 일부가 교회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로 부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독특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들, 예를 들어 태평양 제도, 몽골, 또는 가테말라 고지의 문화에 적응하거나 선교부 회장과 개인의 개인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곳에서 봉사한 선교사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개인적인 능력을 대단히 잘 키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명예로운 전임 선교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제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께 마음에서 우러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그 당시 아버지는 회원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저활동이었습니다. 훗날 저의 선교 사업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강하고 헌신적인 회원이 되셨으며 성전에서 부친은 인봉자로, 모친은 의식 봉사자로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젊은 수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구애 기간 중 중요한 시기에, 그녀는 오직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적절한 동기를 부여 받은 저는 우루과이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개인적인 발전에 디딤돌이 되었던 많은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여 지상에서 진리 및 신권 권능과 참된 교회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훌륭한 선지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필수적인 교리를 배웠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수많은 밤에 제 동반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일어나 제 마음을 주님께 쏟으며 인도와 지시를 구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 제 간증과 제가 배우고 있는 진리를 스페인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래의 제 영원한 동반자 지닌은 그녀의 선교 사업을 통해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특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선교 임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 받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나 소중한 가족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 모든 능력을 향상시켜 준 직업상의 드문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영원토록 감사드릴 봉사의 기회가 되었던 성스러운 부름들도 분명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값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이토록 열심히 청남 여러분 모두에게 합당한 전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모든 원숙한 부부들에게 건강이 허락한다면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께 봉사하도록 권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일부 젊은 자매들에게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이 곧 있을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격려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가정은 제가 봉사하는 동안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했던 아내요 어머니로 인해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전임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젊은이라면, 자신의 지혜만으로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감독님, 또는 스테이크 회장님의 권고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달라고 기도를 통해 간구하십시오. 선교 사업이 현재와 인생 내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합당하고 권능을 받은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절차라도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선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기로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교회와 복음의 충만함이 유례없이 중요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의 인도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행복과 풍성한 축복의 근원이 됨을 간증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일 회장단 권고 사항, 미공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시온

데이비드 알 스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바벨론의 기준과 관습과 윤리 표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시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와 내내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를 여행하며 그곳에 있는 올드 글로브 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관람했습니다. 저희 딸 캐롤린이 이 연극에 등장하는 세 명의 마녀 중 하나로 출연했기에 우리는 그 공연을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딸의 연기를 보는 것도 물론 즐거웠지만, 그 아이가 다음의 유명한 대사를 읊던 극적인 순간에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내 엄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니, 무언가 사악한 것이 이리로 온다”(4막 1장, 40~41행)

그 대사를 들었을 때 저는 악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대비하도록 해 주는 조기

경고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악은 우리가 조기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저는 차를 몰고 전국을 횡단하던 어느 날 밤 매우 큰 도시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언덕 위에서 지평선을 따라 펼쳐진 밝은 불빛들을 보았을 때 저는 살며시 아내를 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성을 보라!”

물론 오늘날 바벨론을 상징하는 특정 도시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세속적이고 퇴폐적이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었던 주요 건물은 우리가 종종 벨 또는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짓 신을 위해 지어진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속성, 타락, 퇴폐, 그리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일은 전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걸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낡아져 바벨론 곧 무너질 대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교리와 성약 1:16)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형상을 지닌 신을 따르면서 옛 바

벨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은 인기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시온.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비치는 빛으로서 이 얼마나 밝고 빛나는 문구입니까! 바벨론이 더욱 널리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그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도처에서 바벨론을 봅니다.

바벨론이 영역을 넓혀가는 이때 우리는 그 가운데 시온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사악한 영향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와 시대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 주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바다에 둘러싸인 참된 하나님의 섬 같았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표면상 시대와 장소에 따른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선지자와 제사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 신앙을 찾아다녔으며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성행하는 문화에 끊임 없는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활한 문화 한 가운데에 살고 있는지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 독일인들이 시대 정신(zeitgeist)이라고 명명한 사회의 기풍,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와 장소의 문화를 따르면서 스스로가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저는 10곳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대 문화와 행동 양식의 영향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너무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의



정중한 언어가 다른 곳에서는 혐오스럽게 여겨 집니다.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기만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사물을 보는 자신의 관점이 그 사물의 실체라고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먹고 입는 것, 예절 바른 행동, 즐겨야 할 스포츠, 좋아해야 할 음악, 교육의 중요성, 정직에 대한 우리의 자세 등을 결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남성

들에게 오락이 중요한가, 종교가 중요한가에, 여성에게는 직업이 우선인가, 자녀 양육이 우선인가의 문제에 영향을 주며, 우리의 생식과 도덕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의 문화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같습니다.

그곳에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

대 사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이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교리와 성약 84:44) 사람들의 시대의 문화입니다. 만약 이 문화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든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맨해튼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서 저는 이 성전을 헌납하기 전부터 자주 그곳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주한 뉴욕 거리의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 속에서 해의 왕국실에 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대도시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이처럼 경건하고 고요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바로 성전의 설계 양식에 있습니다. 그 성전은 현존하는 건물 벽 안에 지어졌으며 성전 내부 벽은 외부 벽과 단지 몇몇 접촉 부위에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시온)이 바벨론, 또는 바깥 세상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시온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 경, 바벨론에서 온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했으며 주님의 백성을 데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 중 젊은이 몇 명을 택하여 특별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들에게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네 명의 소년들이 처한 곤란한 처지를 명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정복자의 힘에 의해 끌려왔으며 자신들의 생사



권을 지닌 왕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다니엘과 그의 형제들은 바벨론 문화에서는 옳다고 믿지만, 그들이 믿기에는 잘못된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이 충성심과 용기에 대해 주님은 축복을 주셨으며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디다 ...”(다니엘 1:17)

우리는 종종 우리 문화에 매혹되어 바벨론인들의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 라고 말한 시인 위즈워스의 말과 같습니다.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Late and Soon,” in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 [1924년], 353쪽).

요한은 첫 번째 서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한 1서 2:14~15)

우리는 바벨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시온이라는 특정한 지리적인 장소로(적어도 지금

당장) 대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가운데서 시온을 건설하고자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기준과 관습과 윤리 표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시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음악, 문학, 춤, 영화, 언어에 있어 우리만의 표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장과 행실, 예절과 존중에 대해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덕적인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으며 대중 매체를 적절히 조절하여 가정에 바벨론의 영향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우리는 시온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문화의 파도가 실 새 없이 우리의 해안으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필요할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용기에 관한 이야기, 불가능한 시련에 맞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용기는 우리의 모든 덕의 근본이요, 기초이며, 용기가 부족할 경우 우리가 가진 모든 다른 미덕은 감소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시온을 세워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 용감한 행동을 할 것이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소년 시절에 그런 상상을 해 보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저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냈다고 상상했습니다. 또는 무시무시한 적들과의 위험한 대결에서 용감하게 맞서 이겼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 시절의 상상입니다!

근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만약 그런 영웅적 기회가 만에 하나 오게 되더라도 극히 드물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압박으로, 심지어 친구들까지 시대의 우상 숭배를 부추길 때, 올바른 것을 위해 맞설 기회는 훨씬 더 자주 옵니다. 그러한 행동을 촬영하는 사진사나 신문 일면의 기사를 낼 기사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양심의 조용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용기의 시

힘에 맞섰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시온이나, 바벨론이나?

속지 마십시오. 전부는 아니더라도 바벨론의 대부분은 사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고하는 엄지손가락들의 떨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는 계속 우리의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시온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 세상의 도시라면, 시온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주님은 시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의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워질 수 없나니"(교리와 성약 105:5) "무릇 시온은 이것이니-마음이 청결한 자라"(교리와 성약 97:21).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도시에 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의 왕국의 원리에 따라 우리만의 시온을 세울 수 있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아름다우며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시온과 마찬가지로 피난과 보호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장소에 관련된 문화의 손 안에 든 꼭두각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시온이라 불릴 것이며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벨론의 맹공격에 저항할 힘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 시온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시온"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온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곳이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온 안에서, 그리고 시온으로부터 빛나는 밝은 빛이 비칠 것이고, 그분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평화의 도구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증오에 찬 고정관념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제게는 매주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생각하기도 전에 말하도록 권유 받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하고, 신중한 대답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조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무대이건 국제 무대이건, 개인적인 관계에서건 정치적인 관계에서건, 집에서나 공공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목청을 높여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부주의 해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화를 돋구는 일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몰몬경에서 레이 맨은 분노를 충동질하고 화를 돋구며, 살인을² 부추기도록 속삭이는 하나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몰몬경 속에서 우리는 화를 부채질하고 충동을 야기시키는 미혹되고 사악한 인간들을 누차 보게 됩니다. 모로나이 대장 시절에 배도자 아멜리카이이는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고무시켜 니파이인들에 대적하[도록 했습니다.]"³ 앰물론과 노아 왕의 사악한 제사들, 니히, 코리호어, 배도자 조렘(이러한 불명예스런 사람들은 몰몬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은 불신을 조장하고, 논쟁을 부채질하며, 증오심을 심화시킨 선동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이 탄생하실 때와 재림 이전의 시대는 "사악함과 보복의 시대가 될 것이라"⁴고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온 땅에 온전한 진노가 쏟아져 내릴 것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또는 인간의 격렬한 열정 및 격노로 정의됩니다. 전자는 종종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⁶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에서 나오는 것인 반면, 후자의 진노는 "질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 패역함 중에 완강하여"⁷ 진 백성에



게서 나옵니다. 저는 땅이 위의 두 가지 진노를 모두 겪고 있는 것이 두려우며 사약과 비방과 격심한 증오를 날도록 인간의 마음을 부추기는 자들에 의해 대부분의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분노로 제일 먼저 상실되는 것은 진리와 이해력입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⁸ 라고 권고했습니다. 에녹이 말한 바 있듯이, 오직 평강과 공의와 진리만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⁹ 거짓된 친구나 의롭지 못한 교사, 예술가나 연예인, 해설가, 또는 지역 신문 기고가,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는 자, 그 누구 이든지 크나큰 분노를 일으켜서 교묘한 생각과 자애로운 느낌을 방해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물문의 물에서 엘마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질 것을 권고했습니다.¹⁰ 참으로 거

룩한 성약을 맺은 자들로서 우리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증오에 찬 고정관념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개인적이거나 당파적으로, 사업상이나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악한 자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달라 보이는 입장을 이해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까?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한 중요한 정치 철학자에 대해 비평을 썼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와는 분명히 견해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글이 좋았지만 충분할 정도는 아니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것은 그 철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여전히 그 철학자와는 중요

한 견해차가 있었지만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의 신념에서 취약점들뿐만 아니라 장점과 가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훈을 하나 얻었고 이를 그동안 제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해 왔습니다.

앤드류 잭슨 장군은 뉴올리언스 전선을 따라 걸어가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여, 총을 조금 낮추어라.” 저는 우리들 대부분이 “총을” 조금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적이거나 공적인 담화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견해를 잘못 대변하여 상대방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들의 동기나 인격에 대한 부당한 비평은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어디에서든 정직한 자와 현명한 자와 훌륭한 자들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교파와 당파와 종파 가운데에”¹¹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

리가 비방과 고정 관념과 서로 화를 부추기는 문화 속에 있다고 해서 그 빛을 숨기겠습니까?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들을 조롱하고 냉소하는 마음에 빠지기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견해를 모욕하고자 그들의 기를 꺾고 깎아 내립니다. 그것은 리하이의 시현에서 크고 넓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¹²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¹³

조롱과 유사한 것으로 냉소의 정신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결점을 찾아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성실함과 도덕적인 가치를 비웃는 불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사야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담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¹⁴는 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주님께서는 후일의 우리에게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서로 결점 찾기를 그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우리 자신의]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띠니라.”¹⁵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인간 가족에게 증오와 편견, 의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보다 더 유독하고 해로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¹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이 형제들에게 불친절하게 말하도록 유도한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¹⁷ 후일의 왕국이 지닌 위대한 사명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호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 것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는 아닙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이 후일에 계시하신 진리



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¹⁸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고대의 예복에게 우리가 사는 날이 어두움의 날이 되겠지만 또한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진리가 땅에서 내보내어 한 번 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사명에 대해 증거할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홍수와 같이 그 메시지가 세상을 휩쓸어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사방에서 나와 집합할 것입니다.¹⁹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²⁰ 우리는 화를 주고받는 세상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님께서 바울과 몰몬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성내거나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분명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²¹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시대의 선지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편이나 저편으로 갈린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들에 관해 악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파당에 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해서 결코 증오나 악의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 충성하던 그에 상관없이 환난의 시기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²²

후일의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멀리 보지 못하” 여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²³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회복의 위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는 도구였으며, 그분의 백성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을 통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마음 속에 새로이 하며,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의 주님과 함께 극복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8:124, 125, 니파이후서 28:20, 교리와 성약 10:24 참조.
2. 니파이전서 16:37~38 참조.
3. 앨머서 48:1.
4. 모세서 7:46, 60.
5. 교리와 성약 115:6 참조.
6. 모세서 7:33.
7. 모로나아서 9:18~19.
8. 야고보서 1:19~20.
9. 모세서 7:31 참조.
10. 모사아서 18:8~10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3:12, 또한 98:10 참조.
12. 니파이전서 8:26~33; 11:36 참조.
13. 유다서 1:18~19.
14. 이사야 29:20~21.
15. 교리와 성약 88:124, 125.
16. *Sayings of a Saint*, sel. Alice K. Chase(1952년), 30쪽
17. 대회 보고, 1914년 4월, 12쪽.
18. 대회 보고, 1935년 4월, 44쪽.
19. 모세서 7:62 참조.
20. 베드로전서 2:9~10.
21. 고린도전서 13:4~6; 모로나아서 7:45~47.
22. “전쟁과 평화”,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0쪽.
23. 베드로후서 1:8~9.

기도, 신앙 및 가족: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디딤돌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위로와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19 46년의 성탄절 다음날, 유타 주 산타 클라라에서였습니다. 9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성탄절 선물로 받은 새 활과 화살을 들고 집 뒤에 있는 언덕으로 가서 토끼 사냥을 해도 좋은지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망설이셨지만 제가 조른 탓에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날이 어둡기 전에

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언덕 정상에 이르러 활에 화살을 건 다음 연하고 아직 푸른 풀이 자라고 있는 덤불 사이에서 풀을 뜯는 토끼가 눈에 띄기를 바라며 조용히 덤불을 헤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덤불에서 커다란 산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활 시위를 잡아당겨 재빨리 겨냥을 하고 날째게 달아나는 토끼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빛나갔고 토끼는 앞쪽에 있는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살을 찾기 위해 그것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갔습니다. 활과 함께 선물로 받은 화살은 다섯 개 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화살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면 날이 어두워질 것이고, 저는 집에 늦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 곳을 다시 뒤지며 모든 덤불 속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화살을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다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새 화살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화살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떴을 때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눈높이 정도의 덤불 속에서 화살의 채색 깃 일부가 가지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화살을 움켜쥐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하여 날이 어둡기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그분께 도움을 청한 기도였고, ...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신뢰를 갖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리고 순진한 어린이라도 중요한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¹

야고보는 경전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²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열렬하고 성실한 기도는 쌍방향의 대화가 되어 치유하는 샘처럼 그분의 영이 흘러 우리가 겪는 시련, 고난, 아픔 및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³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 놓인 디딤돌 중 하나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⁴

30년 전 뉴질랜드 오지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합니다. 바람이 많은 채텀 제도는 크라이스트처치 동쪽에서 약 800km 떨어진 남태평양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기량 좋은 650명의 주민들은 당시 외롭고 거친 환경에 고립된 채 그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젊고 미숙한 새내기 의사가 주민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세인”이라고 하는 여덟살 난 소년이 멀리 64킬로미터쯤 떨어진 섬 한편에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년은 낚고 녹는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늪을 건너고 해안가를 따라 4개의 병상이 있는 작은 병원으로 급히 수송되었습니다. 소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별로 경험도 없었고 기본 수술 도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상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인은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이 간 두개골 속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응고된 피는 뇌를 압박하여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수술을 해 본 적이 없었지만 즉각 이 섬세한 수술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 소년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혈할 사람들을 찾고, 현혈자와 수혈자의 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낡은 엑스레이 기계는 고장이 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웰링턴의 신경외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후 다시 건 여러 번의 전화를 통해 그 신경외과 의사는 수술 장면을 추측하면서 젊은 의사에게 까다로운 이 수술 과정 전반을 지도했습니다.



세인의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들과 의사의 부인도 기도했습니다.

이 분주한 상황에서 할 일들이 분담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취를 하고, 간호사는 수술 보조역을 맡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 전등을 이용하여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한 첫 번째 절개에서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인의 작은 두개골을 다시 절개하여 출혈의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경 외과 의사에게 다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지시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의 조언은 아주 정확하고 자세했습니다. 여섯 시간에 걸친 불안과 절박감 끝에 수술은 끝났습니다. 뇌로 흘러 들어가는 출혈이 멈추었고,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혼란 끝에 고요한 평온

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자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그들이 누린 축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평생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특히 지난 열두 시간 동안 보혜사께서 임재하신 것에 대해, 필요한 때에 보이지 않는 전문가가 훌륭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의 중대한 시기에 젊고 미숙한 의사가 기적을 이루어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어린 소년의 생명을 구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젊은 의사 닐 허치슨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으며 주님과 신경외과 의사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여건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이스트 코스트베이스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감독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1976년 그날 이후, 처음으로 세인과 그의 아버지를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세인은 전기 기술자인 동시에 자영업자가 되었으며 긴 시간 동안 행한 수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멋진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과 저 세상 사이에 놓인 장막이 얼마나 얇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⁵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제정하신 원리들을 따를 때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의 어려운 정도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발성을 신뢰한다.”⁶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14세의 소년

으로서 ... 조셉 스미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선지자 야고보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선지자의 부름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지시하셨습니다”⁷ 라고 간증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에 귀 기울이기를 더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간단한 부탁을 하는 어린 소년이면, 생명을 위협하는 힘든 과제를 짊어진 의사든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위로와 지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세 번째 디딤돌과 필수적인 요건은 가족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가족은 모

든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직 가족 조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⁹

힝클리 회장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대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 남편을 닮이요, 힘이며, 위안이요, 보호자로 존경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또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크고 중요하며 훌륭한 임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¹⁰

저는 가족의 신성함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 충실함, 존경심과 지지가 약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성스러운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우리를 에워싼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화평과 행복과 보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함께 인봉되어 한 가족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면전에서 돌아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단위이자 매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기도와 신앙, 그리고 가족이라는 디딤돌을 이용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2. 야고보서 1:5~6.
3. 대회 보고, 1976년 10월호, 83쪽, 또는 *Ensign*, 1976년 11월호, 58쪽.
4. 제3니파이 18:20.
5. 모로나에서 7:33.
6.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6쪽.
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3쪽.
8. 대회 보고, 1964년 4월호, 오후 모임 130쪽, 또는 *Improvement Era*, 1964년 6월, 509쪽.
9.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206쪽.
10.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205쪽.

풍성한 삶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풍성한 삶은 생수를 가득 마시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며,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1956년 눈이 내리던 그 날, 해리 디 라이어는 경매에 늦게 참석했고, 쓸 만한 말들은 이미 모두 팔려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높고 지친 몇 마리 말들이었으며, 이들은 한 회사가 사들였습니다.

뉴욕 주의 한 여학교 승마 교사인 해리가 경매장을 나서려던 순간, 그 중 한 마리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잘 돌보지 않아 발에 흉한 상처가 있는, 거세된 회색 수놈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혹사당했음을 말해 주는 중노동용 마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뭔가 끌리는 점이 있어서 80달러에 그 말을 샀습니다.

해리의 자녀들이 그 말을 처음 본 날 눈이 내렸는데, 아이들은 말 등에 눈이 덮였다고 해서 “눈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리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그 말은 유순하고 믿음직한 친구로 탈바꿈했습니다. 차분한 데다 다른 말처럼 날뛰지 않아서 여자아이들이 그 말을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눈사람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자 한 이웃이 해리가 지불했던 두 배의 가격으로 그 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줄곧 그 이웃의 목장을 빠져나와 어떤 때는 인근의 감자 밭에서 서성였으며, 어떤 때는 해리의 집 뒤에 있기도 했습니다. 말이 땅의 경계인 울타리를 뛰어넘은 듯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해리는 그 말이 넘어진 통나무보다 높은 것을 뛰어넘는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웃은 인내심을 잃고는 말을 도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해리의 오랜 꿈은 높이뛰기 선수 말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런대로 성과를 보았지만 최고 수준에 도전하려면 높이뛰기를 위해서 특별히 사육된 혈통 있는 말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혈통 있는 말은 해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주어야 했습니다.

해리가 구입했을 때 여덟 살이었던 그 말은 이미 늙어가고 있었으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뛰고 싶어하는 말의 욕구를 알아채고, 해리는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해리는 어쩌면 이 말이 대회에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해리는 눈사람을 첫 시합에 참가

시켰습니다. 말은 멋진 혈통의 선수 말들 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말의 사육자들이 눈사람을 “벼룩이 득실거리는 회색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해리는 계속해서 눈사람을 다른 시합에 내보냈고, 그 말은 계속 이겼습니다.

관객들은 매번 눈사람을 응원했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말에서 뛰어난 말로 변신할 수 있다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눈사람은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습니다. 눈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책이 쓰여졌습니다.

눈사람이 계속 승리할 때, 그 늙은 말같이 말을 십만 불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리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1958년과 1959년에 눈사람은 “올해의 말”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때 낮은 가격의 입찰자에게 팔렸던, 거세된 이 말은 결국 높이뛰기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¹

많은 사람들에게 눈사람은 말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 숨겨진 채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의 본보기입니다.

저는 각계각층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명인과 보통 사람, 현명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어떤 이는 확고한 내적 평화를 발산했으며, 또 어떤 이는 이겨 내기 힘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역경 속에서도 실망과 절망을 이겨 내는 반면, 어떤 이는 패배한 듯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기쁘게 살며 행복을 발산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몇 가지를 열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을 고무적이고 풍성한 삶으로 바꾼 특성들입니다.

첫째, 그들은 생수를 가득 들이킵니다.

구주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²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필멸의 삶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로 결속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최상의 기쁨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나날을 슬퍼하며 지내라고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슬픔과 암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신앙은 소망과 기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결박의 복음이

아니라 진보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충만히 받아들이면 경이로움이 가득 차고 내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살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⁴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생수를 가득 들이키십시오.

여러분은 용서와 평화, 이해와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생수를 가득 들이키십시오.

풍성한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치상에 앉아서 그들 앞에 놓인 풍요로운 복음에 입만 대고 맙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되 참다운 사랑, 목적, 또는 소망이 없이 건성으로 하며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보고, 가족 기도를 반복하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신의 고매한 기사와 달콤한 성역을 담은 내용보다는 최근 이웃의 소문이나 증권 시장 동향, 좋아하는 TV 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키우십시오. 진지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버리십시오. 거룩함으로 행하시고 계명에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를 가득 들이키십시오.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성은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진수이며, 계명 가운데 으뜸이 됩니다. 구주는 다른 계명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모두 이것에 종속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⁵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기록했습니다.⁶

우리는 종종 간단한 친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비

와 사랑의 모범입니다. 어느 날 여덟 명의 흑인이 나무에 있는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 약 1300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들의 고향, 뉴욕 주 버팔로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었지만, 자신들을 도망치는 노예로 오인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구두가 닳아 빠진 후 양말도 헤어져서 맨발로 걸어 나무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도착하자 선지자는 그들을 집으로 맞이하고 각각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갈 곳이 없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울고 있는 제인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조셉은 “누구든 여기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순 없지” 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에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소녀가 집이 [없다고] 하네요. 이곳이 이 아이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선지자가 순교를 당하고 몇 년이 지난 뒤 개척자와 합류하여 유타까지 긴 여행을 한 후에도 제인은 여전히 “밤중에 잠이 깨어 조셉 형제와 에머 자매를 생각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해 주었는지를 생각한” 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인은 “조셉 스미스는 세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분”⁷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며 ...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을 좀 먹는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좀더 깨끗이 서고 좀더 높이 손을 뻗으십시오! 일을 합시다!”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쁩니다. 남을 돕지 못하는 구실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 구실은 마치 초등



학생이 선생님에게 3월 30일부터 34일까지 결석하겠다는 쪽지를 건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는 헛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기쁨은 보잘것없고 그들의 삶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수전노 누워
있네.*

돈 모으는 일에만 매달렸던,

*지금 그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자 아무도 없고, 관심 있는 자 아무도
없네.”⁹*

우리의 삶에서 비이기적인 사랑과 봉사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 맛보는 축복과 기쁨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¹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걸작으

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환경, 또는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목자로 여겼지만,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셨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노예로 일했지만, 주님은 그를 선전자로 보셨습니다. 몰몬은 병사의 갑옷을 입었지만, 주님은 그를 선지자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땅의 티끌에서 창조된 존재이지만 또한 영원한 세계의 티끌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¹¹

그렇다면 어쩌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늙은 회색 말로 봅니까? 우리 모두에게 위대함의 섬광, 즉 우리의 사랑 많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위대하고 고귀한 대의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거룩함과 힘이 깃든 성소로 만드십시오. 교회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을 배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걸작이 되게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풍성한 삶은 포장된 기성품처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과 슬픔을 겪은 후에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소망과 사랑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고난과 슬픔 속에서 했던 다음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있

습니다. “한겨울 속에서, 마침내 나는 내 안에 정복할 수 없는 여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¹²

풍성한 삶이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전에 시작된 멋진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결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큰 위안 중 하나는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영원의 시각에서 눈 깜박하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이 여정에서 출발점에 있던 종점에 있던 이 생은 한 걸음, 그것도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 지상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끝은 우리 앞에 무한히 펼쳐진 영원한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의 영혼을 지닌 늙고 버림받은 말의 이야기가 말해 주듯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신성하고 위대한 섬광이 있습니다. 노력한다면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풍성한 삶은 생수를 가득 들이키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며, 삶을 걸작으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Rutherford George Montgomery, *Snowman*(1962년) 참조.
2. 요한복음 4:14 참조.
3. *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Clyde J. Williams 편집(1996년), 61쪽.
4. 요한복음 10:10.
5. 마태복음 22:40 참조.
6. 갈라디아서 5:14.
7. Neil K. Newell, “Joseph Smith Moments: Stranger in Nauvoo,” *Church News*, 2005년 12월 31일, 16쪽.
8.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597쪽.
9. In Obert C. Tanner, *Christ's Ideals for Living*(주일학교 교재, 1955년), 266쪽.
10. “Fundamentals of the Church Welfare Plan,” *Church News*, 1946년 3월 2일, 9쪽.
11. 고린도전서 2:9.
12. Albert Camus, in John Bartlett, comp., *Familiar Quotations*, 제16판(1980년), 732쪽.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가 받은 권고를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대회를 마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은 훌륭했고, 기도는 영감에 의한 것이었으며, 말씀과 간증은 우

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우리 영을 고양시켰으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집과 일터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권고를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마의 계략에 맞서 계속해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책임들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부담이 되기보다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친절과 존경심을 갖고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사랑과 간증과 축복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

수잔 더블류 태너
본부 청녀 회장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각자의 작은 행위가 아주 작은 빛을 낼 뿐이더라도 그 행위들이 더해져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였을 때 간단한 십자수 작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빛을 가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실 때 그 빛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라고 하신 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제3니파이 18:24)

니파이인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가정에서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길 바라자, 그분은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조금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씩 축복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성역을 베푸시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도록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베푸신 주님의 성역은 개개인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으며,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를 통해 그분의 빛을 제 가정으로 가져오기 위한 평생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가정 생활은 종종 주목되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는 것이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위한 기가 되는 것보다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빛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과 주목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힐라맨은 자신의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이름을 물려주신 조상들의 선한 일을 행하며, “너희가 자랑하기 위하

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를 위해 참으로 영원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해라”(힐라맨서 5:8)고 가르쳤습니다.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저서 *황폐한 집에서* 젤리비 부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는 그녀의 결점을 “망원경 자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먼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족을 돕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명이 들고 더러운 모습으로 위안을 받으러 오는 자신의 자녀는 돌려보냅니다. 젤리비 부인은 자신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송고해 보이기를 원합니다.(찰스 디킨스, *황폐한 집*, [Penguin Books, Middlesex, England: 1985], 82~87쪽 참조) 우리 중 일부는 가정에서보다는 허리케인의 희생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이고도 영원한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줄] …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디킨스의 인물과는 꽤 대조적인 또 한 명의 문학상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도로시아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 *미들마치의* 여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책의 끝부분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리 없이 행한 사심 없는 선행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녀의 완전한 성품은 …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보여졌지만 그녀의 존재가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퍼졌다. 세상의 선이 증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과 내가 처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이유의 절반은 주목 받지 않는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찾는 이가 없는 무덤에서 잠이 든 사람들 덕분이다.”(조지 엘리엇, *미들마치* [1986], 682쪽)

준비를 위한 이 몇 년 동안 청녀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일터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칭찬, 명예, 상장, 리본, 또는 트로피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단계를 지나 젊은 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상은 현저하게 줄어들습니다. 그러나 매일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수백 가지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며 그리스도처럼 사심 없는 봉사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달리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자신의 가정으로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성장시키고 힘과 빛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또한 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석하게도 종종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14살이었던 어느 아침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화가 나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집을 나선 후 버스 기사에게는 공손하게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자신의 모순된 행동을 깨닫자 저는 크나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잠시 집에 전화를 걸어 사과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으며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그런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서 단 하루라도 다툼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니파이 백성들은 20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누렸습니다.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제4 니파이 1:15~16)

우리 중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가

족이라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 선언문은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우리는 우리 가족이 죄, 분노, 질투와 싸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청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빛을 여러분의 현재의 가정과 가족에게 가져오으로써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고, 외관상 하찮은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동굴에서 발견된 몇몇 작은 개뿔벌레 유충에 관해 읽었습니다. 각 유충은 별로 대단치 않은 소량의 빛만을 스스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마리가 하나씩 동굴을 비추면, 실제로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작은 행위가 아주 작은 빛을 낼 뿐이더라도 그 행위들이 더해져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합창단이 “빛을 발하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의 작은 빛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기쁨은
참 작은 빛이나
주님의 빛을 받아서
해같이 되겠네

주님 말씀대로 내 빛을 숨기지 않으리
모든 사람이 환하게 보는 곳에 두겠네
밝고 맑게 빛을 발하라
밝고 맑게 비추어라.”
(어린이 노래책, 96쪽)

우리는 어린 남동생을 돌보고, 학교 구내 식당에서 여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집안 일을 하고, 싸움을 피하고, 서로의 성공에 대해 기뻐하고, 음식을 서로 대접하며, 아픈 사람을 돌보고, 밤에 부모님의 베개 위에 감사 편지를 올려놓고, 잘못을 용서하고, 간증을 전함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저는 최근에 개종한 열 일곱살의 청년 랄루카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침례식은 무엇보다도 그녀의 온 가족이 참석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 또한 그곳에서 영을 느꼈으며 선교사 토론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아버지는 이 생소한 교회에 자신의 모든 가족을 잃게 되는 것 같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얼마 동안 그 가정에는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랄루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겠다는 침례 성약을 맺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라면 하실 일들을 가정에서 행함으로써 그분의 빛을 치켜 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화평케 하는 자



였습니다. 그녀는 본보기였고, 교사였으며, 또한 치유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가족들이 교회에 관해 더 배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기쁘게도 아버지 또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침례식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이 한동안 같은 집에서 두 개의 심장이 다른 리듬으로 고동치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단합과 사랑 가운데 마음이 함께 맺어져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침례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도와준 선교사들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 다음, 자신들의 가정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며, 치유자요, 교사요, 본보기였던, 결국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데려오는 빛이 된 자신의 딸 랄루카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전세계를 여행하며 보았던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히라맨서 5:36) 빛나는 것을 봅니다. 죄의 암흑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심히

빛났습니다.(히라맨서 5:36)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빛을 원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우리를 뒤덮은 이 암흑의 구름이 걷히겠느냐?”(히라맨서 5:40)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암흑의 구름이 사라졌으며, 그들은 빛, 즉 불기둥으로 둘러싸였고, 성령이 내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히라맨서 5:43~45 참조)

여러분의 빛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더욱 큰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만큼 여러분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 여러분들의 빛나는 얼굴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현재의 힘과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치켜 들어야 하는 빛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애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및 엔사인, 2000년 4월호, 2~3쪽) 우리 각자가 그분의 빛을 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줄리 비 벅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받은 후에는 그 축복을 연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지상에서의 사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청년 여러분의 얼굴에 깃든 하나님의 빛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큰 대회들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척자 여행에서 손수레를 끌 때 그 빛을 보았고, 캠프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게임을 하며 그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빛이 멕시코에서 유타에 이르는 성전 침례당에 있는 소녀들의 얼굴에서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빛에 대한 훌륭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가진 것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딸, 신의 천성과 영원한 운명을 지닌 “고귀한 부모의 자손”¹이기 때문입니다.²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서 하늘 부모로부터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고,³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지상으로 보내졌습니다.⁴

여러분은 현재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인생의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인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받은 후에는 그 축복을 연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지상에서의 사명과 여러분 안에 있는 빛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알기 시작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란 없습니다.⁵ 세상의 혼란스럽고 옳지 않은 메시지가 제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축복을 받은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여 위안을 얻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인기 보다는 영원의 관점에서 좀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 여러분이 준비한 후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나이와 준비된 정도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가 적합

한 시기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감독님과 부모님이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⁶ 축복사의 축복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바라는 시기가 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축복을 받기에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⁷ 때때로 회원들은 자신의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기다리면서 무언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대리침례를 받기 위한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 수 있다면,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자격 또한 갖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겸손해지고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금식과 기도로 자신의 축복을 받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은 잠시나마 영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에는 영원한 목적과 여정이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축복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그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인도하는 영에 따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 집의 자신의 계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계이며 여러분의 가계는 때로 지파라고 부릅니다. 모든 지파는 위대한 축복사인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혈통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다시 말해 그를 통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에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⁸

여러분의 혈통은 “혈연 관계”입니다.⁹ 그것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선지자들의 자녀”¹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소년들¹¹이고 “왕 같은, 택함 받은 세대”¹²라고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살에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그분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선지자들의 직계 후손이라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 나에겐 소중한 유산과 최고의 기회들이 있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더 큰 지식을 지니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¹³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은 주께서 개개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초기에, 많은 회원들은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셉 스미스가 주께 간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계시 중 일부가 현재 교리와 성약에 들어 있습니다. 초기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은 축복사의 축복을 자신만의 성스러운 “개인 경전”¹⁴으로 볼 수 있습니다.¹⁵ 여러분의 축복을 성스럽게 간직해야 하며 직계 가족 외의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사는 여러분 인생의 전개와 상황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 그와 관련된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문에는 저에 대해서 심지어 부모님조차 모르셨던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각각의 축복사의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온 영감 받은 “개인적인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축복은 “따라야 할 별이며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그 축복들은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을 드러내 줍니다.¹⁶

패커 회장님은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 적은 책의 한 [단락]”이라고 표현합니다.¹⁷ 또 몬슨 회장님은 그것을 “빛의 리야호나”라고 부릅니다.¹⁸

축복사의 축복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얻기 위해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특권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축복사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필리핀에서 대회 방송에 참석한 네 명의 청년들

않을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하고 가족을 가지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지시 없이도 복음의 이러한 가르침을 스스로 따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 상담 선생님은 제시엄 성적 결과를 보시고는 제가 대학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사의 축복을 연구했고, 제가 인생의 긴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 간파하고 있었던 저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고 확신을 갖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시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교육, 직업,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또한 가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 우리의 빛을 더욱 발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울 수 없느니라. 보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¹⁹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며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빛을 숨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고귀한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옷을 입어서 “여러분의 빛을 숨기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문신으로 몸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왕족 태생의 딸로서 품위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해치고 중독시키는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경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부도덕한 어떠한 행동을 보거나 참여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고귀한 유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²⁰ 그것들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약속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만약 주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은 이름과 명예와 칭송에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²¹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에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충실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축복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끔 청년들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릴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그분을 믿는 신앙과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속죄의 권능임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생각은 전혀 참되지 않습니다.”²² 우리가 매주 성찬을 들 때, 우리는 더 훌륭해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이라고 부릅니다.²³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고귀한 장자권을 지닐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을 감동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은 회개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친구이며, 영원한 심판관이신 구주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판사로 봉사하도록 성별 받은 분이십니다. 회개는 거대한 지우개와 같아서 영구적인

잉크 얼룩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일입니다.²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²⁵

청녀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자신에게 고귀한 장자의 명분이 있음을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의 축복에 있는 예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할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²⁶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²⁷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Bookcraft, Salt Lake City, Utah: 제2판, 1966년], 589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3. 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4. 아브라함서 3:25; Bible Dictionary, “Election,” 662쪽 참조.
5. “Teaching Children about Patriarchal

Blessings,” *Ensign*, 1987년 10월호, 54쪽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여러분은 [축복사의 축복문을 위해 자녀들을 준비시키십니까, 아니면 그냥 받게 하십니까? ... 저는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몇 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축복문에 대해 이야기해서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회 보고, 영국 맨체스터 지역 대회, 1976년 6월, 23쪽).

6.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149쪽.
7. “Teaching Children about Patriarchal Blessings,” *Ensign*, 1987년 10월호, 54, 55쪽 참조.
8. 창세기 26:4; 아브라함서 2:9 참조.
9. 조셉 필딩 스미스, *Doctrines of Salvation*, 290쪽 참조, 브루스 알 맥공키, 제3권 (1954~1956), 3:248~249쪽 비교.
10. 제3니파이 20:25.
11. “Carry On,” 찬송가(영문) 255번.
12. 베드로전서 2:9.
13. 아브라함서 1:2~3 참조.
14.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149쪽.
15.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년), 113쪽 참조.
16. 대회 보고, 1995년 10월, 81~82쪽; 또는 *Ensign*, 1995년 11월, 63쪽.
17. 보이드 케이 패커, “The Stake Patriarch” *Ensign*, 2002년 11월호, 42쪽.
18. 대회 보고, 1986년 10월, 83쪽; 또는 *Ensign*, 1986년 11월, 67쪽.
19. 제3니파이 12:14~16.
20. 신앙개조 1:13 참조.
21. 신명기 26:17~19 참조.
2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년), 30쪽.
23. 로마서 6:4.
24. *신앙에 충실함*, 185~189쪽 참조.
25. 교리와 성약 58:42.
26. 교리와 성약 115:5.
27. 제3니파이 12:16.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은 그분의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의 모범은 지상에서 선한 쪽으로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상에서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 날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입니다.¹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이며, 놀라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고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훌륭하고 그토록 강인하며 그토록 순수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또래였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게 읊어 주시곤 했던 시 하나가 기억납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일하는지 아니면 노는지 말할 필요가 없지
믿을 수 있는 충실한 지표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
말할 필요가 없지, 그것이 네 얼굴에 나타날
테니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 가까이
생활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지, 네 얼굴에 나타날 테니.²

저는 이 단순한 시를 잊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제 얼굴에 나타나도록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및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고 지켜 왔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성신의 동반하심을 지닐 자격을 갖게 하는 선택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저의 칭찬을 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한] 젊은이들의 세대입니다.”³ 저는 여러분이 가장 큰 어려움과 기회가 있는 지금 지상에 오도록 준비되고 예비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께서 여러분이 의로움을 위한 지도자가 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증인으로 서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⁴ 진실로 여러분은 “미래의 밝게 빛나는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⁵

저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언급한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⁶

그 빛은 구주의 빛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따른 생활에 의해 여러분은 그분의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의 모범은 지상에서 선한 쪽으로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⁷는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외침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움직이라는 외침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외침으로, 품위, 순수함, 단정함,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끌라는 외침입니다. 이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외침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한 명의 의로운 청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답은 소리 높여 말하는 “예!”입니다. 여러분은 안내자로서 성신을 지니고 있으며, 그는 [여러분이] ... 행하여야 할 ...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⁸ 지도자와 모범이 되도록 여러분을 강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일들로서, 매일의 기도, 매일의 경전 공부, 매일의 순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매일의 봉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은 구주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비나디아 그리고 다른 충실한 지도자들처럼,⁹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신앙의 불꽃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습니까?”]¹⁰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1856년, 메리는 13살에 가족과 함께 영국에서 교회에 들어와 미국으로 여행하여 마틴 손수레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역사 기록에 그녀는 여행의 어려움, 즉 아기 남동생과 오빠의 죽음, 끔찍한 자신의 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여동생과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녀가 솔트레이크 계



곡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그녀의 발가락을 절단했지만, 선지자 브리검 영은 더 이상 발을 잘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앉아서 ... 울었다. 발의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한 작고 나이 드신 자매님 한 분이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나는 그분에게 내 발을 보여드렸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 주님이 도와 주신다면 아직은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찜질 약을 만들어 내 발에 붙였으며, 매일 의사가 다녀간 후에 와서 그 찜질 약을 바꾸어 주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발은 깨끗이 나았다.”¹¹

그러나 메리는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지낸 나머지 다리의 인대가 굳어 다리를 곧게 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본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기름으로 마사지해 곧게 펴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메리, 너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냈단다. 벽에 선반을 하나 못박아 놓을 테니 아빠가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선반에 손이 닿도록 노력해 보렴.” 그녀는 며칠 동안 온종일 노력했고, 마침내 선반에 닿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선반을 조금 더 높이 올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석 달 동안 계속되었고 매일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그녀의 다리는 곧게 펴졌고

그녀는 걷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¹²

여러분은 메리 고블처럼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 올려놓은 선반에 조금 더 높이 이르기 위해 배우고 있으며, 또 만일 그러한 이상들이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이 더 높이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아프리카 청녀들의 얼굴은 성신의 환한 빛으로 빛이 납니다. 그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있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영의 인도를 받으며,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 있는 그분의 빛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들 청녀들 중 몇몇은 그들의 간증을 저와 나누기 위해 세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들로 인해 저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청녀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주 예수를 닮으려고.”¹³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노랫말을 불렀을뿐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아와 인도에서 청녀들은 신앙, 단정한 복장 그리고 순수함의 모범입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그들은 행복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스에서 청녀들은 학교에서 진리와 의로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늘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그들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족이나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길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 엔사인피크로 하이킹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솔트레이크 시내와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치렀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각자는 기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들은 세상에게 주는 그들의 메시지, 즉 그들이 이 후일에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의 상장을 기에 미리 그려 넣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각오와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높은 산 언덕 위”¹⁴를 불렀으며, 청소년들은 다 함께 “이스라엘 만세!”를 외쳤습니다.¹⁵ 저는 오늘 그 말을 되풀이하겠습니다. 청녀 여러분 만세! 저는 “여러분의 빛이 ... 비치게 하여 ... [다른 사람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¹⁶ 하는 일에 여러분이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기를 높이 들어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인도할 때, 이사야서에 있는 “보라 ...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¹⁷라는 이 성구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식별할 수 있는 것이며, “나라들은 [여러분의] 빛으로, 왕들은 비취는 [여러분의] 광명으로 나아”¹⁸ 올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할 날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 빛을 발하는 이 젊은 여성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일어나 두 발로 딛고 서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¹⁹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외침은 모로니의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 ... 일어나라. 시온의 딸들아.”²⁰ 그는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이날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 일어설 때, 여러분의 빛은 열국을 위한 기가 될 것이라 믿지만, 또한 여러분의 기가 열국을 위한 빛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의 혈통은 성약과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충실한 이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인 속성을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본성은 여러분의 신성한 유산과 운명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소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성품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성으로 일어설 때 배가 될 것입니다. 구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희망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빛을 나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 가까이 생활할 때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올리비 카우드리, 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2. 작자 미상.
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97), 714쪽 참조.
4. 모사이아서 18:9.
5. 고든 비 힝클리, “Standing Strong and Immovable,”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6. 베드로 전서 2:9.
7. 교리와 성약 115:5.
8. 니파이후서 32:5.
9. 출애굽기 34:30, 모사이아서 13:5, 마태복음 17:1~2 참조.
10. 엘마서 5:14.
11. Eugene England, “Utah, a Centennial Celebration”, *This People*, 1996년 봄호, 21쪽.
12. England, *This People*, 21~22쪽 참조.
13. *어린이 노래책*, 40쪽 참조.
14. *찬송가*, 2쪽 참조.
15. 율슨 에프 휘트니, *Life of Heber C. Kimball*(1945), 266쪽 참조.
16. 마태복음 5:16.
17. 이사야 60:2.
18. 이사야 60:3.
19. 청년 주제, 모사이아서 18:9 또한 참조.
20. 모로나이서 10:31.

여러분의 빛- 열국을 위한 기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발하는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주님께서 오며,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할 때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 늘 저를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며, 함께 자리해 주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청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함께함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은 생애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간증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며, 세상보다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딸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대회的主제는 참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¹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발하는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주님께서 오며,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할 때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의 어둡고 쌀쌀한 어느 날, 열다섯 살의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와 열세 살난 여동생 캐롤라인을 위한 길을 인도했습니다. 때는 1833년으로, 성난 폭도들이 인디펜던스 거리 곳곳에서 소리 지르며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인쇄기를 보관하고 있는 윌리엄 펠프스 형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을 인쇄해 오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은 인쇄기를 부수고 그 잔해를 거리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쇄된 페이지들을 나중에 태우려고 마당에 쌓아 두었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와 캐롤라인은 울타리 옆에 숨어서 이 모든 파괴 행위를 두려움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비록 겁을 먹기는 했지만, 메리의 시선은 그 소중한 페이지들에 못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와 동생은 숨었던 곳에서 달려나가 경전을 주워 모아 도망쳤습니다. 몇몇 폭도들이

그들을 보고는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소녀들은 커다란 옥수수 밭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줄지어 늘어진 키 큰 옥수수들 사이에 계시가 인쇄된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놓고는 그 위에 엎드려 가렸습니다. 무자비한 폭도들이 소녀들을 계속해서 찾으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오기도 했으나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에 더 파괴할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메리와 캐롤라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안전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주님의 빛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자매 여러분, 그 빛은 여러분을 위해 빛나고 있으며, 롤린스 자매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조차 안전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 너희는 …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²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구주에 대한 간증을 키운다면, 롤린스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악에서 떨어져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은 커질 것입니다. 영성을 소중히 하면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싶겠지만, 그러한 결정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내려야 합니다. 나이와 경험, 그리고 신앙에 따라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또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올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문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³

몇 년 전, 저는 잔다르크가 1431년에 화형을 당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상 훌륭한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어린 잔다르크는 복음이 회복되기 오래 전 암흑 시대에 프랑스 군대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기수가 되었습니다. 잔은 그리스도의 빛과 그 속삭임을 따르고 변화



를 일으킬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잔은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시골 소녀였지만, 똑똑했습니다. 영국과의 오랜 전쟁은 나라를 가난에 빠뜨리고 분열시켰습니다. 열일곱 살에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억압받는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집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의 생각을 비웃었고 그녀가 조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말과 호위자를 얻어 왕을 알현하려 갔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왕 샤를 7세는 잔에 관해 듣고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대오 속으로 살며시 가서 자신이 신임하는 측근 한 사람을 왕좌에 앉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잔은 왕좌에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본 채 하고 곧바로 샤를 7세에게로 걸어가서 무릎을 굽혀 인사하며 그가 자신의 왕임을 표했습니다. 크게 감동한 왕은 12,000 명의 군대 지휘권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 프랑스 병사들은 그녀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는 그녀를 지도자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깃발을 휘날리며 1429년, 잔다르크는 포위된 오를레앙

을 해방시켰으며 네 차례의 다른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이나 부상을 당했지만, 그녀는 매번 회복되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군사적 귀재에게서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랭스로 행군하여 샤를의 대관식이 벌어지는 동안 손에 검과 깃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 전투에서 싸우다가 결국 콩피에뉴에서 영국 동맹군에게 생포되었고, 동맹군들은 16,000 프랑을 받고 그녀를 영국에 팔았습니다. 그녀는 투옥되어 이단자로서 재판을 받은 다음 1431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비록 슬픈 결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잔다르크의 위대함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얻을 자격이 있는 개인적인 영감을 따르기 위한 충분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내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⁴

15세기의 다른 소녀들에게 잔다르크는 매우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다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르기를 두려워 말고, 최대한 선해지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많은 소녀들이 친구들의 행동과 옷 입는 스타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한 행동은 또래 그룹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에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친구들이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봅니다. 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성취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소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 북서부에 사는 한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직장으로 가면서 늘 버



대회 방송에 참석한 한국의 청년들

스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통학 버스를 기다리는 몇몇 어린이들 중 한 어린 소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는 심지어 비가 내릴 때도 그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면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으며 열세 살 정도되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입안 가득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제 차의 불빛에 그것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의를 보이려는 그 아이의 노력은 그의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해 주었고 그는 그것을 고대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행킨스였으며, 버스 정류장에 있던 소녀와 같은 나이의 쉐릴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쉐릴은 지역 교회에서 열리는 활동에 참석하겠다고 부모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비키라는 이웃집 소녀가 쉐릴을 초대했습니다. 그 활동은 청년 프로그램의 전신인 상호 향상 모임이었습니다. 쉐릴은 상호 향상 모임을 즐겼고 얼마 후 비키가 물론이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쉐릴은 비키가 두 명의 젊은이, 즉 선교사를 보내어 그 가족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러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해서 그들에게 물문경과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이 새로운 경전들을 읽기 시작했으며 얼마 안 되어 경전들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침내 행킨스 씨는 비키를 만났습니다. 비키는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 차례 보았던 바로 그 미소 짓는 소녀였습니다. 행킨스 씨와 그의 가족 두 명이 침례를 받을 때 비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키와 다른 젊은이들의 행동을 회상하면서 행킨스 형제와 자매는 “선교 사업의 가장 큰 잠재력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행킨스 부부는 그 이후 직접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이 제 공하는 소개와 훌륭한 모범에 의지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미소를 보내던 소녀 비키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⁵

여러분 각자는 설령 미소만 짓더라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키처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햇살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

[다]”⁶고 적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분 청년들도 빛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 처녀에 관한 구세주의 비유에서⁷, 젊은 여인들 각자는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 현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기름, 즉 파는 것이 아닌 영적인 기름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행에 의해서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열 명의 젊은 여인들이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줍니다. 신랑은 기대와는 달리 가장 어두운 시각에 왔습니다. 한밤중이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그들의 기름을 다른 다섯과 나눌 수 없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상 생활에서 한 방울씩 등을 채우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는 순간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작고하신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몇 년 전에 우리를 위한 기름 방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밝게 타오르도록 하는 기



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의 기름은 가족 기도라는 기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밝혀주며, 또 빛나게 하고 유쾌하게 하지만 한밤중에 얻기는 힘듭니다. 한두 방울로는 등이 오랫동안 계속 타오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

“또 다른 형태의 기름은 금식이라는 기름입니다. 마지막 한밤중은 주님의 큰 날에 대비해 우리 생활을 단련하기 시작하기에는 늦습니다.

...

“한밤중에 구할 수 없는 또 다른 기름은 가정 봉사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름입니다. 봉사라는 이 희귀한 기름은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도움의 손길을 빌려줌으로써 축적됩니다. ...

“빈부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 빛은 찬란하고 사용할수록 밝아집니다. 사용할

수록 더 많이 남습니다. 한낮에는 사기가 쉽지만 밤중에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십일조라는 기름입니다.

“너무도 소중하여서 그것을 다른 기름에 더하지 않고는 어떤 심지도 타지 않는 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기름에서 나오는 빛은 희미해지고 꺼질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이라는 기름입니다.”⁸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중 대다수가 물문경을 읽으라는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면서 등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성찬을 취하고 매일 기도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각 자신의 등에 기름을 넣을 때 여러분의 빛은 “열국을 위한 기”가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

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는 주님의 권고가 우리 모두를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이 성취할 큰 기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나타낼 길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소망과 기대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오겠지만,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신앙과 각오가 필요하겠지만, 꾸준함과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⁹ 그것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러한 은사들 중 어떤 것들은 여성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계발할 때, 여러분은 힘과 목적과 고결성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일지라도, 이 거룩한 사업에서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정성된 축복이 훌륭한 젊은 자매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지지해 주고 보살피 주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강화되고 크게 되며, 행복과 성취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15:5.
2. 니파이전서 17:13.
3. 모로나이서 7:18.
4. 교리와 성약 93:2.
5. C. S. Hankins, "The Bus Stop", *New Era*, 1991년 4월호, 26쪽에서 발췌.
6. 조성, 요한계시록 12:1.
7. 마태복음 25:1~13.
8. "Gospel's Rare Oils Difficult to Obtain 'at Midnight,'" *Church News*, 1995년 5월 13일, 14쪽.
9. 베드로후서 1:4 참조.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멜

기세택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대한 다음의 유의 사항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위한 교과 과정 유의 사항,

2005~2008년에 나오는 유의 사항을 대체합니다.

매달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는 모두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리아호나 특집호에 실린 말씀 중에서 가르칩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는 각각 5월과

11월에 발행됩니다. 또한 인터넷 www.lds.org에서도 온라인으로(여러 언어로 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말씀을 사용하여 각 공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신권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의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당 일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한 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구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안

-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임무는 교회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배운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 말씀을 공부하면서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 본다. 또한 여러분이 원리 및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서 원리 및 교리를 찾는다.

- 원리 및 교리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원리 및 교리들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 및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31~32장을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영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복음 원리를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복음대로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교수법 지도서(2001년), 12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의견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메일: cur-development@ldschurch.org ■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6년 5월 ~ 2006년 10월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또는 엔사인에 실린 말씀*

2006년 11월 ~ 2007년 4월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또는 엔사인에 실린 말씀*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에서 온라인으로(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대회 모임 후에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 북 스테이크의 두 회원.

다 음 질문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 이번 연차 대회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론하거나 생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괄호 안의 숫자는 말씀의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이야기 목록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

1.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언제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를 받았는가? 그동안 연차 대회에서 몇 번 정도 말씀을 했는가?(힌트: 81 쪽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찾아본다.)

2. 리야호나는 리하이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

이었나?(힌트: 28쪽에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을 찾아본다.)

3.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재난이 많이 있었다. 교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낸 곳은 어디인가?(힌트: 8쪽의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의 말씀을 찾아본다.)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서 버튼 감독이 언급한 장소들을 찾아본다.

청소년

4.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우리가 타인에게 더욱 친절하며 그들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을 당부했다.(58쪽) 우리는 우리들과 다른 믿음 및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5. 우리 앞에 달려 있는 “마카페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러한 악을 우리 생활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18쪽)

6. 성찬을 취하는 것의 의미에 관해 엘 톰페리 장로가 말씀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39 쪽)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구주에 관한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성찬 찬송의 가사를 읽어 본다.

가정의 밤 또는 개인 공부

7. 조셉 비 위스린 장로는 “풍성한 삶”(99 쪽)을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했다. 이 특징들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활은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 어떻게 풍성하게 되었는가? 가족 구성원이 이런 특성을 발전시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8.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시작할 때 그 끝을 보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42 쪽) 시련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축복을 가져왔던 때를 생각해본다. 시작부터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달리 행동했을 것인가? 이것이 장래의 시련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9.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장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언급했다.(96쪽)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정의 밤에서 이런 경험들을 나누거나 일지에 적어 본다. ■

읽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아래 열거된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대화 말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영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어의 미끼에 관해 설명하는 통가의 교사, 18쪽
- 충실하게 봉사한 구스타프와 마가렛 워커, 18쪽
- 브리검 영의 꿈에 나타나 가르침을 준 조셉 스미스, 28쪽
- 비행기 안에서 아내를 무시한 남편, 36쪽
- 휴양지에서 안식일을 존중한 사람들, 39쪽
- 낡은 자전거를 타고 세탁물을 배달한 어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42쪽
- 회개에 관해 배운 젊은 미망인, 48쪽
- 저활동 회원들에게 말씀을 권유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48쪽
- 성찬의 신성함에 대해 배운 집사들, 50쪽
- 힘겹게 성찬을 축복한 제사, 54쪽
- 죽음이 임박한 병상에서 성찬을 전달한 집사, 54쪽
-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전에 긴 접견을 받은 젊은 시절의 토마스 에스 문슨, 54쪽
- 교회 회원에게서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으나 나중에 개종한 젊은이, 58쪽
- 더블류 더블류 펄프스를 용서한 조셉 스미스, 58쪽
- 돌을 집어서 자루에 넣어 옮기는 것과 같은 죄, 72쪽
-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한 여성을 찾은 연로한 자매 선교사들, 74쪽
- 자신의 꿈에 나타나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친구를 본 나이지리아의 의사, 77쪽
- 인도 북부에 사는 사람의 개종, 77쪽
- 그리스도에 관해 간증하는 캄보디아 소년, 77쪽
- 태국 여성의 개종, 77쪽
- 뉴욕 맨해튼 성전의 고요함, 90쪽
- 잃어버린 화살을 찾기 위해 기도한 어린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96쪽
- 뇌 수술을 실시한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 96쪽
- 후에 우승마가 된 경매에 나온 말, 99쪽
-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과한 수잔 더블류 태너, 103쪽
- 가족에게 모범을 보인 루마니아의 한 청년, 103쪽
- 동상 걸린 발이 결국 치유된 메리 고블, 109쪽
- 초기의 계시가 인쇄된 원고를 구한 롤링스 자매들, 111쪽
- 한 가족의 개종을 도운 청년의 모범, 111쪽

왼쪽: 뉴욕 맨해튼 성전. 아래쪽:
브리검 영 회장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다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제1과정과 청년 교재 1에 있는 공과들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대체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도서를 말한다. 개인 발전은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책자를 말한다. 지도서에 열거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활동의 일부를 공과 시간에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원회 회원 또는 반원들을 격려한다. 공과 추가 제안들은 리아호나 1쪽과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성탄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주의 생애와 사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화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찬송가 사용을 고려해 본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참고 지도서를 찾으려면 www.lds.org로 가서 세계 지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언어를 선택한다. "Liahona"를 클릭한 후, 2006년 5월호를 클릭한다.

영문 참고 지도서들은 www.lds.org 상에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칼럼에서 대부분의 현행 참고 지도서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에 인쇄될 예정이다. 교회 잡지(일부 언어는 인터넷 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 교재 1을 위한 참고 지도서

2006년, 제25~49과에서 사용

제25과: 안식일

제프리 알 홀런드, "청녀들에게",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8쪽. 이야기를 읽는 대신에 안식일 복장에 관한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읽는다.

헬렌 위커 존스, "나는 주일학교를 선택했다", 리아호나, 2006년 2월호, 45쪽. 이 이야기를 활용하여 안식일 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충한다.

제26과: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나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2쪽. 개인적인 간증에 관해 토론하면서 힝클리 회장의 간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토론한다.

엠 러셀 벨라드,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0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 중 하나 대신에 기사에 있는 이야기 중 하나를 활용한다.

제27과: 경전 공부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의 인터뷰",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8쪽. "우리는 경전 안에서 기꺼워함을 배움" 편에 아이어링 장로의 마지막 대답을 포함시킨다.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5년 6월호, 22쪽. 경전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 때의 기본 사항들을 토론하면서 경전 공부 제안들을 활용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경험", 4번.

제28과: 죄에 대항함

리차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쪽. 성구 및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제29과: 재림

델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쪽. 재림의 표적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과: 봉사

제프리 알 홀런드,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6쪽. 봉사의 예로서 기사에 나와 있는 충실한 여성들의 이야기 중 일부를 추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메리 엘런 스무트,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입니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04쪽. 도구가 되는 것에 관한 스무트 자매의 권고를 공과의 "소개: 주님의 도구" 편에 추가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1, 2, 5, 또는 6번.

제31과: 그룹 활동: 현명한 이성 교제의

바탕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은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4년 6월호, 26쪽. 데이트 지침에 관한 김볼 회장의 권고를 패커 회장의 데이트 지침을 사용하여 보충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6번.

제32과: 자제를 통한 개인적 순결

제임스 이 파우스트, "극기의 힘",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2쪽. 극기에 관한 파우스트 회장의 정의를 활용하여 공과를 소개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40쪽. 사례 연구를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홀런드 장로의 세 가지 이유로 대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2번.

제33과: 대중 매체의 지속적인 영향을 피함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7쪽. 외설물에 관한 토론에 옥스 장로의 경고를 포함시킨다.

엠 러셀 벨라드,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6쪽. 부정적인 대중 매체에 반대해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것에 관한 벨라드 장로의 생각을 추가하여 칠판의 한 단을 사용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활동", 셋째 항목

제34과: 합당한 생각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26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교재에 있는 패커 회장의 말씀을 보충한다.

엘 톰 페리, "제자의 신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72쪽. 교재에 있는 패커 회장의 말씀 일부를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한 페리 장로의 이야기로 대체한다.

제35과: 유혹 가운데서 의롭게 생활함

조셉 비 위스틴,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6쪽. 데이트 이야기를 쓰나미 이야기로 대체한다.

리차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쪽. 공과의 "우리는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음" 편에서 스코트 장로가 제시하는 선택에 관해 토론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2번.

제36과: 유덕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중요성

찰스 디디에이,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8쪽. 진리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첫째 성구 토론에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4번.

제37과: 우리의 신체를 돌봄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쪽. 성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육신을 돌보는 것에 관한 패커 회장의 권고를 읽는다.

수잔 더블류 태너, "육신의 신성",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3쪽. 공과 중에 적절한 부분을 활용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활동", 셋째 항목.

제38과: 영양과 지혜의 말씀

보이드 케이 패커,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17쪽. 공과의 둘째 편에 패커 회장의 권고를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활동", 셋째 항목.

제39과: 약의 남용

콜린 위틀리,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41쪽. 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약의 남용으로 오는 결과를 이해해야 함" 편에 포함시킨다.

제40과: 가정에서 건강을 돌봄

리차드 엠 톰니, "먼저 도움", 리아호나, 1999년 11월호, 44쪽. 셸린의 경험들 가운데 일부를 첫 번째 이야기 토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활동", 넷째 항목.

제41과: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리차드 지 스코트,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십시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1쪽. 스코트 장로의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신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됨" 편을 결론짓는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6번.

제42과: 시도하는 용기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공과에 있는 목록을 힝클리 회장의 목록으로 대체하고 토론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구하는 외침",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54쪽. 용기에 관한 몬슨 회장의 정의를 첫 번째 교사 발표에서 활용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4번.

제43과: 의로운 삶

러셀 엠 벨슨,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6쪽. 지금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벨슨 장로의 권고를 공과의 결론 부분에서 토론한다.

엠 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4쪽. 사탄의 왜곡에 관한 벨라드 장로의 설명을 활용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편을 소개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2번.

제44과: 현명한 시간 사용

달린 에이치 옥스, "조점과 우선 순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9쪽. 우선 순위에 관한 옥스 장로의 설명을 "현명한 시간 사용은 영적인 축복과 세속적 축복을 가져다 줌" 편에 포함시킨다.

"시간 관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33쪽. "현명한 시간 사용은 영적인 축복과 세속적 축복을 가져다 줌" 편의 일환으로 목록에 관해 토론한다.

제45과: 일의 가치

조셉 비 위스린,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34쪽. 앤 크리닉의 이야기를 벤 갑슨 박사의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경험", 5번.

제46과: 교육의 목적과 가치

얼 시 텅기, "영원한 패턴을 굳게 세움",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20쪽. 결론의 일부로 교육에 관한 텅기 장로의 권고를 포함시킨다.

존 케이 카머,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리아호나*, 2004년 1월호, 33쪽. 교육에 대한 선지자의 권고에 관한 편에서 영구 교육 기금의 영향을 토론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활동", 둘째 항목.

제47과: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함

캐롤 비 토마스,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6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를 결론짓고 영성이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재능들 가운데 하나라고



간증한다.

제48과: 징검다리로서의 단기 목표

달린 에이치 옥스, "올법의 더 중요한 비",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14쪽. 영원한 목표에 대한 시각을 결코 잃지 말라는 점을 반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옥스 장로의 권고로 공과를 결론 짓는다.

조셉 비 위스린, "한 발 한 발",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7쪽. 공과의 끝에 있는 김볼 회장의 이야기와 더불어 맹인 산악 등반가의 이야기를 나눈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2번.

제49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위임함

조셉 비 위스린, "그분의 모범적인 생애를 통해 인도됨",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34쪽. 성구 퀴즈를 마친 다음, 위임하는 구주의 능력에 관한 위스린 장로의 말씀을 나눈다.

닐 에이 맥스웰, "지혜롭게

순리대로", *리아호나*, 2001년 12월호, 18쪽. 성구 퀴즈에 앞서 모세에 관한 맥스웰 장로의 의견을 활용하여 위임에 관한 또 하나의 실례를 든다.

아론 신권 제1과정을 위한 참고 지도서

2006년, 제25~49과에서 사용

제25과: 용서

고든 비 힝클리, "용서",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1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제26과: 안식일에 선을 행함

얼 시 텅기, "영원한 패턴을 굳게 세움",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20쪽.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하는 것을 고려한다.

"도시오 가와다 형제의 간증", *리아호나*, 2006년 1월호, 38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를 대신하여 가와다 형제의 이야기와 그의 간증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2번.

제27과: 경건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1쪽. 기사를 활용하여 신성한 것에 대한 경건을 설명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경건에 관해 토론한다.

제28과: 여성을 존중함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삶에서의 여성",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2쪽. 공과 중에 보충 자료로 이 기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조셉 비 위스린, "친절의 미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6쪽.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에 관한 편 이전에 친절의 예들을 활용한다.

제29과: 영원한 가족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1쪽. 기사 처음 부분과 가족 선언문에서 나온 인용문을 활용하여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 관한 토론을 보충한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30쪽. 반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토론할 때 "하나님의 소산"이라는 제목 편을 읽는다.

제30과: 구원의 계획

리차드 지 스코트, "회복된 진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78쪽. 공과를 시작할 때 기사를 활용한다. "출생 이전의 생", *리아호나*, 2006년 2월호, 30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5번.

제31과: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

조셉 비 위스린,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8쪽. 기사를 활용하여 우리가 금식의 법을 준수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설명한다.

칼 비 프랫, "올바른 금식에서 오는 축복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7쪽. 공과 중에 보충 자료로서 이 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정원회 활동", 2번.

제32과: 십일조

로버트 디 헤일즈,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쪽.



십일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헤일즈 장로의 설명을 “하나님 왕국의 발전을 도움” 편에 포함시킨다.

제33과: 경전 공부

엘 톰 페리,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쪽. 원형 시간 계획표를 살펴볼 때 희생에 관한 페리 장로의 설명을 추가한다.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의 인터뷰”,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8쪽. 적용 가능한 질문과 대답을 공과 중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가족 활동”, 1번.

제34과: 순종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공과의 “우리 모두는 순종할 수 있음” 편에서 순종에 관한 아이어링 장로의 네 가지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알 콘래드 솔츠, “신앙의 순종”,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공과의 소개부에서 신앙의 순종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정의한다.

제35과: 성찬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6쪽. 세 번째 간증으로 몬슨 회장의 성찬 이야기를 포함시킨다.

러셀 엠 벨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0쪽. 마지막 연구 문제를 질문한 후에 기사에 있는 “성찬 집행” 편을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정원회 활동”, 1번.

제36과: 간증

엠 러셀 벨라드,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0쪽. 청남들에게 간증을 정의하는 벨라드 장로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으로써 퀴즈 활동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이 이 젠슨, “간증을 함”, *리아호나*, 2005년 10월호, 10쪽. 간증을 정의할 때 젠슨 장로의 기사에서 “간증이 아닌 것” 편을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영적인 발전”, 5번.

제37과: 아론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길을 예비함”,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2쪽. “침례 요한” 편에서 침례 요한에 대한 몬슨 회장의 간증을 활용한다.

“신권의 기적”,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26쪽. 기사에 있는 마지막 질문과 대답으로 공과를 결론 짓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정원회 활동”, 4쪽.

제38과: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부름을 영화롭게 함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첫번째 시현의 결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36쪽.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어린 시기에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임무를 완수했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나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신권 안에서 성장함”,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3쪽. 아론 신권에서 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토론할 때 헤이트 장로의

경험을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1번.

제39과: 모범을 통한 선교 사업

토마스 에스 몬슨, “선지자 조셉 스미스 :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7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대체하고 그의 영향과 모범에 대해 토론한다.

엠 러셀 벨라드,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7쪽. 더 나은 모범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벨라드 장로의 세 가지 단계를 요약한 유인물로 공과의 유인물을 대체한다.

제40과: 주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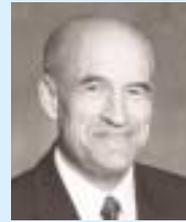
러셀 엠 벨슨, “젊은이들과 성전”, *리아호나*, 2006년 2월호, 10쪽.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 편에 있는 이야기를 “성전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편에 있는 벨슨 장로의 말씀으로 대체한다.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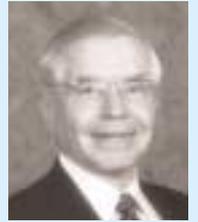
주일 학교



다니엘 케이 주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스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회장



앤 시 핑그리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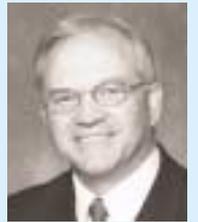
청남



단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마이클 에이 네이더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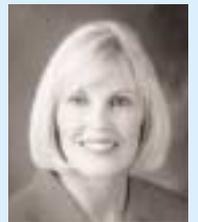
청녀



줄리 비 벡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태너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제2보좌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셰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마쭈모리
제2보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40쪽. 성전의 목적을 소개하면서, 헌터 회장의 기사에 있는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에서 나온 인용문을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10번.

제41과: 도덕적인 순결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9쪽. 성적인 죄에 관해 토론하면서 외설물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경고를 포함시킨다.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40쪽. 개인적인 순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관한 홀런드 장로의 세 가지 이유를 사용하여 공과를 결론 짓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5번.

제42과: 정직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Be Honest.” *New Era*, 2005년, 10월, 4쪽. 정직에 대한 베드나 장로의 정의로 공과를 시작한다.

디 렉스 제렛, “행운을 발견함”,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8쪽. 첫 번째 이야기를 제렛 장로의 경험으로 대체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1번.

제43과: 경전 상고를 위한 도구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의 인터뷰”,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8쪽. 적용 가능한 질문과 대답을 공과 중에 포함시킨다.

“경전 공부 제안”,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29쪽. 공과가 끝날 때 이 제안들을 유인물로 나누어 준다.

제44과: 더 나은 가정 복음 교사가 됨

존 엘 하우어터, “후임 동반자”,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8쪽. 첫 번째 이야기를 이 이야기로 대체하고, 후임 동반자의 영향에 관해 토론한다.

“교사 정원회”, *리아호나*, 2005년 2월호, 44쪽. 더 나은 가정 복음 교사가 되는 방법에 관해 토론하면서 두 번째 질문과 그 대답을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정원회 활동”, 1번.

제45과: 출산의 신성한 힘

브루스 시 하펜, “The Gospel and Romantic Love.” *New Era*, 2002년, 2월, 10쪽. 패커 회장의 말씀에 대해 토론한 후 “Eight Steps to True

Love”를 복습한다.

“출산의 신성한 힘”, *리아호나*, 2005년 6월호, 38쪽. “자신을 명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축복이 됨”에 있는 토론에서 “순종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읽는다.

제46과: 결정을 내림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선택”,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51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 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충하고 대체한다.

엘 톰 페리, “Decisions, Decisions.” *New Era*, 2002년 1월, 40쪽. 실물 공과 후 이 기사를 활용한다.

제47과: 헌납과 희생

스티븐 비 오브스과 디시 랜들 오브스, “개인적인 헌납”, *리아호나*, 2005년 9월호, 16쪽. 사례 연구 중 일부를 기사에 있는 헌납의 예로 대체한다.

일레인 에스 돌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9쪽. 공과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라는 글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나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중한다.

제48과: 침례를 주는 권세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쪽. 헤일즈 장로가 자신이 받은 수술로 어떻게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는 일에서 담대해졌는지를 나눈다.

캐롤 비 토마스, “침례의 영적인 힘”,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8쪽. 침례 성약을 설명한 후에 침례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영향에 관한 토마스 자매의 설명을 나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6번.

제49과: 현명한 시간 활용

러셀 엠 벨슨,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6쪽. 반원들에게 살 날이 일 주일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기 전에, 벨슨 장로가 아내의 예기치 않은 죽음에서 배운 교훈을 나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초점과 우선 순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9쪽. 능률 전문가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관한 옥스 장로의 권고로 보충한다. ■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중계된 연차대회, 새로 부름 받은 칠십인들

96세 생일을 맞게 될 고든 비힝클리 회장은 올해 초에 받은 수술의 여파를 이겨내고 토요일 저녁 및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교회의 제176차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청중들을 축복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대회를 끝내며 말했다. “저의 사랑과 간증과 축복을 여러분께 전하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들 개개인과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힝클리 회장의 말씀은 제일회장단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그리고 다른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함께 위성을 통해 85개 언어로 전세계의 83개국에 있는 5,952개 교회 소유의 수신소로 방송되었다. 대회 말씀은 모임에 따라 최대 61개 언어로 온라인 전송되었다. 대회의 인터넷 방송은 교회 인공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일부 집회소로도 중계되었다.

영어를 포함한 85개 언어는 교회 회원들의 모국어의 98퍼센트에 해당한다. 교회는 2010년까지 10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에피크어, 힐리가이논어, 일로카노어, 링갈라어와 요루바어가 새로운 언어로 추가되었다.

토요일, 새로운 10명의 총관리 직원과 17명의 지역 칠십인이 부름을 받았다.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총관리 직원은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세인 엠보웬, 다니엘 엘 존슨, 마커스 비내쉬, 앤소니 디 퍼킨스이다. 칠십인 제이 정원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새로운 총관리 직원은 크레이그 에이 카든, 돈 알 클라크, 키스 알 에드워즈, 스탠리지 엘리스, 래리 더블류 기본스이다. (신임 총관리 직원에 대한 소개는 124쪽부터임.) 이 외에도 2001년 이래로 칠십인 제이 정원의 일원이었던 키스 케이 힐버그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지명되었다.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25쪽에 있는 약력 참조)

지역 칠십인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파트 타임으로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며 국제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을 지원한다. 부름을 받은 지역 칠십인은 다음과 같다. 호세 엘 알론소, 47세, 멕시코 산니콜라스; 블라디미로 제이 캄페로, 60세,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후안 에이 에체가라이, 61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에르난 아이 에레라, 50세, 칠레 산티아고; 데이비드 제이 호아, 52세, 호주 선베리; 세사르 에이치 후케르, 47세, 페루 리마; 하비에르 이바녜스, 51세, 베네수엘라 산크리스토탈; 다니엘 엠 존스, 53세, 유타 주 시더시티; 스티븐 시 커, 45세, 스



제일회장단의 고든 비힝클리 회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연단에서 내려가고 있다.

코틀랜드 스티어링; 조니 엘 코, 44세, 브라질 발라네아리오감보리우; 다니엘 에이 모레노, 53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켄트 에이치 머독, 58세,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제이 미셸 파야, 61세, 프랑스 무상; 스티븐 디 포시, 58세,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오거스타; 카를로스 에프 리바스,

46세,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후안 엠 로드리게스, 54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카를로스 빌라노바, 43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2006년 5월 1일자로 해임되는 16명의 지역 칠십인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살바도르 아구이레, 호세 시 아레손, 다니엘 피알바레즈,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3월 청년 총회에서 핑클리 회장은 청년들과 청년 지도자들에게 화상으로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주 잘 생활해 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목표를 정립하고, 앞으로 마주칠 유혹이나 반대 세력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결심을 공고히 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나라에 살고 있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자 마음에 신성한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셰인 엠 보웬, 아티르 엠 케사르, 로버트 엠 카우언, 키스 알 에드워즈, 스탠리 지 엘리스, 프란즈 알 가그, 다니엘 엘 존슨, 조 에이치 맥키논, 마커스 비 내쉬, 아르

만도 에이 시에라, 제프리 시 스톤튼, 레무스 지 빌라레테.

대화와 관련된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본문은 www.lds.org/broadcast를 참조한다. ■

모든 회원들에게 전해지는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내용

최 근의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의 전문이 *리아호나* 및 *엔사인* 2006년 6월호에 게재될 예정으로, 이와 같은 훈련 모임의 말씀 전체가 정기 간행물에 실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전체적인 전달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들이 가족을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은 제일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우리 시대를 위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훈련 모임 내용을 전체를 *엔사인*과 *리아호나*에 게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라고 교회 신권부 책임자인 칠십인 정원회의

데일 이 밀러 장로는 말했다. “총 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들의 확인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회원들은 지역 지도자들이 주는 이런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각 말씀은 문서, 오디오, 비디오 형태로 이미 www.lds.org에서 온라인 참조가 가능하며, 제일 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말씀이 게재되어 있다.

방송에서 몬슨 회장은 “가정이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수단도 이를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배워왔듯이, 우리의 생각은 가정과 가족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페리 장로는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진솔한 말씀을 전했다. 그는 고든 비 핑클리 회장이 2003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한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일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여김”,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베드나 장로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날보다 더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이시고, 또한 교회의

신권 및 보조 조직 역원들이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파킨 자매는 부모가 자녀들을 부양하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에 관해 말씀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말씀은 여는 때처럼 DVD 및 책자 형태로 각 단위 조직에 배부될 예정이다. 40개 이상의



2월의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말씀은 2006년 6월호 리아호나와 엔사인에 게재될 예정이다.

언어로 말씀 전문이 온라인 상에 제공된다. 훈련 모임의 말씀은 비디오, 오디오, MP3 파일을 통해 현재 11개 언어로 접할 수 있으며, 60개 이상의 언어로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장로

칠십인



칠 십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스튜어트 백스터 장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생각한다. 1955년 2월 7일, 스코틀랜드 스티링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백스터 장로는 그의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네 명의 어린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던 그의 어머니 엘렌 스티일이 처음으로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집에 임재한 영은 “거의 실체가 있는 듯했다.”

“우리는 즉시 복음을 알아보았습니다.”라고 당시 12살 소년이었던 백스터 장로는 회상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의 식을 주었지요.”

곧이어 그의 가족은 영국 서리로 이사를 했으며, 그곳에서 지부 회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곤 하는 부류에 속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는 또한 장래의 아

내인 다이앤 르위스 자매를 만났다. 두 사람은 상호향상회와 세미나리에 함께 참석했는데, 전교생이 1,200명인 학교에 둘을 포함하여 교회 회원은 오직 다섯 명이 었다.

백스터 장로는 경영 및 경제학으로 웨일스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와 다이앤 자매는 1979년 2월 24일에 영국 런던 성전에서 결혼하여 영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네 자녀를 키웠다. 백스터 장로는 여러 국제적인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보좌, 스테이크 종교교육원 책임자 및 공보 책임자, 감독으로 봉사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지역 칠십인으로서 유럽서 지역에서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백스터 장로는 힘들었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가족을 들어올려 주었다고 말한다. “인생의 모든 불공평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구주의 속죄에서 오는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며, 들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

세인 엠 보웬 장로

칠십인



세인 마텔 보웬 장로는 “복음의 모든 축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과 “홍콩한 가족이라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부름에 대해 자신을 준비시켜 주었다고 말한다. “저는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보웬 장로의 아내인 리넷 모텐슨 자매는 “제가 아는 한 남편은 항상 완전히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녀와 일곱 자녀들은 그의 변함없고 성실한 성품을 감사히 여긴다. 보웬 자매는 그들이 1976년 12월 28일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결혼한 것도 남편이 순종한 덕분이라고 말한다. 보웬 장로의 부친이 아들더러 리넷 자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도록 조언을 했던 것이다.

아이다호 주 릭비에서 라일 보웬과 재클린 보웬 사이에 1954년 8월 29일 태어난 보웬 장로는 부친의 악기점에서 아버지와 함께 피아노를 운반했으며 교회 농장에서 감자를 수확하기도 했다. 브리

검 영 대학교에서 영어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에 그는 부친과, 나중에는 아들과 함께 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보웬 장로와 자매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다섯 손자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보웬 장로는 또한 아들들에게 미식축구와 축구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보웬 가족이 비록 아홉 달 된 아들의 사망을 비롯한 많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보웬 장로는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그가 “그분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 주었고, 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해 주었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은 많은 부름에(가장 최근에는 아이다호 지역에서의 지역 칠십인 부름) 있어 보웬 장로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또한 스테이크 회장, 고등 평의원, 감독, 대제사 그룹 교사, 장로 정원회 회장, 스카우트 지도자,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 회장 및 칠레 산티아고의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

다니엘 엘 존슨 장로

칠십인



칠 십인 제일 정원회의 다니엘 르로이 존슨 장로는 성전 의식들이 복음의 가장 상위에 있는 축복이라고 믿는다. “성전에 가는 것은 참으로 여러 측면에서 신앙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만일 우리가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존슨 장로는 1946년 12월 15일 멕시코 콜로니아 후아레스에서 르로이 존슨과 리타 스투슨 존슨 사이에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으며, 1999년 그곳에 성전이 헌납되었다. 그는 그곳 회원들에게 미치는 성전의 영향을 보아 왔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이 성전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성전이 생활을 바꿔 놓았습니다.”

존슨 장로는 미대륙 곳곳에서 복음이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다. 멕시코 북부 지역의 지역 칠십인으로서 존슨 장로

는 그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멕시코 서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많은 곳을 방문했다. “60년대에 선교사들이 있었던 모든 도시에 현재 최소한 하나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수많은 강한 지도자들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존슨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 및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와 아내인 르앤 홀먼 자매는 1970년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여섯 자녀를 둔 존슨 부부는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타, 미네소타, 텍사스에서 살았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존슨 부부는 그들이 생활했던 곳곳에서 그런 성장에 기여하려고 노력해 왔다.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한 것 외에도 존슨 장로는 에콰도르 과야킬 북 선교부 회장, 선교부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 와드 청남 회장 및 복음교리반 교사로 봉사했다. ■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칠십인



마커스 벨 내쉬 장로는 여덟 살 때 비회원 친구가 그에게 했던 말에 혼란을 겪었던 일을 기억한다. 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참됨을 믿는다고 말했다. 내쉬 장로는 이야기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친구는 자기의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하면, 누가 옳은 거지?”

그는 집 앞 계단에 앉아서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자문해 보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내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너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 저는 속으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참됨을 네가 알고 있는 것 아니니? 저는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답은 그의 간증의 초석이 되었다. 내쉬 장로는 그 토대 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큰 사랑과 물몬경에 대한 강한 간증을 세웠다.

내쉬 장로는 1957년 3월 26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브렌트 내쉬와 베벌리 벨 내쉬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1979년 5월 29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셸리 해치 자매와 결혼하여 다섯 자녀를 두었다.

내쉬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에서 국제관계 학사 학위와 법학 학위를 받았다.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시애틀의 유명한 법률 회사의 공동 경영자였다. 그는 교회에서 스테이크 회장, 감독, 와드 청남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했으며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내쉬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북미 북서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칠십인



앤 소니 듀에인 퍼킨스 장로는 일곱 살 때 한쪽 다리가 성장을 멈추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상당 부분을 다리에 “온갖 종류의 기계 장치”를 달고 보냈다. 그가 열살 때 한 중국인 의사가 개발하여 집도한 실험적인 수술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퍼킨스 장로는 그 사건은 중국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 중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제 인생 전체가 중국인들과 얽여 있습니다.”

1960년 7월 22일 미국 콜로라도 주 코터즈에서 씨니 킴발라 루터 퍼킨스와 래리 라젤 퍼킨스 사이에 태어난 퍼킨스 장로는 그가 13살이 될 때까지는 가족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뉴멕시코 주 파밍턴에서 그는 장차 아내가 될 크리스틴 애벗 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그녀는 학생회 선거에서 그를 압도적으로 물리쳤다. 나중에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고, 그의 선교 사업 동안 내내 서로 편지했으며, 1981년 11

월 21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퍼킨스 장로는 타이완 타이페이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곳에서 “중국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재정학 학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영관리 및 인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국제 경영 컨설팅 회사에 합류했다. 퍼킨스 장로는 나중에 공동 경영인 중 한 사람이 되어 중국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퍼킨스 부부와 여섯 자녀들은 8년 동안 북경에서 생활했다. 그는 현재 타이완 타이페이 선교부 회장의 임기를 거의 마쳤다.

“저는 성인 시절의 절반을 아시아에서 보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커다란 축복을 통해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지구촌 전체에 퍼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을 받기 전에 퍼킨스 장로는 지방부 회장 보좌, 지부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서기,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다. ■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칠십인



크 레이그 앨런 카든 장로는 경전을 통해 오는 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오래 전에 스스로 한 규칙을 세웠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날마다 경전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밤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지 않겠다는 규칙입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카든 장로는 화장단 모임을 할 때마다 경전 토론을 포함시켰고, 이후 다른 부름을 수행하면서도 이 습관을 이어나갔다. “모임에는 항상 경전을 통해 가르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집중하여 상당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카든 장로는 1948년 12월 30일 미국 애리조나 주 메사에서 바일릿 앨런 카든과 윌포드 프렛 카든 사이에 태어났다. 이탈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그는 1970년 11월 25일 애리조나 주

메사 성전에서 데보라 데이너 자매와 결혼하여 여덟 자녀를 두었다.

카든 장로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의로운 모범과 가르침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한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부모의 인도는 그가 어린 나이에 영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언젠가 한 가지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이 있었다. “제가 배웠던 대로 저는 집 근처의 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명한 응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여러 경험이 그의 생애 동안 계속되면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에 종사했던 카든 장로는 애리조나 주립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허버드 대학교 케네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감독, 스테이크 회장, 복음교리반 교사 및 종교교육원 교사를 역임했다. ■

돈 알 클라크 장로

칠십인



돈 레이 클라크 장로가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선교부 회장이었을 때, 그는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한 장로를 선교 본부로 이동 시켰다. 얼마 후 그 장로는 10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는 딸을 찾고 있던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가 사진을 보여주자 이 선교사는 그녀의 딸이 그가 이전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모녀가 다시 만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과 다른 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클라크 장로는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갑작스런 이동과 새로운 부름을 기꺼이 여긴다. “단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역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는 새로운 부름에 관해 말한다.

1945년 12월 11일 미국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의 레이먼드와

글래디스 클라크 사이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그의 간증을 강화시켜 준 것은 좋은 가정, 좋은 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친할아버지였다고 말한다.

그는 리스 대학교(현 BYU-아이다호)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브리검 영 대학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경영관리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0년 6월 5일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메리 앤 잭슨 자매와 결혼하여 여섯 자녀를 두었다.

그는 소매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여러 임원직을 거쳤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에 그는 버지니아 부에나 비스타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으며, 스테이크 회장, 교회 호스팅 책임자 보조, 감독, 스테이크 청남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우스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봉사하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

키스 알 에드워즈 장로

칠십인



키 이스리드 에드워즈 장로는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짐바브웨 하라레 선교부 회장 및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그러나 그가 열거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들은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한 사건 중 하나는 그가 장래의 아내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한 후의 일이다. “제 쌍둥이 형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트만 하기엔 아까운 사람이야. 결혼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옳았습니다.” 엘버트와 메리 레이드 에드워즈의 아들인 에드워즈 장로는 1964년 6월 20일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주디스 리 히긴스 자매와 결혼했다.

에드워즈 장로는 1942년 3월 16일 미국 네바다 주 볼더 시티에서 태어났다. 하와이 교회 대학교(Church College of Hawaii)에 다녔으며, 1961년부터 1963년까지 플로리다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브리검 영 대학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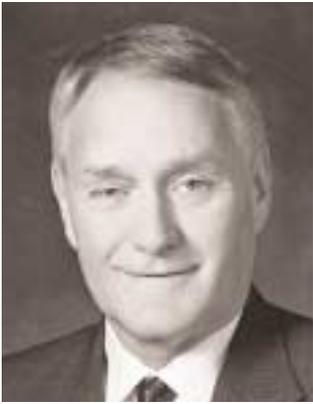
에드워즈 장로와 자매는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했고, 그는 그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 시기에 생사를 결정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에드워즈 자매가 일곱 번째 자녀인 막내를 임신했을 때, 몹시 아프게 되어 먹을 수가 없었다. 가족 금식과 신권 축복 후에 그녀는 차도를 보았다. 그러나 임신 기간이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의사는 아기가 아침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심에 찬 부부는 열렬히 기도하며 그날 밤을 지새웠다. 아기는 나중에 기한을 다 채우고 태어났다.

“21년 후 막내딸의 결혼식 전야에, 우리는 그 아이의 언니오빠들 또한 그날 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에드워즈 장로는 회상한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에 관한 강력한 교훈이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 부름에 관해 에드워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하고, 강하고, 굳건했던 수세대에 걸친 조상들 덕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위해 밝혀 놓은 산길로 올라왔을 뿐입니다.” ■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스탠리 게럴드 엘리스 장로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저는 신입생으로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전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기도하면서 느꼈던 영의 확신을 기억한다. 1947년 1월 22일에 태어나 부모인 스티븐과 헤이즐 테일러 엘리스의 훌륭한 모범을 통해 교회에서 성장한 그는, 미국 아이다호 주 벌리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자라면서 사탕무를 뽑고 건초를 운반하고 가축을 모는 일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신앙의 중요성을 배웠다.

엘리스 장로는 브라질 선교부에서 1966년에서 1968년까지 봉사했는데, 당시 브라질 선교부

는 그 나라에 있던 두 선교부 중 하나였다. 현재 브라질에는 26개의 선교부가 있으며, 엘리스 장로는 최근에 그 중 하나인 상파울루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브라질이 있습니다.”라고 아내인 캐스린 클로퍼 엘리스 자매는 말한다. 두 사람은 현재 텍사스 주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다.

엘리스 장로는 행정학으로 하버드를 졸업한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엘리스 자매를 만났으며, 그곳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두 사람은 1969년 6월 7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아홉 자녀를 키운 그들은 각 자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말한다. “또한 이 부름을 통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함께할 때 모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효과적입니다.”라고 엘리스 장로는 말한다.

그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라는 부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발걸음과 다른 모든 부름에서 영의 인도를 받고 준비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고등 평의원, 감독단 보좌, 장로 정원회 회장 및 워드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다. ■

래리 더블류 기븐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의 래리 웨인 기븐스 장로에게는 한 가지 철학이 있다. “두 가지 어려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더 힘든 것, 즉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야만 하는 일을 택하십시오. 제 간증이 가장 크게 자랐던 경우는 제가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1942년 7월 30일 미국 유타주 로건에서 앤드류 에이치 기븐스와 롤라 히튼 기븐스 사이에 태어난 기븐스 장로는 무수한 경험을 통해 그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그 기간은 인생에서 그를 성장시켜 준 가장 훌륭한 시간 중 하나였다. 집을 떠난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집 근처의 지역 대학교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스탠포드 대학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가족의 격려에 따라 그는 스탠포드로 돌아가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그는 내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유타 대학교에서 의학

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중보건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동안 기븐스 장로는 1967년 7월 21일에 러든 앤더슨 자매와 유타주 로건 성전에서 결혼했다. 시애틀, 샌안토니오와 보스턴에서의 생활 후 텍사스주 달러스에 정착했다. 그들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우리는 부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름을 받아들여기로 선택하는 것 또한 성장을 가져오는 경험을 불러온다. 이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인 기븐스 장로는 최초의 지역 칠십인 중 하나였다. 그는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무릎을 꿇으며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을 부르는 계시를 받는 것은 엄청난 영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기븐스 장로는 또한 지역 대표,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세미나리 교사 및 기타 부름을 통해 성장했다.

기븐스 장로는 의로운 선택을 하고 올바른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